

# MAXIM

SOUTH KOREA

궁극의 아이돌



MAXIMO이 선택한

슈퍼스타K 조문근

가을방학 준비의 음악이야기

SPITZ



프로게이머  
과일장수 김원기

매력녀 21명이 말했다  
눈치채 줘! 섹스의 신호

진짜 사나이  
이정 & 추성훈

FOR WOMAN

남자를 유혹하는 세기의 비법  
성공률 100% 미인계

BMW Z4

SF영화 속 미녀들

SPORTS

야구 뒷담화

EPL REVIEW

ADDICTED TO RED

황우슬혜

김윤석, 하정우의 재결합 <황해>

콕시니스트

슈스케 허각 잔혹사

TAYLOR COLE

몬스터 헌터 3rd

시간도둑 만화책 모음

DECEMBER 2010



www.maximkorea.net

Christmas  
Special  
Edition



SPECIAL 화보  
착한글래머



**KENZO**



www.warofun.com 02.3446.3100

# MAXIM은...



한국 최초 스마트폰 잡지 애플리케이션 MAXIM!  
동영상 콘텐츠와 미공개 확보 제공!  
25만 건 이상의 경이적인 다운로드 수치를 기록한  
iPhone MAXIM 애플리케이션

## 2010년 12월!

MAXIM 신간과 무료 과월호가 쏙쏙하게 업데이트되는

MAXIM 통합 애플리케이션 출시 예정

# 잡지의 미래다.



## 당신은 앞서 나가는가?

이제 iPad에서 넓고 깨끗한 화면으로 고화질의 MAXIM을 즐겨라!

iPad용으로 재편집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MAXIM!

곧 만나보세요!

# MAXIM Features

DECEMBER  
2010



## 72 VNT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외모면 외모 어디 한 군데 빠지는 데가 없는 스펀시한 아이돌 VNT가 MAXIM에 등장했다. “에~에~에~에~”

### 29 GIRL NEXT DOOR

아리따운 여성 독자 두 명이 MAXIM의 문을 노크했다. 이리다 문 망가지지않대 점점 뜨거워지는 독자모험 콘테스트!

### 84 TAYLOR COLE

미국 수컷들은 테일러 콜에 홀딱 반해 미드 <디 이벤트>를 정주행 중이다. 색시함이 물씬 풍기는 그녀의 화보를 보고 나면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거다.

### 90 ICON: 추성훈

마왕 추성훈이 커버를 장식했다. 경기 중 상대로부터 중요 부위를 가격 당해 남성이 박살난 이야기는 역시 MAXIM에나 될 여놓는 얘기인 거다.

### 107 맹장열전

눈앞에 떨어지는 포탄을 비비탄처럼 가볍게 여기며, 마취 없이 다리를 절단하는 일침도는 웃고 남길 줄 아는 맹장(猛將)을 소개한다!

### 114 HOT SCI-FI WOMAN

당신이 SF 영화를 보는 진짜 이유를 우린 알고 있다. SF 영화 사냥 가장 HOT한 여인은 누구일까? 딱 8명만 뽑았다!

30



84



90



107



114



WWE SURVIVOR SERIES



WWE 론칭 1주년

# 현장중계 이벤트

2010.12.11

자세한 내용은 FX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channel SCREEN FUSION CINE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http://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 92 황우슬혜

남자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그녀를 만나보자. 당신은 이 화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을 거다.

## 10 MAXIM INSIDE

본격 MAXIM 카툰 (보리의 마음) 제1탄!  
작가/ 굿새니스트  
남들보다 한 달 먼저 크리스마스를 만끽한 MAXIM 편집부 일동

## 18 CIRCUS MAXIMUS

MAXIM USA 10인의 이쁜이 퀴두라이 케이크, 크리스마스 잔혹사. 이런 게의 새끼가 진짜 뇌로 하는 게임. 아주 간단하게 몸을 달구는 방법. BEAT THIS CAPTION

## 38 MAXIM SPORTS TIMES

이번 달도 야구 소식을 꺼없이 봤다. 다음 달은 정말 제대로 된 농구 소식을 꺼었겠다.

## 42 RATED

하락의 눈물, 허정우&송혜교, 정바비의 음악 얘기, 마이클 잭슨 신보 (MICHAEL), 사라 피는 프로게이머 김원기 수협 액션 게임 (문헌 3rd), 미래의 슈퍼스타 조문근, 타임워프 코믹스

## 53 MOTOR

MAXIM의 슈퍼렉스턴 FX4 시승기, 굵고 싶은 로드스터 Z4 sDrive30i, 2010년 12월 시판차량 총정리

## 60 STUFF

토미 리의 바이크, 당신이 맥북에어 11인치를 사야 하는 이유, 스마트한 사람이 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사용법

## 63 X-MAS SPECIAL GIFT

일리바바가 '엘라라 칭께' 라는 주문으로 보물이 숨겨진 동굴의 문을 열었다! 당신도 MAXIMI! 엄청난 선물로 그녀의 몸과 마음을 확 열어젖히도록!

## 80 IN DA CLUB

푸시켓 돌스보다 더 핫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그녀들을 볼 수 있는 J&B PARTY! 페이지를 펼친 순간 당신도 이미 노예.

## 116 착한글래머 엄삼미

말이 필요 없다.

## 124 STYLE

후끈 달아오르는 머물러, 외국 배낭 여행객의 한국 체험, 파티에서 주목 받는 패션, 2010년 브랜드별 베스트셀러 남성 화장품 모음





# Drift Your Soul **SPIRRA**



#### 미드십

스피라는 미드십 엔진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드십이란 엔진과 변속기가 차량의 중간에 위치하여 스포츠카는 저질러 무게중심을 낮추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높은 탄성률과 서늘한 변질 및 정확한 변질으로 강력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스피라에게 미드십 레이아웃의 채택은 필연적이었고 할 수 있었습니다.



#### 스페이스 프레임

스피라는 일단 차량에 적용되는 50% 크고 구조가 강하고, 비록 미드십 스포츠 드라이빙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레임은 생산 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지만 좌우 승객 및 비틀림 강성이 뛰어난 경량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적지 않습니다.



#### 카본 바디

스피라 경쟁력이 특이한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카본 바디는 탄소섬유를 가공하여 용융 후 주조 기술에 의해 사용되는 신소재입니다. 일단 무게가 매우 가볍고, 내충격성, 내열성이 뛰어나서 무척 가볍고 기동성이 높습니다.

##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슈퍼카 탄생

### 장인의 손으로 빚어낸 자신감!

전세계에는 유수의 명스포르츠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역사 55년의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통 스포츠카는 아직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세계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국가대표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스피라를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MAXIM

SOUTH KOREA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 이예성

전무이사 김광선 / 이사 양지웅 / 이사 원해진 / 이사 소상혁

## FEATURE EDITORIAL Team

김민영 ny@maximkorea.net 김상현 psycho@maximkorea.net  
김희성 alic@maximkorea.net 유승민 sm@maximkorea.net  
이영희 yeh@maximkorea.net

## FASHION EDITORIAL Team

고경희 kok@maximkorea.net 조정민 jjj@maximkorea.net

## EDITORIAL DESIGN Team

이은학 eastlocust@maximkorea.net 정미연 Berrymee@maximkorea.net  
정지연 dotdot@maximkorea.net

## STRATEGIC PLANNING Team

STRATEGIC PLANNING Director 소상혁 so@maximkorea.net  
ADVERTISING Manager 김승국 sk@maximkorea.net  
김진욱 146@maximkorea.net  
홍승의 soumat@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Manager 장문진 woz@maximkorea.net  
CRM / FINANCE PLANNING Manager 박정영 jeh@maximkorea.net  
CREATIVE PLANNING Manager 유승민 sm@maximkorea.net  
홍승의 soumat@maximkorea.net

교열 신성경 kshin0111@daum.net

WEB SERVICE 도범 / IT Director 서정민 orseis@town.com

## PHOTOGRAPHY ARC STUDIO

FILM MAKING jin Wook

## FINANCIAL CONSULTANT

승강회계법인 / Accountant 김광록 Consultant 고진아

인쇄 · 유통분해 / 인쇄인 유성근 ㈜상화인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10

DISTRIBUTION 승주 출판유동



발행처 (주)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182 / FAX. 02-6455-0963  
2010년 언월호 증권 거래소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도 라-00996

광고 문의 070-4010-904, 9043, 9046 구독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eh@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MAXIMSouth Korea는 세계 20개국 편집부에서 발행되고 36개 언어로 판매되는 글로벌 남성 주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 그룹은 2009년 1월 25일부로 대한민국에 (주) 미디어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주) 미디어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라이선스 계약자이며, MAXIM의 한국어판을 출판,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알파미디어 그룹에 와이미디어 외에 어떠한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사인 알파미디어 그룹에 귀속되며 허락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copyright©2010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 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ISK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M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STEVE MINNITI**

**MAXIM UNITED STATES**   
DENNIS PUBLISHING INC.  
1040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8  
EDITOR IN CHIEF **JOE LEVY**

- US HISPANIC** Dominican Republic
- UNITED KINGDOM**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 FRANCE** Belgium, Switzerland, Quebec
- GERMANY** Austria, Switzerland, Lichtenstein
- CZECH** Slovakia
- SERBIA**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om
- TURKEY** Cyprus
- ITALY**
- PORTUGAL**
- BULGARIA**
- GREECE**
- KOREA**
- ARGENTINA**
- BRAZIL**
- RUSSIA**
- UKRAINE**
- THAILAND**
- INDIA**
- INDONESIA**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MP3 FOLDER SEARCH

RELOOP/EXIT

CALL



MASTER TEMPO



PLAY/PAUSE



TEMPO



VINYL SPEED ADJUST

TOUCH/BRAKE

RELEASE/START



REV

FWD

EXPECT  
THE  
UNEXPECTED

JET  
J&B







# 麥心

## 보리의 마음



붉은 마대자루  
2500원  
혜화문고



**HO  
BAR**

Are you ready to crazy with HO BAR?  
Good people Better feelings!  
**The best HO BAR!**

HO BAR는 홍대문화중심에서 성장한 대한민국 최고의 웨스틴클럽형bar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송년 모임**을 HO BAR와 함께하세요.  
HO BAR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bar 운영의 꿈...이제 HO BAR가 함께합니다.

2002년부터 차별화된 컨셉과 경영시스템으로 성장한, 젊은 당신과 함께 하코른 프랜차이즈 HO BAR입니다.

**HO BAR가 젊은 가맹점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0' HO BAR  
PHOTO EVENT**

2010년 HO BAR가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

이 광고지면을 당신의 핸드폰에 담아서 HO BAR로 오세요.

매장 스태프에게 사진을 보여주시면 '왕쏘세지감자' or '롤링햄치즈'를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 2011년 1월 31일까지

(세트메뉴이상 주문시/다른 이벤트와 중복 적용 불가/금, 토 제외/건대, 1와 종로는 제외)



홍대 : HO BAR I, HO BAR II, HO BAR III, HO BAR IV, HO BAR V, HO BAR VII, X HO BAR, THE HO BAR, LUXURY HO BAR, HO BAR TEN  
종로 HO BAR II, 합구정 HO BAR I, 합구정 HO BAR II, 신림 HO BAR I, 신림 HO BAR II, 수유 HO BAR I, 12월 오픈예정 : 선릉 HO BAR I, 영산 HO BAR I

홈페이지 | [www.hobar.co.kr](http://www.hobar.co.kr) 싸이월드클럽 | [club.cyworld.com/THEHOBAR](http://club.cyworld.com/THEHOBAR) 트위터 | <http://twitter.com/hobarHO>

**HO BAR**

문의전화 | 1544-8558

# Letters

올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월동 준비, 잘 하고들 계신가?

습다...  
등 좀 지지자



<http://twitter.com/MAXIMKOREA>

## MAXIM 따위

마스크 팩을 하며 MAXIM을 보다가 MAXIM 이 벤트가 떠올라 응모합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티켓을 주시면 유행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팀

지금 독자님 책이 MAXIM에 도전하는 건가요? 마스크 팩을 한 채 MAXIM을 읽다니요? 팩을 할 때는 절대 웃음을 유발하는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유자원생 철수도 아는 사실인데 말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팩을 한 채 MAXIM을 읽으니 어떨까요? 독자님의 얼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 번도 단 한 번도 웃음이 터지지 않았기를 기원... 하긴 될 한디까. 주름 자글자글해서 마스크 팩 회사에 항의 전화나 넣어야. 에이! 하지만 독자님의 가상한 노력에 티켓을 뿌리겠시오니 부디 즐겨 운 공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 책임제!!

안녕하세요. MAXIM을 사랑하는 23세 대학생입니다. 제가 즐겨 보던 잡지가 저작성 문제로 폐간이 되었다 하네요. 조금 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송에서 이기신 거 축하하는 드립니다. 하지만 대신 전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저의 허전함을 달래 주셔야 해요! 제 시연을 순순히 독자님께 코너에 올리면 유행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아네 그나저나 외국 MAXIM 11월호의 표지 모델은 에이브릴 라빈이던데, 왜 이번은 다르죠? 또 다른 MAXIM은 아니겠죠? -Juninhan 물론 아니죠. 이제 더 이상 2호의 MAXIM은 없습니다. MAXIM 11월호의 표지 모델은 미국 본사의 10월 MAXIM 커버 모델이었던 안나 쿠르니코바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오로지 한 권의 MAXIM만이 존재합니다. 여태껏 독자님께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알찬 내용으로 보내주시길 사랑과 응원에 보답할게요! 그런데 독자님, 존댓말로 MAXIM을 재직질려다니 왜 갑자기 반말이세요? 왜 MAXIM에 애타에게 혼란을 일으키냐 말입니까! 이거 윗 환란스러워서 갑자기 줄음! 응? 저하가 원고 마감 못 지키면 독자님 책임입니다!

책읽 맛 좀 볼까? 어땠



## 하루를 더 살게 해준 MAXIM

MAXIM을 오랫동안 사랑해온 애독자입니다. 얼마 전 돈 문제로 여친과 헤어졌어요. 저에게 남은 것은 공허감뿐입니다. 병원에 가니 가연성 우울증이라네요. 죽을 만큼 우울했는데 MAXIM을 보며 웃을 수 있었어요. 전 MAXIM 에디터의 답변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 갑자기 또 우울해 지네요. 제 1년 치 MAXIM이 헤어진 여친 집에 갔네요. 이걸 어떻게 돌려받지 생각하니... 허 참... -강철웅

우울증은 치료와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MAXIM 때문에 웃으셨다니 강게무량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치 MAXIM이라니요. 혹시 얼마 전 법원에서 책등 판정을 받은 그 MAXIM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진짜 MAXIM은 재창간된 지 1년 이 채 안 되었습죠.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여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 박장대소할 MAXIM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AXIM

과 함께 하루 더 가 아니라 영생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독자님 버리고 도망이나 간 것들은 돌려 받을 생각일랑 하지도 말고 새 MAXIM, 그리고 새 여자도 갈라타십시오. 오 라이너~



익힌 뒤 오로지 피의 복수엔!



우수수수... 하나면 돼!

## 문명인의 자제력

일요율. 마약. 도박보다 더 무서운 중독성을 가진 [문명이라는 게임]을 알게 됐소. 나의 자제력을 시험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소. 건투를 빌어주세요. -4년차 9급 고사생

물론이죠. 건투를 빌어 드립니다. MAXIM의 한 에디터는 거무튀튀한 수명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냄새를 풍기며 산데 에디터에게 우수수를 내놓으라고 하여말한 한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습니다. 침도 좀 흘리는 것 같네요. 근데 4년차 9급 고사생 독자님이 건투를 빌어 달라는 게 고시입니까. 문명입니까? 이라든 4년이 아니라 4세기차 9급 고사생이 될지 모르겠군요.

**FX**  
남자의 모든 것

**UFC**  
매주 월-수 밤10시

UFC 양동이 선수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FX** 진정한  
**UFC**를 깨우다!

tcast

Echannel       

[www.fxchannel.co.kr](http://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담배 한 대만  
뒤 바라.

## 칼라폰파워!

전역학 학교로 캠퍼스 복학생. 복돌이입니다. 사회로 돌아오며 다른 인연은 모두 정리했지만 MAXIM만은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주머니 가벼운 복돌이 주제에 정가두까지 신항해했어요! 자, 사연의 핵심은 말이지. 저는 MAXIM 에디터님들과 다르게 능력이 남살만큼 넘쳐흐르기 때문에 복학과 동시에 예쁜 상의들이 어천지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세상의 물가는 왜 이리 천정부지로 치솟는지요! 바깥세상의 냉정함에 오늘도 좌절하고 있는 저에게 비닐을 베를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배가 아프지만 상의들을 보필하는 가엾은 복돌이를 어찌해 주시기 서서 얼마 전 제대했다는 조지킬의 공연 티켓을 보내주시던 무한 감사 하겠어요. -미노킴

초반의 자신감은 어디로 내던져버리고 티켓을 구걸할까? 우리 MAXIM 에디터의 능력까지 무시하시나요. 여기 MAXIM 사무실 근처엔 한번만 만나 달라고 회사를 세 바퀴나 감고 줄을 서 있는 남자/여자들이 에디터들의 입구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MAXIM을 읽을 독자님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과감히 이성의 유혹을 내던져버리고 업무에 집중을. 정관만. 저 눈물 좀 닦고요 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 컵들을 반대, 술로를 한해할 생각입니다. 절대 우리가 예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호아영호영호영호영호영.

## 오목구멍에 붙은 매미 한 마리

술로 생활 3년이 다 돼요. 자란 주 배에서 한잔하던 중 외국인 여성에게 대시를 받았소. 하지만 180cm를 보이는 그녀의 키에 놀라 그냥 포기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후회가 되요! 길거리 바퀴벌레 같은 컵들을 보면 그냥 그 외국인 여성과 만나볼 걸 그랬나라는 후회가 물밀 듯 밀려오네요. 황준영 우리도 참으로 안타깝네요. 왜 골라 들이든 목을 차 버렸잖습니까! 다군다 나 크리크라스가 코 앞에 닥쳤는데 말입니다! 키 차야! 뭐가 대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바웃기까지 하잖습니까! 키스를 할 때 거기를 수줍게 들어 올리는데 너무 심할 것 같네요.

자기가 오늘도  
분홍색 팬티야?



## 열혈독자

안녕하십니까. 난생 처음 MAXIM에 애독자 서신을 보냈네요. 그런데, 애독자 없시라, 그래서 친히 본인 소장 등기우편엽권 우표를 사용했(초년 착화조각, 밑둥가 반발이라 이런 써지키없는 SHWEPI 하며 편지를 찢지는 마라! MAXIM을 많이 읽어 말투도 MAXIM 에디터를 닮았어). 어쨌든 이번 11월호에 대해 나름대로 품평을 해보겠다. (편지지 5장 중략 자, 11월호 편지는 여기까지. 모든 기사에 대해 편지를 쓰지 않 내 손가락의 스테이시가 모자랐다. 어쨌든 한울 편지로 MAXIM 최고 -buttery

장장 7쪽에 달하는 편지 잘 읽어 보았습니. 하지만 MAXIM 에디터의 입과 글씨를 몇 번 올라가게 해줬으므로 편지의 문장에 대해서 불평하진 않겠어. 기사마다 정성을 가득 들여 펴놓아주시어 감사합니다. 힘이 풀곤 풀곤 나오네요. 아무튼 7장 편지의 핵심은 이겁니까? MAXIM 최고 이 짙은 한 마디를 장장 7쪽에 걸쳐 풀어낸다고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 같네요. 그런데 7장을 써놓고 굳이 모든 기사에 대해 편지를 쓰지 않 내 손가락의 스테이시가 모자랐다 고 말하는 건 뭐가요? 손가락이 스테이시가 남았거든 도대체 우리는 몇 장의 편지를 받아야 했나? 편지 분량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자꾸 길고 늘어져서 민망해요. 아, 그런데 친짜 마자르네요. 꼭 7장이야 해야 하나요? 독자편지 담당 에디터가 그렇게 미웠나? 내가 뭘!

## 자전거 그리고 나의 정자

양산을 시도하고 있는 친구와 와이프가 친구에게 자전거 급거장권을 내렸습니. 자전거가 인구 생산에 방해가 된다면, 공해 없는 녹색도시를 만들려는 작은 소망의 실현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무슨 의미가 있었어? 진정한 인구 생산능력과 자전거 간에 상관 관계가 존재할까? 참, 그리고 다음 달에 여진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일어날 거야. 유자킬 (자릴 앤 하이드)을 보고 싶네. 우리 제 가벼운 주머니를 MAXIM! 매꿔 준다면 연인 사랑 MAXIM을 90년 사랑으로 연성시킬 것입니. -조세피



연구 결과가 따르면 자전거를 오래 타면 전립선이 압박되어 정자 생산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 하지만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온 한 내일 미래 미혼의 포토그래퍼의 증언에 의하면 자전거를 오래 타더라도 시간에 5~10분 휴식만 취하면 생식기능에 별 무리 없다고 하네요. 흥분한 그 포토그래퍼는 증명해 보이고 싶네! 여 미친 기러기에 손을 올려 질문을 던진 에디터를 충직 놀라게 했습니. 조세피 독자님 때문에 못 볼 걸었으니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 손해배상 청구 안 할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어쨌거나 **메리 크리크라스**♥

자전거를 오래 타더라도 시간에 5~10분 휴식만 취하면 생식기능에 별 무리 없다고 하네요. 흥분한 그 포토그래퍼는 증명해 보이고 싶네! 여 미친 기러기에 손을 올려 질문을 던진 에디터를 충직 놀라게 했습니. 조세피 독자님 때문에 못 볼 걸었으니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 손해배상 청구 안 할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어쨌거나 **메리 크리크라스**♥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 MUSEUM OF MAXIM ARTS

### MAXIM 미술 박물관 MOMA

#### 에디터 유승민 전

뉴욕 MOMA(Museum Of Modern Arts)

따위 가소롭다.

이번 달 생방송 MAXIM 스태프는 바로 유승민 에디터. 그의 손글씨, 펜의 터치감, 그리고 작품의 사상성에 매료된 한 에디터는 그의 작품을 학생 앞에 보여 놓고 매일같이 감상에 빠진다. 왜냐. 왜냐. 왜냐. 유승민 에디터의 작품을 공개한다.



보라 저 애관한 기둥을 저 세상에 뒀어 무쌍! 캄파트의 귀재! 연대! 유희야! 무명에서 벌써 일러나 가슴을 울려! 다시 잠들었잖는 소문이! 아. 영 비 에디터는 그들 X의 황제고 청송하, 김민혜 에디터는 그의 그림을 부작화할 지니며 부족한 양기를 흡수한다.

## WANTED

### 독자 사연과 사진 응모



웃음내탁  
 (응모방법)  
 \*원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사연이 채택된 독자에게는 연극 (웃음의 대화) 공연 티켓 예매권 한쌍을 선물로 증정한다.

### 당신의 사장이 궁금하다

생각은 우리가 하겠다. 당신은 MAXIM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재미있어서 좋든, 선물 못 받게끔에 더하? 매일 독자 편지 코너에 선정된 사연 중 영웅을 추첨하여 선물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호에.

### 당신 현상도 보고 싶다

MAXIM을 읽듯하는 사연을 보내라! 열공 책으로 현상을 수줍게 가린 작사 수필 중 반쯤 뜻이 MAXIM을 보는 학생 용자는 이미 나왔어. 우리 더 독한 상황에서 MAXIM을 보는 용자의 도전을 기다리겠어. 사진 올린 분은그나 홈비 주소(주소),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저어 reader@maximkorea.net로 보내면 선물을 차치할 수 있습니.



연극열전  
20만 관객의  
선 택!

웃음을 건 7일 간의 한판 승부!

# 웃음의대학

BY KOKI MITANI

칼퇴근하고 연극보자! 회식티켓 25,000원(10인 이상, 인터넷에매 시)

# CIRCUS MAXIMUS

## MAXIM USA'S PERFECT 10

MAXIMI 미국 전역에서 물려 든 1,000여 명의 사랑스러운 아가씨 중 TOP 10을 추려냈다.  
이들 중 당신 마음을 흔든 섹시함의 본좌는 누구인가?



### MC

휴스턴, 텍사스주

남자에게 들은 최고의 직업 멘트는?

한 남자가 말했다. "내가 피터팬이 라면 당신은 나의 행복한 상상"

### ASHLEY ANN

내슈빌, 테네시주

플로리다에 살면서 악어를 목격한 적이 있나?

물론 나는 습지로 수영하러 가자고 야박을 조르곤 했다. 그럴 때면 어부는 '계 정신이네. 자기에서 일광욕중 인 악어들이 안 보이니?' 라고 나무란다. 하지만 악어들은 내 몸의 단 한 조각도 원치 않았다. 진짜대!

### LISA

어벤츄라, 플로리다주

여자끼리의 묘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

지금 여자친구와 키스 하고 있을 때가 있네. 언젠가 내 생일에 친구가 나에게 와서 키스한 적이 있다. 일부러 다른 이의 시선을 끌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대

### KAITLYNN

포츠머스, 뉴햄프셔주

살면서 겪은 가장 괴상한 경험은?

물에 친구와 함께 코펠라에 갔다. 그런데 모델 투숙 날짜를 잘못 예약해서 병이 없었다. 모델 포트에서 일하는 여자와 그녀의 남자 친구, 엄마, 동생, 3명의 아이들이 있는 그녀의 집에서 함께 보냈다. 하룻밤에 75달러나 지불하고

### DANIELLE

사카고, 일리노이 주

법을 어긴적이 있나?

레스토랑을 모른하기 위해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담당 공무원에게 슬쩍 뇌물을 주려다 실패했다. 결국 법대로 해야 했다.

# Hometown Hotties 2010



PHOTOGRAPH BY BRIE CHILDERS ALL SWIMWEAR BY AMERICAN APPAREL

## MEREDITH

웨스트 하리치 메사추세츠 주

지금까지 경험한 최악의 직  
업은?

제트스키를 파는 곳에서 일했다. 그곳 직원들이 뽑은 유일한 여자 직원이었다. 그들은 나를 제트스키 위로 던지기도 하고, 인사시킬 때로 물에 빠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사춘기 소년의 장난스러운 관심이라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 KASSANDRA

L.A. 캘리포니아 주

MAXIM 촬영은 어땠나?

광장했다. 은밀한 곳에 모래가 조금 들어간 행자만 앞치마대야 그 부위가 어딘지는 알고 싶지 않을 거대 아니. 혹시 더 알고 싶은 부위(2가) 촬영할 때 어린 소년들이 우리를 열심히 구경했다. 쳐다보는 걸 그만 두지 않으면 함께 사진 촬영해버릴 거라고 말해줬다.

## LINDSEY

유리에타, 캘리포니아 주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가질었던  
순간은?

캘리 카드라이버 겸 플룩이 오는 차에 탔을 때. 정말 무서웠다. 그는 미친 농처럼 차를 거칠게 몰았다. 도넛 모양을 그리면서 말이다. 4바퀴를 돌 때이다. 타이어를 갈아야 했을 정도다.

## MELANIE

뉴욕, 뉴욕 주

당신 인생 최고의 데이트는?

올해 나를 전용 비행기로 태우고 아틀란타로 데란 남자가 있었다. 그의 무릎에 목격한 거유를 올려놓는 스트리퍼가 있는 그린 클럽에 함께 갔다. 그는 온전히 나만 쳐다보는 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 AMANDA

루이스빌, 켄터키 주

살면서 체포된 경험이 있나?

없다. 무단횡단하다 법원에 소환당한 적은 있다. 판사는 봉사활동을 명했고, 나는 한겨울에 청문을 댔던대.

# 올겨울, 당신이 귀뚜라미 케이크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올 크리스마스에 단백질이 풍성한 영양만점 귀뚜라미 케이크 어떠세요?  
귀뚜라미. BY 김연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Cricket  
Cake



**겨울철 체력이  
뚝뚝 떨어지세요?**

최고보다 높은 단백질 함유량을 자랑하는 귀뚜라미가  
등쪽 들어간 귀뚜라미 케이크로 체력을 보강하세요!  
(※귀뚜라미의 단위면적당 단백질  
비율은 무려 20%로 쇠고기의 18%보다 높습니다.)

**저탄·발기부전으로 고생하신다고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귀뚜라미 4~5개를 먹으면 발기부전이  
치료되고 왕성한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추 불편

**아이도 할갑야!**

고혈압엔 귀뚜라미쥬이 귀뚜라미의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도 떨어뜨립니다.

참 재주 많은 녀석이죠?

추가 토핑한 밀

웜 (밭을 훑어 먹는 해충 거  
저리의 애벌레) 역시 단백질 영  
어리췌. 이들은 냉동 건조시킨 경  
우 대부분의 영양 성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날것으로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꿀깃꿀깃  
오도동동~



# 크리스마스 잔혹사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자체가 잔혹하겠지. BY 김민애



## 1971

### 대일각 호텔 화재

호텔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커플이 부러냐?

→1971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화재로 최대 인명 피해를 낸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에 위치한 건흥빌딩 대연각 호텔이 출렁당 타버린 것. 소방차 44대, 대동령 진용 헬기 국군과 미군 헬기 10여 대가 불을 끄기 위해 출동했지만 167명이 사망, 6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 이후 대형 건물에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는 것이 의무화됐다. 대연각 호텔 화재는 영화 <타워링>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아직도 뜨겁게 불타는 크리스마스가 부러냐?



## 1974

### 아우백에 담긴 스페셜 폭풍 잔치

산타의 사랑한 깜짝 선물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 도시 다윈은 산타 때문인지 않는다. 1974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 당일 사이 태풍 사이클론 트레이시가 마을을 날라버린 때문이다. 태풍으로 도시 건물 70%가 파괴되고, 2억여 명의 집이 무너졌다. 7명이 사망했다. 재산 피해는 약 9,400억 원. 이 대형 참사는 노르 TV 시리즈 등의 소재가 되었고, 호주에는 이 태풍의 이름을 본떠 그림형을 사이클론 트레이시로 지은 에메베일 그림이 생겼다. 역시 집 나간거 개고생이다. 한국에 전파되어는 길 다 행시도 아니냐.



## 2000

### 밀레니엄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악몽

→2000년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다. 당시 기업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벤트에 상당 금액의 경품을 왕창 뱉어야 했다. 1억 원의 상품, 노트북, 오디오, DVD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이 경품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은 높이 1.5cm 이상 쌓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간주해서 노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직살량은 2.7cm. 당시 기차동차는 직살량 기준을 3cm로 설정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2003

### 중동 지역의 크리스마스 반대 시위

촉제 분위기를 타러하고 싶은 건물주

부다란이 아니다

→이슬람교가 우세한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는 기독교 풍습이 크리스마스를 맞은 기쁨을 충원과 로켓도 교회에 쏟아 부어준다. 2003년 크리스마스는 바그다드 곳곳에서 저항 세력의 로켓포 타격이 발생했고, 세라틴 호텔, 바그다드 호텔 등은 해방 이슬람의 로켓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쏟아졌다. 이라크는 2008년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이라크가 멈출지는 의문이다. 부디 크리스마스에 이라크로 여행 가는 여행지는 얼길 바란다.



## 2005

### 크리스마스 바이러스

좋은 말로 할 때 도로 가져가

→2005년에는 크리스마스 이메일 커드로 위장한 인스턴트 메신저 웬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전파되는 웬 바이러스가 퍼졌다. 웬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개인 파일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방화벽 수준이 낮음으로 변경된다. 2006년엔 초에는 2억여부터 28만부터 크리스마스 바이러스의 체르노빌 변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이 바이러스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파괴하는데서 내 아픈! 크리스마스에 굳이 컴퓨터 보안까지 아등 내내만 생각해지 말라는 해커의 훈훈한 교훈을 담고 있긴 뭐가 있어

## 2007

### 용인 모 리조트 리조트 고상 잔치

희지만 유희도 여운이컸던 스키장 같이

친구조차 없을 거야

→2007년 경기도 용인에서 성탄절을 보낸 외국인들은 다산이 산타 타령을 하지 않을 거다. 초급자 코스 슬로프의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 리프트에 타고 있던 어린이 20여 명이 높이 7m 상층에 2시간 여 동안이나 대동대동 매달려 있어야 했던 것. 소방 당국이 달려 구조하기까지도 어린이들은 추위와 공포에 비탈을 떨어야 했다. 업체는 리조트 이용 고객 500명에게 유급 잔여를 환불했다. 하지만 더 이상 크리스마스의 낭만 때문이 아니라 못할 관리부담의 잘못된 심정은 어떻게 보상할 텐가

## 2007

### 헤진이 예술이 유괴 살해 사건

너 때문에 배를 자는 일엔

→위의 리조트 사건은 막대한. 같은 해엔 2007년 이웃 집 남자가 크리스마스 동전을 사라 나온 초등학생 헤진 이 예술이를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살해한 것도 자라던 시신을 집 안에서 훼손, 아이와 개천에 양해당했다. 이 시위할 능은 사형을 선고받고도 뻔뻔스럽게 자신의 병행을 보충한 기세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제 크리스마스의 자는컸던 분노가 풀어오르지?

## 2008

### 괴한 산타 총기 난사 사건

그,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거였어?

→2008년 크리스마스이브에는 괴한 산타가 등장했다. 한 남성이 새빨간 산타복을 착용하고 하얀 아네의 부모 집에 쳐들어와 총기를 난사하여 피터를 사살할 거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으로 8명이 사망했다. 괴한 산타는 집에서 성탄절 파티를 벌이던 25명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불꽃이 지든 뒤 도주했다. 이는 장미타 천 벌을 쫓아 하는데 그는 다음 날 형의 집에 기어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상 살기 힘들지?





문세출연  
공연티켓



# 결혼할꺼야

내년이면 서른, 올 겨울도 혼자 보낼건가요?



**데이트티켓 17,500원**

커플이라면 누구나!! 현장 커플 확인 필수!!  
(인터넷 예매 시, 회당 40매 한정)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OPEN RUN**

예매인터파크 1544-1555 [www.theatringplay.co.kr](http://www.theatringplay.co.kr) | 문의 02)766-6007  
관람료 25,000원 | 콜업번호가? | <http://club.cyworld.com/5wedding>

직 김효진 | 연출 박능기 | 출연 박재연, 송지영, 고나은, 재경, 하자나, 박서연, 유건우, 김동준 | 제작 나은컬처 **naon** | 후원국립연극원 | 협찬 **QUA TNCT**

# 개의 새끼들



인간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녀석들만 모았다.

BY 김원재 IMAGE Dreamstime.com

**1 주인을 쳐묵쳐묵** 2009년 중국 하이퉁성 다칭 시의 50대 남성 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개 뉴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몸중이까지 갖다 바쳤다. 뉴뉴는 자신에게 먹이를 주려온 주인의 눈, 귀, 목을 쳐묵쳐묵해 주인의 숨통을 끊어냈다. 키 80cm, 길이 150cm, 몸무게 100kg 이상의 거대한 몸집을 가진 뉴뉴는 마스터 프로 불리는 티베트 개로 몸길이 약 7억 원 이상인 귀한 품이다. 귀한 몸바늘까봐 몸보신도 참 거하게 한다.

**3 글로벌 견재** 영국의 왕립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미샤와 멘체스터 지부에 사는 센트라는 개새끼는 폴란드와 영어 총기 국가를 왔다갔다(구사한 못한다). 센트의 전 주인이 폴란드인라 폴란드 말을 익힐 수 있었고, 영국에 거주하면서 영어에도 적응했다. 인간이든 견이든 똑똑한 것들은 이유 없이 재수 없다.

**5 보석은 내 소리** 미국 워싱턴 DC 외곽의 한 보석 가게에 솔리 라 이몸의 강아지가 있다. 이 녀석 역시 뉴뉴 만큼이나 비싼 입맛을 자랑한다. 2010년 3월 솔리는 주인이 떨어뜨린 다이아몬드를 낚음 잡수셨고 주인은 다이아몬드를 다시 받기 위해 3일을 기다려야 했다. 솔리가 먹은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약 2천만 원. 주인은 사건 이후 솔리가 다른 것들 먹지 않도록 사료의 양을 대폭 늘렸다. 돈도맛도 경멸하고, 시로도 놀고, 이는 머리 좋은데?

**2 이런 개 같은** 자기 개라고 주장하니 우리도 인정해주자. 영국에 살고 있는 헨리란 소 새끼는 개들과 어울려 지내고, 개처럼 짓는다. 어렸을 때부터 개들과 함께 생활해서인지 녀석이 자신은 개로 착각하고 있다. Q 헨리의 주인 벤보우원은 말했다. 지금은 부러도 괜개처럼 애교를 부러도 괜잡지자만 나중에는?

**4 성형 미건** 개 주제에 성형수술을 받은 놈도 있다. 영국에 거주하는 차이냐즈 사메이가의 물리란 녀석은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려 시력을 잃을 위험이 있어 눈 쪽의 주름을 제거하고, 이마의 근육을 당기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이 개는 주름 찢어진 탱탱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었다. 다들 그러지, 속눈썹이 눈을 찔러 생글수술을 받았을 뿐이라고.



자네가 먼저 시비 걸어봐?

## BOOK BY COVER

표지로 보는 이담의 책  
— 남자야 여자 편  
표지만 가지고 책을 판단하지 말고! 했냐? MAXM은 하지 말라는 건 꼭 다 해본다.



모든 것을 먹어본 남자  
제프리 아서킨슨 / 최기용  
내 어린 먹은 놈이 내냐?

해주는 남자  
무명수 / 홍미  
무렵다.



남자는 왜 핏짜지까?  
스티븐 유언 / 최기용  
아마 장식용?



그 남자가 지갑을 여는 순간  
맥켄지 데이비드 / 최기용  
그 여자의 입꼬리가 올라가겠지.



그 여자가 지갑을 여는 순간  
맥켄지 데이비드 / 최기용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아름을 사랑한 여자  
최기용 / 최기용  
장기간, 워리드?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여자  
최기용 / 최기용  
범사부터 피곤해하, 피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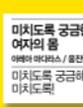


## NOW YOU KNOW

### 여자친구 혹은 악령과 싸움을 끝내는 방법



	여자친구	악령
인생을 사수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	○
과거를 나누며 공감해준다.	○	○
영화(사랑과 영혼)를 함께 본다.	○	○
필요하면 성지사를 중재자로 모신다.	○	○
'당신 속이 투명하게 보인다'고 말해준다.	○	○
이별 색소를 요구한다.	○	○



미치도록 궁금한 여자의 몸  
에릭 미치코프 / 최기용  
미치도록 궁금해 미치도록.



여자는 왜?  
송영우 / 최기용  
도대체 왜.

# 진짜 두뇌게임이 온다!

BY 김희성 ILLUSTRATION BY CHRIS PHILPOT

실 새 없는 마우스 클릭에 손가락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하던 게임을 마저 끝내야겠다는 당신에게 반가운 소식이야. 뇌를 잘만 이용하면 (아바타)가 결코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육창 생길 때까지 게임을 해봐야 레알 사이라고 할 수 있지!



**1.** 먼저 4mm의 마이크로칩을 당신의 새대귀리에 박아 넣어야 한다. 아무 두뇌 부서 넣으면 병신 된다. 당신이 몸 속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종하는 '일차 운동 피질'에 때려 박아라.

**2.** 뇌가 평소대로 팔다리로 보내는 신경 펄스를 두뇌 속 칩이 인식하게 된다.

**3.** 이 신경 자극이 당신 머리와 연결된 선을 통해 근처 컴퓨터로 전달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각 자극의 패턴을 인식하

여 신호를 변환한다. 예를 들어 "엄지를 옆으로 움직인다"는 명령 자극은 고유의 신호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추를 360° 회전한다"라는 명령어의 자극 신호와 구분된다.

**4.** 이제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면 된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받게 게임할 수 있게 됐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짓을 하는 동안 온몸이 마비된 사람처럼 기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다. 그걸 우리 주제에 아바타는 무슨 아바타 자기 전에 친정을 향해 눈만 깜빡거리면서 테러리스트 조각이나 맞추는 게 우리 스타일이지

## PUNCH ME!

### 익스트림 피어싱

대륙에서는 진짜 피 튀기는 대결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키지키지키지키초코초코초코~ 지키지키지키지키초코초코초코~"



입이 풀리고 뇌도 풀릴 지경. 할마, 내가 입풀린트 안 한듯잖아!



무심한 듯 시크하게, 차도남의 포스가 문어다.



우둥이 풀었나?

(다스트리트) 코스트라에 한 건?



포스까지 취하는 세심함이 돋보인다.

## ZZZ...

### 낮잠의 재발견

자, 오늘부터 직장 상사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도 당연하게 피자는 게! 우리도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 만유인력의 법칙

유인이 되려면 일단 낮잠부터 자라,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사방 1억 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낮잠 시간 도입이 시급했다!



### 벤젠 구조

목일 화자 케를리는 낮잠을 자다 자신의 꼬리를 물고 방금 들고 있는 책을 뺐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그 별은 꿈을 아득 낳는 꿈 아는 일관적인 해몽 풀이가 아니라, 벤젠의 구조는 카를이 등 무노의 육각형 아라는 가설을 세웠다! 사당님, 제 마음 아셨는지? 일러다 조는 건 회사를 향한 제 마음의 표시입니다!

### 나폴레옹의 전투 계획

하루에 3시간 잤는 나폴레옹도 낮잠은 고백하며 행했다! 그리고 낮잠을 자면서 전투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도 장군의 숙면은 업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에게도 낮잠 시간 을 주시면 영감 실 적을 배로 올리겠습니다!"



## SMART SEX

당신은 알고 싶지 않겠지만 그냥 우리 맘대로 알려주겠어!!

> 오케이큐피드(OK cupid)라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이이론** 유저가 다른 **기초 유저**보다 **직업 성공률**이 높다.

> 미국의 남성 **이이론** 유저는 평균 10명의 **섹스 파트너**가, 여성 유저는 평균 12~13명의 섹스가 있다고 답했다. 인드포인트드 뉴스속엔 착한 무엇이 가득하겠지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 예데리는 불행리제를 쓰며 친구도 하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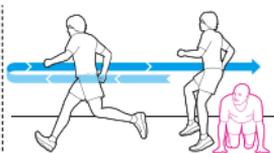
BY 이이이



# 아주 간단한 워밍업

당신의 워밍업은 그녀의 미용 체조보다 아름답다! ILLUSTRATIONS BY CHRIS PHILPOT

지난 11월호 MAXIM의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기사(p.36)를 보았니? 운동 전 스트레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직전 1시간히 서서 하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당신의 체력을 떨어뜨리고 부상 위험을 높인다. 프로 선수들은 관리하는 뉴욕 벨로시티 스포츠 피피오스 디렉터 데이비드 데이비치는 운동 직전의 무리한 스트레칭은 몸이 식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안 좋다고 말한다. 또한 체자리 스트레칭은 근육을 길게 늘리지만 할 뿐 실제 훈련과 시합 중 일어나는 격렬한 근육 수축에는 도움이 안 된다. 제대로 몸을 워밍업하고 운동 효과도 높여야만 활력 순환을 원활히 하고 동작 범위를 늘리는 데 신경 써야 한다. 스트레칭은 격한 운동 직전이 아니라 집에서 할 때 하는 거다. 그제, 데이비드, 일았으니까 이제 먹고 나가 어떻게 준비운동을 하지 보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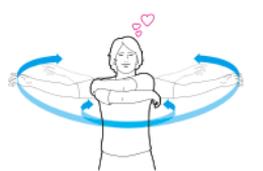
### 앞으로 뒤로

속도를 줄려 천천히 20m가량 전진 달리기를 한 뒤 뒷걸음쳐 체자리를 달린다. 워밍업을 시작할 때 마무리를 할 때 각각 2세트씩 시행한다.  
**FOCUS ON:** 비록 자세로, 전진 기술은 천천히, 팔을 흔들 때는, 머, 앞지게?



### 기워밍업이 소원

어깨 높이 정도로 발을 벌이고 서서 그림처럼 팔을 위아래로 흔든다. 머릿속으로 소녀사태를 떠올리며 덜 참피 하다. 너는 Shoot! Shoot! Shoot! 나는 훗! 훗!  
**FOCUS ON:** 어깨, 목, 척추를 뚫고 늘리면서 이완하는 느낌이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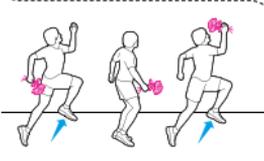
### 나뭇 가지와지

셀프 예우의 잘장다. 몸 앞으로 팔을 빠르게 교차하며 옆으로 스스로를 끌어안는다.  
**FOCUS ON:** 가슴과 어깨, 등 가운데 부위를 열어젖히는 느낌으로, 그동안 못 봤던 여자의 손길! 아쉽지 않도록 꼭꼭 안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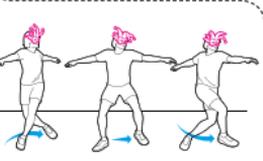
### 전진 배라잡기

술로 카운트 동배를 바닥에 납작 대고 누워 팔을 양옆으로 벌린다. 오른쪽다리를 왼팔 방향으로 넘겨 엉덩기쪽으로 바닥을 찍고 체자리를 들어온다. 완전히 들어온 뒤 움직이고 스트레칭한다. 목이 다치지 않게 생판(가)는 바닥 가까이 대고 방향은 발이 넘어가는 반대를 향하게 한다.  
**FOCUS ON:** 엉덩이와 날짜다리를 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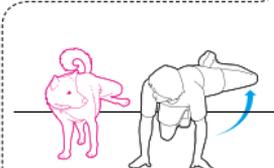
### 앞으로 뛰기

무릎 높이를 경중중중 뛰우르며 전진 양팔을 신나게 흔든다. 다리를 번갈아가며 20m 강박하게 뛰기(한 뒤 뛰기)하며 체자리를 들어온다. 소녀여, 오빠가 간대!  
**FOCUS ON:** 등 아래쪽을 이완하면서 전체적인 신체 밸런스에 주의하라. 헬스장 구석에서 당신을 비웃는 인간들과 잘대 시선을 마주치지 마라. 그림 지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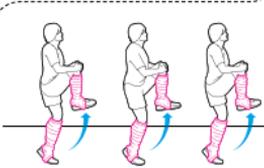
### 맞은 개장

양팔을 벌리고 양발은 그림처럼 앞뒤로 교차하며 옆으로 걷는다. 20m가량 양장장(가)다 다시 체자리를 들어온다. 이때 몸과 시선의 방향은 바꾸지 않는다. 1회 양쪽이 1세트. 워밍업으로 2세트를 시행하면 충분하다.  
**FOCUS ON:** 엉덩이 끝반을 좌우로 돌리며 가슴, 어깨, 등 무릎을 이완. 발이 꼬여 넘어지지 않게 조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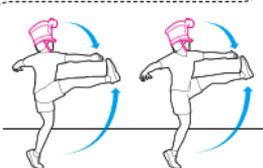
### 개처럼 엎드려

양손바닥과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다. 무릎은 "자"로 구부린(가)구 무릎 떨어지(가)는 자세를 일하는 거야! 이때 한쪽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10회 실시한다. 별로 어렵지 않지? 평소 술만 마시던 자주 하는 거야!  
**FOCUS ON:** 골반과 아래쪽 등을 이완하는 스트레칭이다. 영적 표시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 무릎 안고 돌리

한쪽 다리를 들고 무릎을 잡아 가슴까지 당기면서 한 걸음씩 움직이며 20m 정도 전진한다. 바닥에 닿는 발의 발꿈치를 살짝 들어서 발가락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포인트. 허리를 숙이지 않게 주의할 것.  
**FOCUS ON:** 척추를 이완하면서 등 아래쪽을 단련하는 동작이다. 스텝 하나하나의 자세와 밸런스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 목덜미 찢기

같은 쪽 팔과 다리를 앞으로 쪽 번으며 크게 걷는다. 이렇게 20m가량 스텝을 밟으며 행진한다. 이때 손끝이 엄지자리에 닿도록 최대한 뻗어야 한다. 팔과 무릎을 구부려서 내 눈을 속일 생각하지 마. 이 시기엔!  
**FOCUS ON:** 허벅지 근육과 등을 스트레칭하라. 나치 나 북한군 행진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글썽, 딱히 방법은 없다. 마인.



## 2010년 12월 독자 모델 임정란

표정, 말투, 몸짓 하나하나에서 애교가 묻어나는 귀요미 독자 모델은 카메라 셔터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양한 포즈를 선보였다. 심지어 차가운 도시 여자의 포스까지!

**남자를 유혹하는 내만의 스타일**  
밑당.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곳**  
긴 다리 라인. 남들은 요한 눈빛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

**취미**  
춤, 재즈댄스, 방송 댄스, 걸스 힙합 등 장르는 가리지 않는다. 미니출피에 가면 동영상도 있다.

**별명**  
동글이. 예전엔 불살이 통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살이 좀 빠져서 덜 듣는 편이다.

**좋아하는 음식**  
고기

**이런 남자라면 후대폰 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등직한 어깨에 넓디넓은 얼굴. 눈빛이 순수한 사람. 꽃미남은 사절!

**사진 잘 찍히는 노하우**  
카메라를 생경체로 생각하면서 카메라한테 말을 건다. "메리아~" 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과 교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하고 싶은 크리스마스 파티**  
팬션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기든 파티 하고 싶다. 아니면 초콜릿게 와인 파티라도!

**황당했던 한팅 경험**  
한팅날과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윗급 내역을 훑어 와서 보여줬다. 그리고 같이 크루즈 여행을 가려고 하더라. 그 뒤로 전화, 문자 다 끊었는데 한 달 정도 더 연락이 왔다. 작년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다!

**올해 가장 잘한 일**  
소량몰을 운영한 것.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댄스 동영상 하나 더 완성하기. 소녀시대 어떤가?

**나에게 MAXIMO란**  
신세계

**다음에 또 MAXIM과 함께하게 된다면**  
동화적인 느낌의 화보를 찍고 싶다.  
내 요한 눈빛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



발간색 류보람 원피스 에디터 소장  
발간색부터 핑크편

### PROFILE

생년월일 1984년 12월 1일  
키 164cm  
몸무게 45kg  
혈액형 O형  
종교 기독교  
취미 재즈댄스  
특기 그림 그리기, 디자인  
주량 맥주 500cc  
출몰 지역 총대, 건대  
www.cyworld.com/ljr282  
www.laniya.com

# 온몸 구석구석 청소하는 법 6

얼굴이 별로라면 몸이라도 청결하게 관리하자. 믿을 건 깨끗한 몸동아리뿐이다. BY 권희성 ILLUSTRATION BY 이현숙

## 1 뽀루지

연도만 하면 상처가 나고 뽀루지가 생긴다고? 그거 대수롭게 넘길 거 아니다. 입과 턱 주위에 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뽀루지는 생각 이상으로 당신의 이미지를 깎아먹는다. 몸을 뽀루지는 연도 후 당산의 턱에 남아 있는 짙은 얼 층 별로 단 단하지 않은 놀음이 구름구름하게 자라면서 피부 를 자극하기 때문에 생긴다.

**해결책** 에티다가 자주 들락거리는 카페에 '남친이 연도만 하면 뽀루지가 나서 미쳤음'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연도엔 비오름 이 쟁', '남친에게 폼시리즈를 사줘라' 같은 댓글이 달렸지만 당산되는 거라기 면 이야기같다. 뽀루지를 각성해줄 여친 따 위 없애 테니까. 연도 전 따뜻한 물에 찬수 건을 턱에 올려놓아 가침하게 자 란 수염을 부드럽게 만들어 라. 연도날이 될 때의 충 격을 막아 피부에 주는 자 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렵 다고 생각하지 말고 풀이나 겔을 바르는 것도 잊지 마라.

## 2 입냄새

당신의 입 안에는 600여 가지가 훨씬 넘는 박테리아가 우글우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박테리아를 박테리아 중 상당수가 입냄새를 유발하는 가스를 내놓는다. 이렇게 많은 균이 득시글거리고 있으니 당연히 입에서 아찔한 도넨 색은 내가 진통하는 것도 당연하다. 여가다 유나우 요거트, 마늘, 양 파를 먹으면 입냄새 치사율은 한 단계 업그레이 드 술·담배 흡배는 말할 것도 없겠지?

**해결책** 입냄새를 없애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치실질이다. 손이 도저히 닿지 않는 입 안 구석구석에서 색이도는 음식들을 제거해준다. 미국 치과협회에 따르면 이를 정기 적 치실질을 하는 것은 차에 들어 있는 불소 성분 이 이차사이에 더 잘 스며들게 하는 효과도 있 다고 하니 당산도 치실질에 동참하라.

## 4 비듬

비듬은 두피에서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활동이 과도하게 일어날 때 발생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두피가 과도한 열이나 추위에 반변하 게 노출때이다. 또 다른 원인은 두피에 발생한 기를 먹고 사는 피 티로소포를 오일과 라는 이듬도 과성장하면 균이 부스라기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해결책** 비듬이 그리 심하지 않다면 매일 머리를 씻는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머리를 매일 갈라도 비듬이 없어질 기미 가 없다면 비듬 치료 전용 약용 샴푸로 머리를 며칠만 갈아 라. 자그자그한 비듬이 금세 없어질 거라.

## 5 귀지

귀지는 귀구멍을 따라 밖으로 이동하면서 귀의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귀지가 과 도하게 많아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못 알아듣는 정도라면 곤란하 지만 그렇다고 귀지를 몽땅 파내는 건 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리고 여차 비듬이 되면 귀지는 질로 사라진다. 뽀루짐이라도 조금 남겨놓을 것.

**해결책** 과도한 귀지는 귀에 넣 는 음악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처방 전 약도 구입할 수 있는 이 음악은 귀 지를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의사를 찾아가 귀 를 세척해달라고 할 것. 억은 의사에게 진 료는 의사에게

## 6 입내

담 자체는 입내를 유발하지 않던 박테리아가 껌 방울을 먹고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 우리가 양과라 고 부르는 양귀혹은 치즈 색의 내를 만든다. 양 파, 마늘을 즐겨 먹으면 양내는 점점 더 심해진다.

**해결책** 전문가들은 데오드란트를 거드러이 에 한 번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어린 데오드란트가 좋은지 궁금하 다면 MAXM 8월호를 뒤져라). 만약 데오드란트 도 사용했다면 방에서 보복스로 냄새를 자극하 는 신질을 분해하는 일명 '무지사'를 맞으라.

## 3 무좀

다섯 손가락을 발가락에 하나씩 끼었다 동시에 해서 코에 대보자. 아사 세 번째와 네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끼 었던 손가락 냄새가 제일 지독할 거다. 그곳이 바로 곰팡이가 좋아하는 핫 스폿으로 무좀이 자주 발병하는 곳이다. 그러나 매일 하이힐에 탑승하는 그라도 당산 물레 발가락을 책상다리에 문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해결책** 무좀을 치료하는 항진균성 크림은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폭발다라고 만성이 될 것 하다면 그 전 에 무좀에 걸리는 것을 피해야겠지? 공중목욕탕이나 공용 발의실에서 맨발로 다다 무좀 환자들 발에서 떨어져 나온 살비들 을 밟으면 바로 무좀에 걸리니 번거롭지만 슬리퍼를 신아라. 곰팡이는 따뜻하고 촉촉한 곳을 좋아하니 집에서는 맨발로 다고, 맨소 신발은 자주 바꿔 신어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라.





# 암호 만들고 푸는 법

어차친구에게 특별한 편지를 주고 싶나? 사사건건 시비만 걸려대는 상사에게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쏟고 싶나? 암호를 써라. by 연비

## 1 카이사르 암호

● 암호문 심체색발매. 더사냥고 받디베

● 힌트 숫자 3

암호 유래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을 일인 암호다.

## 2 스키테일 암호

● 암호문 아래 이미지

● 힌트 휴지심

암호 유래 기원전 400년경 고대 그리스인이 사용한 최초의 암호 장치다.

## 3 마타 하리 암호

● 암호문



암호 유래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프랑스에서 활동한 최대의 미녀 스파이 마타 하리가 사용한 암호다.

## 4 아핀 암호

● 암호문 TNN TNN TNN TNN  
EBEV EBVE EBVE TNN TNN TNN  
TNN EB EB EB EB EB EB

● 힌트 숫자 3, 1

암호 유래 카이사르 암호는 직성도 풀이도 쉽다. 그래서 암호 직성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려 함수로 풀게 만든 것이 바로 아핀 암호다.

누다르복는구만은 거나알귀내었의참나어왔슴.에만스늘누르나 1  
 나누계베나가그누리라면서 바다갈을플드다나 돈 제타김은 나가는 1  
 가나소부동글런나고그외속샛딱아주느러가는을장김음능글락을 3  
 교래리터에들꼭의있래관작도파달없졌나알누설거을을 나갈을기복 4  
 그를중화어정가검?안엘리해어였다.가그나어검팻질가러하시 단래질 5  
 아락들과같다우느다.돈가권.다.서술봉의스나.없것을구막 각 추요것했 6  
 안덴알을린리나그우구너나즈을긔지다그다다.머기결.볼.즐나다어 7  
 것머리구구들근의벼 방이눈을저한아랑러누일었.취다.다.플도저누다하 8  
 내물누판내안 권망상누뵈다가속을 다나는다.해누.볼.어모습나칠지유력 9

## 4 아핀 암호

장담 GEE GEE GEE GEE GEE BABY BABY GEE GEE GEE GEE BE BE BE BE BE BE  
 풀이  $ax+b$ 라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 여기서 a와 b는 알파벳의 총 개수인 26의 서로소, 즉 1 외의 공약수가 없는 자연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힌트문 제1행과 3행은 각각 a, b가 될 자격이 있다. 즉 이 암호의 함수는  $6x+3a+1$ 이다.

이제 함수 계산을 개선하여 해당된 숫자에 위치한 알파벳을 다시 재배치한다. 우측의 표를 보라. 참고로 함수 값이 26보다 커지면 함수 값을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x가 9일 때, 함수 값은 26이다. 26보다 큰 값을 26으로 나누면 2가 남는다. 나머지 2가 함수 값이 되는 것이다. 저 이제 술술 이 기사를 쓴 에디터의 꽃방 망이를 날리고 싶어지지? 이만5~

	A	B	C	D	E	F	G	H	I	J	K	L
x	0	1	2	3	4	5	6	7	8	9	10	11
3x+1	1	2	7	10	15	18	23	26	2	5	8	11

	N	O	P	Q	R	S	T	U	V	W	X	Y	Z
x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3x+1	14	17	20	23	2	5	8	11	14	17	20	23	26
원문	O	R	U	X	A	D	G	J	M	P	S	V	

## 풀이

### 1 카이사르 암호

장담 문이바려다. 게이한테 뜯겨라.  
 풀이 힌트 숫자 3은 원래 문장의 자음과 모음을 각각 세 자리씩 뒤로 옮긴다는 의미다. 그래서 암호문의 모음과 자음을 그 반대로 세 자리씩 앞당기면 해답이 나온다. 아래 암호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자음 치는 굵게(대문자를 기본으로 하여 배웠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ㄷ	ㅅ	ㅁ	ㄱ	ㄴ	ㄷ	ㄹ	ㅂ

ㅅ	ㅇ	ㅁ	ㄱ	ㄴ	ㄷ	ㄹ	ㅂ
ㅁ	ㅂ	ㅅ	ㅇ	ㅁ	ㄱ	ㄴ	ㄷ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ㄷ	ㅅ	ㅁ	ㄱ	ㄴ	ㄷ	ㄹ	ㅂ

ㅅ	ㅇ	ㅁ	ㄱ	ㄴ	ㄷ	ㄹ	ㅂ
ㅁ	ㅂ	ㅅ	ㅇ	ㅁ	ㄱ	ㄴ	ㄷ

### 2 스키테일 암호

장담 장담은 공개하지 않겠다. 스스로 풀이보도록. 고생한 당신을 위해 예디터가 활용한 글 한 편 창작했다.



### 3 마타 하리 암호

장담 YOU ARE THE ONLY PERSON THAT I LOVE  
 풀이 마타 하리는 음표를 알파벳에 대응한 암호표를 사용했다. 사실 암호 역보는 마타하리 박사기 달라서 오히려 더 수상에 보이며 의식 반기 좋은 암호였다. 바보의 암호의 알고리즘은, 설명하기 힘들. 하버드 그릴 참고로 아래에 간단(?) 암호표를 만들었다. 각 음표에 대응하는 알파벳을 찾아 나열하자. 피아노를 칠 줄 알면 어차친구에게 줄 명문 리브레투를 암호 역보로 만들어 연주해라! 난생 처음 듣는 기묘한 음악이 연주될 때가. 몇이 전에 토끼자.



# LOVE

## 결정적 순간, 결정적 사인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들뜨고 설렌다. 그녀의 마음도 그렇다. 당신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리고 그런 그녀가 보내오는 사인 놓치지 말자.

BY 장민혜 PHOTOGRAPHS BY RONY SHRAM

▶ 〈인어공주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의 저자 피오나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여성에게 섹스는 충동이 아니라 결심이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목석같은 그녀가 이 중대한 결심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단호한 그녀를 침대로 끌어들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라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리고 MAXM이라는 좋은 조연자도 여기 있다. 그녀가 섹스를 결심하는 결정적 순간, 그리고 그 결심을 알리는 결정적 사인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주겠다.



## • SHE SAYS...

크리스마스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날 흥동적으로 만들었다. 기어는 온통 흰색이고, 캐럴이 사방에서 들리다니 신났다. 결정적 순간 요인. 약초에 의해 후타리 모델로 직행했다. K22, 비엔나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마침 크리스마스였다. J22, 다자이-1  
크리스마스니까 왜? L23, 에디터)

크리스마스 자체가 그녀들이 색스를 결심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녀들도 크리스마스 색스를 기대하고 기다린다. 스킨십을 시도할 때마다 화들짝 놀라던 그녀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음이 좀 뜨고 살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남자친구와의 첫 색스 날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기도 한다. 어찌하여 처음은 특별하다. 첫 색스가 크리스마스 날, 그것도 특별하게 이루어진다면? 쉽게 가질까 어려울까.

그는 당연히 허릿몸을 같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보하듯 모델로 가지고 말했다. 예전도 안 한 주제에 왜 생생하게 저장 준비가했다. J27, 은행원)

그렇다고 너무 당연하듯 그녀를 끌고 가면 마라. 아무런 크리스마스라도 색스를 망설이는 여자도 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는 며칠째 여행 타령이었다. 대충 둘러서 거절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까 그런데 그는 포기할 줄 몰랐다. 여행 가려고 계속 징장였다. 귀찮아서 여행 가겠다. P26, 카지노딜러)  
데이트하는데 그날부터 계속 무개를 잡는 게 이상했다. 술 마시면서 몇날 사랑 이따기를 하다가 같이 있어주지 고되고 평평 울기에 토닥거렸다. 그러자 그가 축축한 눈빛으로 오늘밤 같이 있고 싶다고 했다. 우는 애 버리고 갈 수 없어서 같이 있어야했다. H23, 승무원)

크리스마스라도 색스는 안 한다는 목적설은 그녀가 색스를 결심하는 결정적 순간은 언제일까? 여자는 남자의 애교와 눈물에 약하다. 남자가 귀엽게 조른다면, 여자는 피식 하고 웃을 수밖에 없다. 당산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빨이 있는지? 열심히 이빨을 까라. 그녀가 빠져나올 수 없게 다양한 섹스 사형을 제시하라. 단 그녀가 당신의 보형에 술술 퍼즐을 기미가 보이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울려라. 여자는 남자의 눈물에 약하다. 눈물이 못 지나지 않으면 나이에겐 너밖에 없다고 고지조하고 비굴하게 그녀를 구원하라. 구제하라? 크리스마스 날 밤, 혼자 집에서 방바닥 긁는 것보다도 구제하라.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직접 짠 모도리를 했다. 그냥 우리는 민장성형을 쌓았다. K22, 지영님)  
그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방을 하나 사줬다. 평소 가지고 싶었던 가방이다. 그래서, P23, 회사원)

아쌀 수 있다. 이빨도 눈물도 안 통한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하라. 여자는 자신이 사랑받았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연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정성을 눈으로 확인해야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확실하게 느낀다.

비싼 선물이 아니라도 좋더라도 비싼 게 효과적이긴 하다. 어찌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정성이 깃들거나, 아니면 비싼 선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벤트를 해줬다. 그거 왜 잊었나. 초로 하트 만드는 거. 상상하게. 정성은 기록했지만 좀 됐다. P23, 모델)

하지만 이런 뻔한 이벤트는 지장하도록 아까도 언급했지만 선물의 질과 감동은 늘 비례하지 않는다. 평소 그녀가 가지고 싶어 하던 물건을 잘 떠올려보라. 그것도 아니면 인터넷에서 뜨겁게하는 법을 배우든가.

사하는 그의 말을 어찌 가질까? 그가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고, 난 순순히 그의 말에 따랐다. L23, 대학원생)

결론은 이거다. 남자친구의 사명이 느껴질 때가 바로 그녀들이 색스를 결심하는 결정적 순간이다. 너무 습치 않나. 당신의 사명에 조금의 색스만 기미한다면 그녀가 다음과 같은 사인을 보내올 거다.

## • SIGN

기대와 달리 남자친구는 날 고이 집 앞까지 바래다주려고 했다. 내게 술 한잔 타라고 했다. 한잔이면 한잔만 데리고 와타다 술만 취했다. K24, 카피라이터)  
대개 앞에서 열쇠를 꺼지지 않고 괜히 남자친구를 바라봤다. 그냥 뽀빠만 꼭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열쇠를 잃어버린 척했다. L23, 안화가)  
사인. 그런 거 잘 못한다. 알아서 데리고 가주길 바랄까. J23, 다자이-1)

셀마 그녀가 누가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사인을 보낼 거라 생각하지 않겠어? 여자는 소심해서 은근하고 은밀한 사인을 보낸다. 도통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것. 그녀 입에서 잠에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약으로 들여보내려 하지 마라. 집에 가야 하면 그녀가 먼저 말할 거다. 단 보통 저런 사인을 보내는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만가지를 준비하는 거라 기대하게 마친다. 그녀의 높은 코를 꺼내줄까 꺼버리고 복작이는 크리스마스, 모델 빈 방을 찾아다니는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미리 준비해둘 것.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늘 1시간 되면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남침을 보냈는데 그날만은 통금 시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똑똑한 남성이 알아서 날 모델로 데리고 가더라. L22, 텔레마케터)  
남자친구에게 속옷을 선물했다. 내 것도 커를로 같이 있다고 귀뻐해줬다. K24, 상담원)  
얼어 죽을망정 반드시 아하게 입고 나간다. 가슴이 부각되도록. K23, 학생)

이런 사인은 뚫한 당신도 행적 뭘 수 있을 거다. 그녀가 평소와 다른 모습과 행동을 보인다? 그렇다. 그게 바로 그녀의 사인이다. 그녀의 옷차림, 행동을 눈여겨보길 바란다. 단 그녀가 원래 짙은 차미를 즐



니무 속개 입고 나왔어?

거 입을 수 있으니 평소와의 차이점이 주목할 것.

헤어까지 전 카스를 할 때 그에게 좀 더 달려달라. 아레도라고만 밀착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지 그는 내 손을 끌고 뱃속을 집었다. J22, 내아티티 모델)  
그가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 P20, 모델)

안다. 가슴까지 다 만지게 했었으면서. 아. 더 이상은 안 돼 리어 당신의 맥을 허두하게 끌어내는 여자들이 많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밤을 아야하고 있다. 그녀의 스킨십 강도가 평소보다 격하되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조용히 은밀한 장소로 그녀를 데리고 가는 일뿐이다.

모델 근처 술집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다. K27, 교사)

이미 약속 장소를 모델 근처로 잡는 임팩트를 보이게 한다. 그녀들은 당신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팬션 호텔 등 예쁜 숙박 업소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L22, 관광계좌)

그냥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K24, 회사원)

뚫함을 넘어 명랑까지 한 당신을 이미 간파한 그녀들은 이렇게 직접 친철히 사인을 보내오기도 한다. 잘 알고 나니 그리 어렵지 않지? 부디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해서 화려한 크리스마스 밤을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글썽

책 (여자가 색스를 하는 23가지 이유)에 나온, 당신이 몰랐던 여자들이 색스를 하는 이유

- 신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 두통을 없애고
-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
- 다이어트를 위해
- 언제 다시 할지 모르니까
- 반식하기 위해





비단이 침자네

## 정신과 건강 불안장애 → 질문과 답변

11월호 정신과 건강 칼럼의 주제는 '불안장애'였다. 칼럼 내용과 칼럼에 첨부한 테스트의 결과를 보고 많은 독자가 놀란 가슴 부여잡고 질문을 보내왔다. 자자, 침착하자. 정신과 전문의 이종환 원장이 친절하게 답변해준다. 뚝!

BY 김민세 WORD BY 정신과 전문의 이종환 원장(우문마음 신경정신과)

### 고추가 시들시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입니다. 불안 테스트 결과를 측정해보니 34점이 나왔습니다. 프로젝트가 많아 참에 부처긴 했지만 이렇게 극심한 불안 상태가 나올 줄 몰랐네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피곤하면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질 때 발기도 잘 안 되고, 허던 중에 다시 작아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DOCTOR'S NOTE

발기 문제로 여자친구 분이 많이 곤란하셨겠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감 증가로 발생한 이차적인 비뇨기과 문제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프로젝트가 많다고 한 자리에만 계속 앉아 일을 하다 보면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전립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하는 도중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물론 여자친구의 만족도도 상승할 것입니다.

### 불νοι

만날 하고 싶습니다.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것도 병인가요?

#### DOCTOR'S NOTE

메일 하고 싶다고 메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보내주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심각한 병은 아닌 듯합니다. 체력 보충 잘 하시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건전한 성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 공황장애인가요?

갑작스럽게 심장이 뛰고 이상한 느낌이 든 적이 많습니다. 담배와 술을 끊고 운동을 시작했지만 나아진 건 없습니다. 어지럽고 멍한 느낌이 계속 들고 몸무게는 39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우울증 약도 먹어보았지만 계속 잠만 와서 이를 정도 먹고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 DOCTOR'S NOTE

\***공황발작**을 동반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평상시 모습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와 공황발작의 정의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해보시고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공황발작**은 예상치 못한 극도의 급작스러운 불안발작을 말합니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제정한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ition)에 따르면, 다음 13가지 증상 중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공황발작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1.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
2. 어지럽고 한기증이나 나거나 또 쓰러질 것 같은 느낌
3. 심장이 두근거리며 공황거리거나 곧 떨어 버릴 것 같은 느낌
4. 손발이나 몸이 떨리는 느낌
5. 땀이 많이 남
6. 흉이 딱딱 질식할 것 같은 느낌
7. 구이 메스꺼우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
8. 먼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 혹은 내 자신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
9.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
10. 몸이 회전하거나 오한이 나는 느낌
11.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
12. 곧 죽을 것 같은 공포감
13. 아래바라거나 자책감을 유발할 것 같은 느낌

### 질투남

여친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불안해 미칠 것 같습니다. 여친친구와 떨어져 있거나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여친친구가 전화라도 받지 않는 날이면... 애써 타는 안 내고 있는데 언젠가 이런 제 마음이 들끓 날까 봐 겁이 납니다.

### DOCTOR'S NOTE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야기 하는 의처질투남형 양상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대상이 바뀌어도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계속된다면 신경정신과 상담이 필수입니다. 질투임 세력소의 어의 고건 (혜스스의 무어인 오셀프)의 주인공 오셀프처럼 무고한 부인을 의심하여 비극을 초래하는 주인공이 되기 싫다면 말입니다.

### 갈

색깔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합니다. 옷을 정리할 때에도 색깔별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노란색도 다 똑같은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한 노란색부터 먼저 뒤야 할지, 밝은빛이 되는 노란색부터 먼저 뒤야 할지 오래도록 고민합니다. 갈거리에 나기면 더

욱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서점에 진열된 책 옷가게, 심지어 사람들이 입은 옷까지도 제 머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색깔별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병인가요?

### DOCTOR'S NOTE

독자님이 병이 아니라면 색깔별로 물건을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색안경이나 색안경이지요. 독자님은 강박증에서 보이는 강박적 사고와 행동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 정도, 완벽한, 균형과 조화에 대한 강박적 사고와 행동 양상이 보인다고. 특히 독자님은 색깔별 정리라는 병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계십니다.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네요.

### 정말이나?

손톱을 깨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톱을 깨고도 꼭 손에 묻은 침 냄새를 맡아야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침 냄새를 맡는 횟수가 늘어 지금은 일정한 시간 내에 냄새를 맡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루에 100번 정도는 맡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 DOCTOR'S NOTE

소아-청소년 시기의 성장 과정에서 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정서적 안정을 찾지 못했을 경우 독자님처럼 손톱을 깨거나 손톱 주위의 핏을 민한 살점들을 집으려게 뜰어 버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한 경우 발톱과 주위 부속물까지 말끔하게 정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노출하지 않고도 살아감까지 손톱 깎기용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어 독자님은 냄새에 집착하는 강박적 행동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필히 신경정신과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숫자 5

주변이 조용하면 머릿속에서 숫자들 세로 하나, 둘, 셋, 넷... 다 다른 사람이 말을 걸거나 다른 소리가 들리기 전, 숫자는 꼭 5의 배수로 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인데... 갈까요, 저 이상한가요?

### DOCTOR'S NOTE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독자님과 비슷



### MAXIM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음 달 4월의 주제는 7월분과 이다.

조근, 우윤, 조윤, 조은, 조민, 주지, 지영, 지훈을 보내요.

이메일 reader@maximkorea.net 우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DR. MAXIM 담당자 알



한 행위로 특정한 단어나 주를 종종 하곤 할까라는 행위, 혼자 지도를 올 줄라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강박증은 명백한 강박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강박 사고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일련 치료 받길 권해드립니다.

### 수줍남

여자 앞에서 말을 못해요. 머릿속이 어떻게 변하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친구들 시아에선유머 감각이 장난아닌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능력을 신분의 일만 발휘해도 여자를 사귀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 DOCTOR'S NOTE

특정 대상, 그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수줍음이 많으니 분입니다. 여성 앞에서 멋진 남성으로 보이고 싶은 과도한 열망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온전한 미소를 보내보시

오. 그러다 보면 말도 열리고 머릿속도 정리될 것입니다. 대인공포증으로 보거나 우리가 있으니 여성분을 자주 만나면서 본인의 수줍음을 줄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 외도이야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지 못해요. 같은 패케를 먹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깔롱떨다고 할까 봐 외도 못하겠고, 이따다 사회생활도 못할 것 같네요.

### DOCTOR'S NOTE

독자님과 같은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혼자서 밥을 드신지 아니면 여러 명의 수가 다 나간 빈천이나 패케를 먹어본 후 실제로 구토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십시오.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푸른마음 심정진소아**    **www.purinumma.com** 02-507-0770

**정신과 전문의 이종현 원장은?**

- 푸른마음 심정진소아와 원장
- 단국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 영등포병원 정신과 / 공평정신과리더 윤영
- 부부클리닉 후 원장
- (프롤로그 너무 길어서 다 못 올렸어요)

# Maxim Sp

이번 달도 야구 소식이 풍성하더라!



**박기혁 음주 운전**  
엄친 데 담긴 격리더라!

사망이 희망을 잃으면 이렇게 망가진다. 작년까지만 해도 롯데 자이언츠의 미남 유격수로 잘나갔더니깐 올 시즌 부상으로 골골대니 실상가상으로 야사한게임 대표팀에도 떨어졌다. 군대로 끌려가는 게그래 봐지 공익 근무 요원아잖아 너무 억울했는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억울한 마음 이해는 하지만 음주 운전에 적발된 것만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3번째다. 군대에서 네 녀석을 거절한 수많은 부사관에게X잡고 반생해라. 배놈이 술 처먹고 혼자 죽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다 남의 귀 귀환 사명을 풀수신처럼 잡지 말라 말이다!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월드시리즈 챔피언 등극!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방패가 텍사스 레인저스의 창을 들어막았다. 뉴욕 자이언츠 시절 1964년 우승 이후 56년 만의 일이다. 샌프란시스코가 자랑하는 영건은 월드시리즈라고 주눅들지 않았다. 에이스 팀 린스컴은 포스트 시즌 내내 각 팀의 에이스를 상대하면서 팀의 4승을 책임졌고, 2선발 맷 케인은 아예 실점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월드시리즈 성적은 2승 무패. 포스트 시즌까지 합치면 2승 3무패 무자책점을 기록했다. 지저스 좌완 매디슨 범가나는 역대 월드시리즈 80년 무실점 최연소 기록

(2세 9개월)을 세웠고, 팀의 안방마님 벤지 몰리나를 텍사스 레인저스로 밀어낸 루키 포수 버스터 포지와 호흡을 맞추며 1947년 뉴욕 양키스의 스펀세이와 요기 베라 배터리 이후 63년 만에 등장한 루키 배터리로 기록됐다. 2008년 해성같이 등장해 올 시즌 이후 탈리라고 했던 샌프란시스코의 뒷문을 열어막은 브라이언 윌슨은 정규 시즌 48세이브를 날려 먹은 게 야구란 걸 실력으로 증명했다. 포스트 시즌 내내 1승 6세이브, 0점대 방어율로 상대 팀을 질식사켜버렸다.



**김태균의 첫 경험**  
이번 기쁜 처음이다!

자비못대 미란스의 강규준이 포터 이후 첫 우승을 경험했다. 그는 일본 시리즈 7차전까지 2타수 10안타 타율 0.345를 기록하며 팀 우승에 일등과 같은 존재로 올라탔다. 10개의 안타 중 7개가 있는 건 야심지만 일본 진출 첫째 우승을 거머쥐면서 시즌 중 우승을 탈락해왔다가 정이 중요하다. 2009년 강규준의 성적은 시즌 2승 1안타 9안타 타율 0.266로 이렇듯을 생각하면 야구인이 남지만 일본 무대 적응기라 보더라도 내년 성적만은 아니다. 그나마 한화 이글스 시절 가을 잔치를 잡어서 시정했음 강규준이 일본 진출 첫째 우승을 거머쥐다니 현술법을 먹던 류현진에게 해외 진출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됐을지 모를 일이다.

### 데릭 지터 시즌 참 잘 가네!

올 시즌을 끝으로 데릭 지터(36)와 뉴욕 양키스와의 10년 계약이 종료됐다. 2009년 0.334의 고타율을 기록하며 MVP 시즌을 기록할 때만 해도 데릭 지터의 재계약 전망은 밝음이었다. 하지만 계약 마지막 해인 2010년 통산 타율 0.3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타율 0.270을 기록하며 제대로 죽을 썼다. 문제는 뉴욕 양키스의 3루수 알렉스 로드리게스(36)의 총액 3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이 끝나려면 적어도 5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다. 게다가 뉴욕 양키스는 내야의 왼쪽을 노장으로만 꾸리고 싶지는 않은

이다. 실제로 데릭 지터의 수비 능력은 과대평가되고 있고 해마다 수비 범위도 좁아지고 있다. 물론 구단이 '양키스의 심장' 데릭 지터에게 야박하게 대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그가 포지션을 고집한 채 고액 연봉을 요구한다면 스트라이프 유니폼이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Sports Times

BY 김상현 IMAGES Gally Images

프리미어리그 소식에 궁금한 사람은 다음 페이지를 펼칠 것



우승을 위해 꼭 필요한 크레이지 모드 선수도 빠지지 않았다. 시즌 내내 데타로만 슬렁슬렁 뛰던 에드워드 렌테리아는 월드시리즈가 시작되자 마치 자신이 2002년의 배리 본즈라도 된 양 2출전 (타율 0.42)의 고타율을 기록하며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1997년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연장 11회 끝내기 안타를 때려 시리즈 영웅이 된 렌테리아는 2010년 월드시리즈에서도 MVP를 수상

하며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어김없이 드러냈다. 시즌과는 연이 없던 브루스 보치 감독 역시 영건의 활약에 적절한 투수 운용이 더해져 16년 만에 우승의 달콤함을 맛봤다(2002년 불발망미를 휘두른 약쟁이 브즈만 불발하게 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즌 월드시리즈 평균 시침율은 '사람들 8.4%, 짐승들 14%'로 2008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탬파베이 레이스가 격돌한 월드시리즈 역대 최저 시청률과 동률을 이뤘다.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처럼 전국구 인기 팀이 빠진 시리즈의 한계다. 물론 연구자인 샌프란시스코와 텍사스에서는 시청률 35.1%(짐승율 6%)와, 텍사스의 달라스 역시 30.9%(짐승율 48%)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 때 왜 저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을 벗기에 역부족이었지만 말이다.



## 이승엽 이제 삼은 보기도 싫다!

올 시즌을 끝으로 소속 팀 요미우리 지안츠가 이승엽을 방출했다. 군버리 못지않은 삼침을 거듭하며 일본 프로야구 최강의 악튜로 지목된 그가 영예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영고 현상이 지속되는 요즘의 추세라면 그를 필요로 하는 일본 팀에 늘어난 게 돈 벌기는 좋다. 대신 지금 연봉(연평균 7억 5천만 엔)의 10분의 1 정도를 받게되면 말이다. 하지만 그의 흥런 신기록을 응원했던 팬이라면 그가 미국에서 마지막 볼꽃을 태우는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왕성한 타자가 메이저리그에 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유일한 기회고, 그 선수는 바로 이승엽이기 때문이다.

2010년 성적  
56경기 출전 5개, 1타점 타율 0.363

## 이와 쿠마 야구 실력은 정말 쿠마(곰)!

제2회 WBC에서 우리나라 야구 팬에게 약물을 선물한 라쿠엔 골드어플스의 에이스 이와 쿠마 히사시(29)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 올 시즌 역시 2000이닝을 돌파하면서도 150km/h에 육도는 강속구를 던져 10년 전과 다를 없는 파워 피칭을 자랑했다. 그를 선택한 팀은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와 16일리언(약 1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질러 그를 포스트(선수 입찰)제도 최고 금액을 부른 구단이 선수를 사간다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미 투수 자원에서 넘쳐나는 오글랜드가 이와 쿠마를 선택한 건 투수 자원을 트레이드 자원으로 적극 활용을 빈약한 타선을 메우겠다는 속셈이다. 그가 어느 팀에서 뛰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오글랜드가 트레이드할 수도 있으므로). 야구 팬이라면 메이저리그에서 그가 어떤 실적을 거둘지 지켜보는 것이므로도 추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2010년 성적  
28경기 10승 9패, 2010년, 4루수, 153 삼진, 36 볼넷



파쿠아오 유상권

## 위대한 맥앤 파쿠아오는 이미 전설이다.

맥앤 파쿠아오(34)가 사상 첫 챔피언직에 성공했다. 복승전과 4패 피팅을 예로 들자면 주권일 일부가 위 계급의 신해(미모로카제)를 모조리 막살시킨 셈이다. 1988년 WEC 플러이드(50.8kg급) 챔피언이 된 후 상위 계급 정복을 시작하다니 올해 결국 슈퍼플러이드(69.9kg급) 챔피언에 오르며 8계급을 정복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대기록의 재물이 된 마키타와외의 경기에서 백연은 1000년의 주먹을 날렸고 이중 44명이 적중(44%)했으니 마키타와외 버터넬 제2회! 없었다. 이제 맥앤 파쿠아오의 남은 실력은 오직 메이저리그 주니어33세다. 메이저와외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그는 이미 복싱계의 레전드지만 말이다.



##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구 차유했!** 이제 우리가 처한 축병도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 그와 함께라면

**리듬게임을 즐겼!** 야구팬과 (타자)에서 여주인공 마미에게 하라카된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었다.

**바둑 이시아!** 동태 기만에 그려졌던 마녀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파자넬!

**배구 현승이!** 그녀가 야구리 예뻐도 루저인 당신에게 는 넘사레의 카를 부여한 셈이다.

**수영 장태!** 바비얼을 예 이런 친구가 빠질(의) 대 명사 김강직은 좋아하는 지 알 수가 없다! 장영!

\*수영 배태! 색이도 좀재 펠프스 아닌 중국 핑에게 발릴 지 없다. 아시안게임을 통해 몇 감듯이 출전해 200m 자유형 결승에서 기쁘게 금메달 사상을 완료했으니 할 일이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대생 보이보다 알맹이다. 그것 광이! 그것 물장부! 그것 그들의 알 꿀을 보는 일! 훨씬 중요하게 이라고 말하는 놈 누구야? 이 고자!

# [Premier League] REVIEW

당신을 위해 (사커라인) 필진 이남훈이 지난달의 프리미어리그를 요약·정리했다. 눈 크게 뜨고 읽어보도록! 그깟 공놀이 보는 재미가 배로 늘어야 할 테니까.

WORDS BY 이남훈 IMAGES Getty Images

## ETC #1

### 우리가 있다구!

이 팀들이라고 우승을 노리지 말란 법은 없다.

#### 아스널

벵거 그리고 파브레가스



올 시즌 상위권에 랭크한 아스널은 언제나 프리미어리그의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팀. 명장 벵거 감독

이 추구하는 패스 축구는 여전히 아름답고, 변함없이 날카롭다. 사파, 스몰라시 등 여름 이적 시장에서 집어온 선수 역시 어느 정도 밑거름이 되고 있다. 문제는 취약한 골키퍼이다. 알파루아, 파비안 스키 골키퍼는 사이종계몽이 변질사 실수하며 고비 때마다 승점을 내주면서 구멍이란 별명을 득템했다. 스타 미드필더 파브레가스의 출장 여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골부족난까지 경계로 악영향을 지목된다.

#### 맨체스터 시티

오일 머니는 위대하다.

좋아!



중동 왕자의 오일 머니를 등에 업은 맨체스터 시티도 언제나 목표는 우승이라고 외치지만 진짜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4위다. 많은 선수를 한꺼번에 값싸게 사온 탓에 조적재 문제가 맨체스터 시티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벤지성의 걸출미치 주장인 테베스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7분짜리서 리더십이 부족하다. 여기에 공격에 신중한 만체니 감독의 전술 운용은 팬과 비평가에게는 늘 좋은 안목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맨체스터 시티를 가릴 수밖에는 이유는 오지 한 가지다. 10억 이상의 지원을 약속한 중동 왕자님의 화끈한 구단 지원. 그것 하나면 게임 끝!



## Chelsea 첼시 2연패는 어려워!

2010/11 시즌이 개막되기 전 많은 팬과 전문가가 지난 시즌 우승팀 첼시의 독주를 예상했다. 하지만 두강을 열여 보니 첼시의 리그 2연패에는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다. 극복하기 어려운 악재 때문이다.

### 시들해진 투톱

지난 시즌 함께 40골을 몰아친 드록바-아벨라 투톱의 위력이 예전만 못하다. 11라운드까진 진행된 프리미어리그에서 9골을 합작한 두 선수의 기록 자체는 양호하다. 하지만 고비 때마다 터지는 카운터펀치가 매섭지 않고, 작년과 달리 끈끈한 수비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특히 드록바는 10월 이후 득점력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남궁 월드컵 직전 당한 부상이 완쾌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말라리아에 감염되면서 컨디션이 바닥을 쳤다. 아벨라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드록바가 옆에 없으면 그는 안고 없는 전뺨에 불과하다.

### 철인 램퍼드의 부상

사령관 램퍼드의 부상 공백도 첼시를 힘들게 한다. 램퍼드는 9월 11일 스트크 카티던 이후 두 달 넘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전 부상이 거의 없는 선수로 늘 첼시의 중원을 지켜왔다. 지난 시즌까지 4시즌 연속 리그 10골-10어시스트를 달성했다. 그의 꾸준함을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그런 그가 자리를 비우자 첼시는 중원 정약력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램퍼드의 자리를 메워주려다 믿었던 브라질 대표 하미레스도 팀에 적응하는 데 실패했다. 차라리 전 독일 대표 발라크와 재계약했으면 첼시의 중원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 결론

프리미어리그의 철혈성으로 굳건하던 첼시도 드록바와 램퍼드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팀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계속된다면 첼시의 경쟁 상태는 또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될 것이다.

# Manchester United | 맨유

## 부자는 망해도 3년은(응!?)

맨유는 시즌 개막부터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왔다. 노장 미드필더 스콜스, 깁스는 지난 시즌 마지막 불꽃을 활활 태웠다. 에이스 루니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무득점으로 헤매더니 섹스 스캔들까지 터지며 멘탈마저 무너졌다. 게다가 루니는 맨유에 실망해 팀을 떠나겠다는 기자 회견으로 팀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까지 했다. 그 래 놓고선 맨유와 재계약 도장을 찍는 건 뉘 내 전 세계를 상대로 총데레임을 증명했던 단 건만.

### 퍼거슨 경, 그대가 있기에!

이순신 장군에게 10척의 배가 있었듯 맨유에는 퍼거슨 감독이 있었다. 그는 루니의 공백을 이적생 치처리토 부활에 성공한 베 백작(베르바투파우로) 매물로 데 기에 깁스, 스콜스, 발렌시아의 공백으로 얹어진 미드필더진에 코리아 캡틴 박지성을 수혈이라고 쓰고, 맹방이라고 읽는다며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했다.



### 여전한 불안 요소

그러나 맨유의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주장 퍼다난드의 부상 회복이 더더 수비 불안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퍼거슨 감독은 시즌 전 비너치에게 주장 완장을 넘겨 주며 그에게 수비 안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안겼다. 하지만 키퍼만 데 사르의 노쇠화와 후보 선수의 부진이 겹쳐면서 쉽게 지지 않았던 그렇다고 쉽게 이기지도 못하는 도깨비 같은 팀 컬러가 되고 말았다. 이 팀이 정말 불과 몇 년 전에 양인 허실의 대표 주자 호 날다가 날뛴던 강호 맨유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ETC #2

### 우리도 있다귀!

이 팀들이라고 우승을 노리지 말란 법은 없다.

박수채 #



### 도트넘

투지한 보람이 있다.

도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의 훌륭한 역할 모델이다. 그동안 꾸준의 팀에 투자했고, 작년부터 버프로 결실을 보았다.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해 유럽 챔피언 인터대륙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강팀을 펼칠 만큼의 경기력을 갖췄다. 하지만 수비수의 실수가 잦고, 약점을 상대로 승점을 확실히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은 도트넘을 우승 후보로 꼽는 걸 주저하게 한다.

전체 일정의 3분의1 정도를 소화한 프리미어리그는 다른 유럽 리그와 달리 특별한 휴식 기간이 없다. 오히려 복싱 데이(12월 26일, 영국의 공휴일) 기간에는 짧은 간격으로 많은 경기를 치르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은 축구팬들(당신처럼) 약속이 없는 축구를 맞이하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물이다.

11월의  
프리미어리그  
달림 요약

첼시 | 위키  
맨유 | 도전  
그리고,

이남훈...

마이데이터, 소프트 20 기사를 거쳐 현 소프트 정보 사이트 브이도토 (www.vtdo.co.kr) 애널리스트로 활약 중이다.!

[Premier League] REVIEW

#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세상은 언제나 얼굴

초호화 뮤직비디오라서... 존박이었으면 이렇게 죽었겠어? BY 이영미



MV 언제나

배우: 이시영, 허각, 도예성

장르: 호러 스릴러

주제: 풍요로움 허각

BGM: 허각 '언제나'



아잉아잉



아인화!

문제의 사고 장면



... 초호화 뮤직비디오! 이미 세간의 화제로 부상 중 한달이 더 소요화 음악 및 뮤직비디오 제작

**슈**스케의 주인공 허각은 얼마 전 타이틀곡 '언제나'를 발표하고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하여 기성 가수들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런 그가 기세를 몰아 인기 여배우 이시영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초호화 음반 및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준던 스스케2 제작진의 자신만한만한 공력에 결맞은 엄청난 초대작, 아니 웃음 민방 초대작 뮤직비디오가 지난 11월 10일 공개되었다. 혹자는 이 뮤비를 보고 "미클 잭슨의 뮤직비디오 <스릴러> 이후 이런 소름과 반전은 처음이다"고 평했다. 내용은 이러하다. 일단 이시영이 나온다. 그녀는 연예인. 우리의 허각은 이시영남에게 달려가 웃음을 달아주거나 쇼퍼백을 달아주는 머슴 매니저다. 뮤직비디오 시작 30초 만에 이시영이 허각의 자갈을 우연히 열어보는데 알고 보니 그는 '하필' '장기'중 '희망'자'다. 하필, 하어른 이시영에겐 남친이 있다. 하여말걸고 쟁따 큰 게 곧 죽을 것 같이 생겼다. 이시영은 몸이 이른 병신 남자친구 때문에 슬퍼하다가 갑자기 울면서 수면제를 입에 넣어 넣는다. 생수는 건져안 난다. 그녀는 연예인이다. 외인 정도는 이서주야 한대 허각은 쓰러진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고 나올 때까지 보살피며 그녀와 가까워진다. 자, 3분 55초쯤 이제 뮤직비디오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이 등장한다. 어느 날 밤 양손에 목직판 편이집 붓투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허각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원판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에 치인다. 자동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든다. 너무 빨라서 차는 정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데스티네이션>을 연상시키는 무자비한 사고 장면. 무성인한 '퍽' 소리. 그리고 갑자기 쓰러진 허각의 단상과 이시영이 주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과일과 음료가 바닥에 나뉘었다. 존박이 이 무인공이였다더라면 짜리뭇뭇 매너져 역할 을 맡길 리도 없고, 설사 그랬다 쳐도 차에 치이는 장면만큼은 뭔가 극적이고 서글픈 연출을 했겠지? 하지만 우리의 허각에게 슬로우모션따윈 없었고, 그 뒤 이야기 는 다들 예상했듯 운명의 여신이 불쌍한 허각의 심장을 깨어 이시영 병신 남친의 가슴에 박아주는 것으로 이어진다. 수습대 위에서 혼수상태의 허각이 흘린 한줄 기 눈물. 아, 이 발아머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으니 초호화 뮤직비디오를 찍어주겠다는 제작진의 약속과 존박급 흥훈환이 걸려있는 가수 허각의 존재감이 탄산시킨 '초특급 호러 반전 드라마', <언제나>는 현재 철민리에 곳곳에서 방영 중이다. 허각! 다음 번 뮤직비디오는 MAXM 영상팀이 더 싸게 제작해드릴게요. 전하주세요.



# 형들이 온다! <황해>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이 이정우와 김윤석을 재소환한다.



전작 (추격자)에서 뛰어난 미장센과 디테일 특히 피떡과 스릴 제조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감독 나홍진이 차기작 <황해>로 돌아온다. 되는 놈은 톱꾸멍으로 파리를 불고 발가락으로 드림을 쳐도 그래픽상 후보에 오르다고 했던가. (황해)는 김윤석과 이정우라는 걸출한 두 배우를 다시 모으고,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의 20세기 폭스 내 폭스 인터내셔널 프로덕션스(FIP)로부터 총 제작비의 20%를 투자 받는 데 성공했다. 무려 선봉로 밀어내! 앙파들을 반하게 한 이 영화의 내용은 (추격자)에서처럼 절박한 추격과 쫓김이 중심이다. 연변에서 고질로 잘하게 살고 있던 택시기사 구남(이정우 분)이 살인청부업자 먼개(김윤석 분)로부터 "서울 가서 사임 하나 죽이고 임지를 질러오라"는 의뢰를 받는다. 한국에 돈 벌러 갔다 소식 끊긴 아내도 찾을 겸 서울에 온 구남이 의뢰 받은 타지를 죽이려는 순간 다른 이가 목표물을 살해하고 구남은 누명을 쓰게 된다. 구남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살인청부 의뢰인과 청부업자 먼개, 게다가 경찰에게까지 쫓긴다. 전작에 이어 또 다시 김윤석에게 추격당하는 이정우의 불쌍한 표정 연기가 기대된다. 예고편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의 어색한 사투리가 몹시 담당하긴 하다. 과연 이 담당형을 형들의 어떤 열린 연연과 감독의 연출력으로 커버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12월 개봉



## PREVIEW

### 스카이라인



지구인들이 우주에 보낸 메시지 때문에 벌어지는 외계인과 인류의 전쟁을 그려낸 영화다. 거대 우주선이 불빛을 내뿜으면서 청소가 틀러웃 인간들을 빨아들인다. 이거 (월레스와 그로밋 거대 토끼의 저주)를 패러디한 건가? (BIBER), (2012)의 제작진이 만들었으니 화려한 CG와 스케일은 그럴싸하겠지만 소란난 잔치에 먹을 게 남아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듯. 어찌됐건 깃털을 광풍 때리는 시몬드가 연일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를 보면서 광란을 주성주심 깨려는 일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나 이영화 한 편 끼임은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 11월 25일 개봉

### 이층의 악당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여중생 딸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성격이 까칠해진 여자가 살고 있는 집에 수상한 세입자가 찾아온다. 2층 방으로 이사 온 소설가 세입자가 여주인이 없는 방에 똥으로 내려와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는 내용의 서스펜스 코미디. 여주인은 김혜수, 세입자는 한석규, 둘을 부른 이는 (달콤, 살벌한 연인)의 감독이다. 아줌마, 아저씨와의 공합은 과연 얼마나 잘 맞을까? 11월 25일 개봉

## TIMELINE

### 혜교의 시간

총행 성적과 무관하게 세월 따라 무르익는 송혜교의 팔색조 매력



순풍 신부인과(1998)



올인(2003)



햇빛 쏟아지다(2004)



플하우스(2004)



파랑주의보(2005)



황진이(2007)



그들이 사는 세상(2008)



베틀쉬(2010.11.25 개봉)

### 제제한 로맨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섹스 칼럼니스트(최강희 분)와 뒤돌아갈 생각만 안와(개신규 분)가 만나 생긴 공오전을 위해 의투합하면서 생기는 파헤찬 로맨스를 담았다. 섹스 경험 없는 그녀에게 친구가 한마디 하자 최강희가 고백한다. '경험 없다고 못 쓰면 해리포터는 마법사가 됐?' 그러나 한데? 뭘 좀 아는 이영화 숙연 MAX이 무이 등장한다. 직 접으로는 확인하시라. 12월 25일 개봉



# 일본 록 밴드 Spitz가 들려주는 이야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얻는 '새로움'에 진짜 의미가 있을까?

## 비드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말이나!

동성애 주장은 SBS 시청자투쟁팀 등 광고 반대세력들 사이에서 1. 동성애를 주제로 한 드라마는 시청률과 상관없이 시청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2. 동성애를 주제로 한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3. 동성애를 주제로 한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드라마 최초로 동성애에 진지하게 접근한 감수한 극본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신랄하게 비판한 조성일보 9월 29일자 A3면 하단 1면의 신문 광고를 기억하나?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DS로 죽으면 SBS 책임자래 나는 100점 만점의 헤드라인(제목)을 뽑아줬다. 광고주는 참고용 어머니 전국 모임과 바른 성명화를 위한 전국 연합이었다. 최근 일본의 하이쿠(5, 7, 5의 음수를 맞추고,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용해 짓는 짧은 시) 읽기에 폭 빠진 나로서는 웬만한 하이쿠 명인 뺀다는 이 헤드라인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드라마보다가 게이 된다는 사실(詩)의 역동성은 시인 모리타게의 명구 꽃잎 하나가 떨어지자/어, 다시 울라가네/비였구나/에 필적하며, 한 인간의 삶을 게이-ADS-사랑의 3단 계로 획기적으로 축약한 시간 감각은 그림판 밑을 없고/천 년의 삼나무/꺼 앉는 광동 을 울은 바소가 울고 갈 수준이다.



안상홍!

한 남자가 어떤 경로로 게이가 되는 걸까? 다음 그렇게 게이가 되는 게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어떻게인지 알 도리가 없다. 모태 솔로처럼 태어났는데 게이가 있는 건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후천적 영향으로 동성애적 기질이 꽃피는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내가 의심의 여지 없는 순도 100% 이상에 자란 사실. 당선이 MAXIM을 받았을 때 내가 쓴 칼럼보다 여자 모델이 있는 페이지를 먼저 펼쳐볼 거란 것만큼 확실하다. 그러나 타인의 삶에 대해 말하느니 여전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드라마 한 편에 성 정체성이 바뀐 그릇의 남자라면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사내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라는 말 한마디는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초** 근 발매된 일본 록 밴드 스피츠(Spitz)의 13번째 정규 앨범 《가시동그라미(とげまる)》를 들으며 남자의 미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말이다. 30대에 들어선 남자가 20세에 음악을 시작해 어느덧 40대에 접어든 밴드의 음반을 들으며 급습기에 관철은 화두 아닌가? 스피츠는 일본에서 2곡의 밀리언셀러로 빈스과 체리로 국민 밴드 반열에 올랐고,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팬을 갖고 있다. 멤버 4명이 처음 만나 밴드를 결성한 게 80년대 후반이다. 당시 유행하던 비트 펑크 덕분에 밴드가 우후죽순 생겨난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데 성공. 메이저 음반사와 계약한 후 1996년 대망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놀라운 건 스피츠가

1997~2010년까지 20년의 시간 동안 내놓은 13장의 정규 음반. 2장의 미발표 곡 모음집 2장의 미니 음반 곡 중 임의로 어떤 곡을 선택해도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당대의 스타일을 담아낸 시운에서 세월의 흔적만 엿보이는 정도다. 싱어 송라이터인 쿠사노 마사무네의 멜로디 감각과 독특한 가사에 소녀도 들을 수 있는 록 정도로 요약 가능한 특유의 시운도가 전 앨범에 걸쳐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0년을 맞이한 배철수의 음악캠프처럼 언제 들어도, 30주년을 맞이한 전곡노래자랑처럼 언제 보아도 어색하지 않은 음악이다. 바로 스피츠의 음악이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그룹 Spitz”



WORDS by 장미라



**스** 피츠의 일관성에 놀라워하던 차에 자신이 스피츠 특집이 실린 일본 음악 잡지 (뮤직 매거진)를 나에게 선물했다. 그들의 인터뷰를 읽다 우리가 아닌 무언가를 시도해도 결국 우리로 되 돌아온다는 멤버들의 겸연쩍은 고백을 읽고 무릎을 쳤다. 내가 처음 스피츠를 접한 98년 즈음 스피츠는 이미 엄청난 인기 밴드였다. 중간 아티스트였고, 당장 은퇴해도 먹고살 걱정 없을 만큼 돈도 벌었다. 그럼에도 음반 발표와 라이브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레게, 하드록, 펑크, 실내악 등 갖가지 요소를 스피츠의 음악에 첨가하는 데 주저함도 없었다. 그렇지만 필연적이라고 해도 좋은 만큼 일관성은 유지했다. (뮤직 매거진의 필자 역시 전과 같은 색깔을 유지하지만 신선하게 들리는 음악, 이것이 정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 라고 덧붙였다. 어쩌면 온전한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손에 놓아야 하는 새로운 가치란 없는 건지도 모른다.

변화를 주지 말라거나 변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트렌드나 불특정 다수의 시선 때문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다정한 남자가 대세라고 떡을 처던 도중에 애인이나 부인 귀에 대고 사정해도 돼? 라고 물어보면 곤란하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모티콘. 어린 친구의 유치한 말투. 어설픈 정치적 중립에 약매일 필요 없다. 남자가 평소 애 안 하던 짓을 하면 여자는 피곤하게만 느낀다. 물론 일상생활과 데이트에서 인간적인 예의남자라면 절반 이상이 개인 위생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지키고 나서의 이야기다.

어떤 이는 몇 개월 주기로 신곡을 들고 나와 이미 지 변신을 피하는 아이들에 열광하는 사람이 여자들 하나뿐!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녀들이 정말 사귀거나 결혼하고픈 남자는 아이돌이 아니라 류시원이나 여경 같은 사내다. 특히 류시원의 차이나킬라를 머리에 새겨라.

**이** 리저리 바꾸는 건 소스 킴을 여자에게 맡겨라. 우리는 그냥 타고 난 모습 그대로. 정해진 모범 답안 (네가 제일 예뻐. 이 옷이 잘 어울려. 너는 날남새. 네 음식이 최고야 등등)을 들려주면 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하던 대로, 데이비드 보위는 데이비드 보위처럼 하던 된다. 물론 아직 하던 대로 할 게 없는 10대나 20대 청년도 있을 거다. 여자가 있어도 불안하고, 여자가 없어도 불안하여, 이런 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불안한 이도 많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도 20년 넘게 같은 음악을 하고 있는 스피츠 형님의 새 음반을 찾게 된다. 첫 곡 비기너 후렴구 익숙하지 않은 품으로 계속 달려 가. 비기너(Beginner)의 모습 그대로 계속 해 나가. 차근차근 바람을 들이마시고 오늘도 들기 위해서.



### 정비비

전하고 싶은 말이 남칠 만큼 있었지만 사랑스러워서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싱어송라이터 정비비. 줄리아 하트와 가톨릭학(??) 정창리(?) 활동 중이다. 그가 MAXIM 독자에게 들려주는 음악, 그리고 세상사는 이야기를 기대하라. 이간 시적에 불과하다.



# 조문근

음악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미래의 슈퍼스타!

방송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꽤 멋진데?  
이게 다 카툰이 깔랑 덕분이다. 애써 구한 보랏빛이었다.

그래도 유행처럼 달았다. 당신도 전생애 지구를 구한 용자는 아니겠지?  
안타깝게도 지구를 구하지 못했다. 김혜수 같은 여자친구를 만난 적은 없으니까 단 한 번!

〈슈퍼스타케이(이하 슈스케)〉에서 준우승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컴퓨터에 달린 7인 웹캠이 시음도 카드를 음악을 하던 녀석이 고가의 전문 장비를 사용하면서 데뷔 음반을 만들었다.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  
동기들보다 데뷔가 많이 늦었다. 〈슈스케〉 준우승 이후 1년 만에 가수로 데뷔했다.

음악 작업이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정신을 차렸더니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더라(웃음).

먼저 데뷔한 서인국과 김해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서인국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인상적이고, 김해미는 힘 있는 가창력이 매력적이다. 참고로 내 음악은 자유로움이 묻어나는 게 장점이대(웃음).

〈슈스케〉 1기 까리는 자주 듣는 편인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인다. 데뷔한 친구의 무대 모니터링은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늘어놓는다. 〈슈스케〉 2기는 남녀 참여자들 같은 속소 1, 2층으로 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부러워했다. 우리는 속소뿐 아니라 식사로 남자가 유별했기에 멤버끼리 친해지기

가 어려웠!

음반 얘기를 해보자. 타이틀 곡 '너라는 걸'은 제목이 독특하다. '너라는 걸(여자)'이라는 의미, '바로 당신'이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정말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던 게로군! 이런 걸 보고 "공부해명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대웃음. 안타깝지만 곡 제목은 바뀔지도 모른다. 당신 질문이 헛되질 않게 바리다.

났었고, 당신이 속한 무브먼트 패밀리가 낸 음반에 장인의 피처링이 빠질 수 없다.  
고맙게도 내 음반에도 피처링을 해주셨다. 신인인니까 지원 시켜주세요진 셈이다. 장인 선배는 가수 팔방도 만민치 않은데 연습량이 엄청나다. 매일 대를 정해 체계적으로 보컬 트레이닝을 한다. 골라내는 대로 연습하는 니로서는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다.

'필 러브(Feed Love)'라는 곡에서 제이스 모라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소견 글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다.  
제이스 모라즈도 통기타와 첼로를 사용한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노래를 부른다. '필 러브(Feed Love)'에 제이스 모라즈의 분위기에 표정지처럼 사용했다.

〈슈스케〉 27기 특별 심사위원을 맡은 이문세의 '조조할인인 리메이브'했다. 의도한 건가?  
〈슈스케〉 27기에서 허진이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비교당할까 봐 걱정했지만 스타일이 달라 다형이다. 그는 원곡에 충실했고, 나는 곡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당신처럼 관한 얼굴에 적절한 노래와 춤 실력을 장착한 남자가 바람둥이인 경우가 많다.  
일행이 없다 주변에 여자는 많은데 모두 친구다. 죽이 잘 맞는 여자들이 있는데 연인과는 거리가 멀다. 제3의 섹션을 가진 외계인 같은 존재다.

크리스마스에 여자를 피는 팁 정도는 공유하자.  
혹심을 품고 다가서지 마라. 돈과 여자는 다가갈수록 멀어진다. 돈과 여자가 나에게 제 발로 다가오도록 살짝 꼬드기는 게 포인트다. 잊지 마라!

영입 비밀은 공개하지 않았던 소리꾼.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에게 MAXIMO란?  
하세가 있는 자유로움, 그게 바로 MAXIMO다.

동감이다. 하세가 따윈 개나 주라지!

# 이달의 음반&공연

MUSIC BY 강성현 THEATER BY 강진욱



12월에 이슈가 될 만한 녀석들만 추려봤다.



마이클 잭슨  
9년 만의 신보

팝의 황제 그의 마블블록을 모은 음반 (MICHAEL)이 드디어 발매된다. 더 이상 생명이 필요한가? MAXIM은 이미 지난 6월 그의 사망 1주년을 추모하는 특집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그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남겨진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팬이라면 가슴 뛰는 소식이야. 음반 발매 전 '브레이크 뉴 스키어'는 곡이 선공개되자 유가족은 목소리 진위를 놓고 소시 유가족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브레이크 뉴 스키어'의 가사처럼 "공포라고 생각할 때 다시 돌아오는" 황제는 이제 이곳에 없다. MTV로 대표되는 영상 시대를 지배한 팝의 재왕을 우리는 품을 자각이 없었다. 남은 우리가 할 일은 그가 지녔던 음악 피터너스와 만들어낸 음악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뿐이다. 이번 음반 (MICHAEL)은 총 10곡으로 채워졌고, 이 달 13일에 정식 발매된다. 12월에 어울리는 크리스마스캐럴도 흥차만 우리 같이 잠시 스쳐 가 한때의 마지막 선물을 들으며 함께할 수 있었음을 행복해하자. 마지막 콘서트 리허설을 담은 다큐멘터리 리미티드 이 음반이달로 당신이 돌아야 하는 바로 그것이니(개THIS IT)



성규선  
에피톤 프로젝트의 발견

에피톤 프로젝트의 음반 (유실물 보관소)를 정중했던 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다. "영장 피아노처럼 좋고 고운 목소리를 가진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녀가 부른 '해일제'의 노랫말처럼 그녀는 대리의 풍경을 그리는 아름다운 오정음부가 말 못할 수 있는 당신의 괴로움도 짐사야. 가라앉혀주는 시흥방 출한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유실물 보관소)의 존재 의미는 '그 여자 성규선의 발견에 있다는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법이 없을지다. 물론 그건 여전히 성규선이 최근 판사는 아이들과 달리 찾아서 듣고 싶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임은 분명하다. 이전에 내놓은 디지탈 싱글 음반 (첫 번째 방)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싱글 음반이란 형식답게 에피톤 프로젝트가 작사·작곡한 '고양이 왓츠'라는 한 곡만 담겼더니 담겨 있었던 그만한 온전한 공간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유령 소령들 1300에서 그녀의 음악을 OM 등으로 발매하게 생생한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당신의 내일이 유독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그녀의 음악을 들으며 짐사야! 위안을 삼아도 좋을 것이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발레스크》를 기다리는 이유

영화는 꼭 영화를 알고 볼 때 더욱 재미있음을 잊지 말자. 백여년에 마려온 편 어느 여가수와 달리 지금까지 그녀를 우리들에게 음악으로 사랑은 안겨준 적이 없다. 우리가 (발레스크), 그리고 그녀가 참여한 O.S.T.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여자에게 있다.



유지젝 (지립 앤 하이드)

이웃은 스레라의 역사를 다시 쓴다.

연예 11월 30일 ~ 12월 31일  
이서서 샐러드(이서서)  
문의 02-398-0202

연비 (지립 앤 하이드) 티켓 오픈 후 매진까지 걸린 시간이야. 군 복무를 마친 조승우의 광채 작품임을 고려해도 놀라운 걸 같다. 6곡 코미디 공연물의 흥수에 따라 지립 티켓 매-10에게 사뭇대피에서 막을 올리는 (지립 앤 하이드)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 특히 이번 공연은 조승우를 비롯해 유정현, 김준현, 홍광호, 김성현, 소나, 김수현 등 역대 최고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한다. 1965년 런던의 과학자 지립이 정신병을 연구하기 위해 스스로 임상 시험을 하는 도중에 숨어 있던 익한 인격 하이드가 표출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오랜만에 고전적 탄탄한 매력을 맛볼 수 있는 검증된 작품이 무대에 올랐으니 유지젝 매-10에게 (지립 앤 하이드)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다.



연극인들 시리즈 (웃음의 대화)

주은 기울어니 (미웃한 웃음을 깨워) 원한다.

연예 12월 03일 ~ 24일  
이서서 샐러드(이서서)  
문의 02-398-0007

웃어주고 웃음 쓰는 연극은 오해려 부림들이다. 잔잔한 웃음 매 아름답고 싶다면 (웃음의 대화)이 딱이다. 1940년대 전장이 한창인 1941. 희극 따위는 개나 주리는 검열관과 상관해지지 않을 웃겨보려는 희극 작가의 한탄 대결을 다뤘다. 웃음에 목숨 거는 희극 작가의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고, 미묘하기로 내 웃음 조금 누설하면 해피엔딩이며 연극이 끝난 후 따뜻한 여인이 남을 거만 사설 안색한. 정당한 운영책. 영호식. 김도현 등 한 연극은 배우들이 거쳐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웃음의 대화)의 작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유지젝 (발레스크)

발레는 남자 개야. 여자가 발레원인 스는 누가 개야?

연예 12월 10일 ~ 01월 11일  
이서서 샐러드(이서서)  
문의 02-398-0600

한 소년의 발레 도전기에 공평한 아버지의 정을 적당히 버무려 많은 영화들 웃고 울게 한 (발레스크)가 뮤지컬로 돌아왔다. 영국 신사주주의 시대, 탄압 노동자들의 착취한 삶에서 소년 발레가 발레라의 꿈과 용기 원리원리학과 단합하거 까의 이야기로 그려졌다. 30년간의 사연 재작 가라지 안고지 않을 만큼 발레의 역을 맡은 40대의 아역 배우가 빛나니 이연지에게 발레 연극 공연으로 적당하다.



# FRUIT DEALER

BY 김성현  
PHOTOGRAPH BY ARC STUDIO

## 김원기

이름보다 '과일장수'라는 아이디로 더 유명하다. 집에서 과일 장사를 한다. 부모님도 별 견, 일도 도울 겸 주말마다 집에 내려가는데 마침 서울에 올리는 날이 아이디 변경 기간이었다. 기존 아이디와 다른 걸로 만들려고 고민하다 '과일 팔다 왔으니 과일 장수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래서 과일 장수다.

(스타 2)로 전향한 선수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다. (스타 1) 시절에도 실력은 좋았다. 결승 무대에 오른 후 은퇴하고 싶었지만 마음처면 되진 않았다. 프로게이머로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

기에 (스타 2)는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프로 게이머는 자기 관리가 필수인데 솔직히 자신도 없었다. 당시 하던 일이 잘 안 풀려 친한 사람과 머리로 식할 겸 시작했는데 이렇게 됐다. 누구 말마따나 즐기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다.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썼다. GS. 오른 시즌 1에서 극적인 우승을 하더니 시즌 2에서는 극적으로(라고 쓰고 광속이라고 읽는다) 탈락했다.

첫 시즌은 운이 따라왔다. 시즌 2는 그 반대(웃음). 광탈하고 나니 타격이 크다. 2~3주 정도는 게임을 멀리했다. 시즌 2에서 관촬은 성격이 나으

면 시즌 3에는 저거가 아닌 랜덤 종족을 선택해 출전할 생각이었다. 랜덤 플레이도 자신 있고, 보는 편도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광탈의 여파로 그렇게 하긴 어렵다. 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즌 3은 무난한 성적을 예상해본다.

(스타 2)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유닛은?

쉬운 인터페이스. 그게 프로게이머를 관둔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복귀할 수 있던 이유다. 손이 느려서 연습량이 부족하지만 금방 치지곤 했는데 (스타 2)는 인터페이스 덕분에 손이 빠른 게이머들도 경

쟁할 만 하다. 대부분의 (스타 2) 유저는 명독층을 사랑하겠지만 그레도 정이 가는 건 저글링이다. 빠른 이동 속도도 장점이고, 저글링이 없다면 명독층도 없으니 말이다

**당신의 저그는 '찌그'라는 제3의 종족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하다. 그 덕분에 명독층은 저그의 밟을 유닛이 되었고, 불리지가든 너프(하향 조정)할 지도 모른다든 루머가 있다.**

오려 명독층 때문에 테란의 킷트들이 발전하는 걸로 봐야겠다. 이제는 명독층이 대충 굴러가면 피해를 못 주는 상황까지 왔다. 너프는 무슨 버프(상향 조정)시켜줘도 시원찮다(웃음).

**어찌됐든 이제 당신은 <스타 2>의 아이본이다. 스타탈이 노출될 일도 없고, 그에 따른 밟을 빌드도 등장할 거다.**

심리전에 능한 편이라 날빌(날카로운 빌드)을 상대하는 게 더 좋다. 예측불허인 날빌은 곤란하지만 미리 파악한 한다면 승리를 날로 먹을 수 있다

**사진 촬영 중 지나가듯 "연승량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말인가?**

<스타 2> 발매 버전 당시엔 연승량은 엄청났다. 남들처럼 취미 생활을 목적으로 게임에 파고들었다. 그런데 GSL이 출범한 후 삼급 규정이 1억으로 커지면 서 취미가 일이 됐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재미있지 않다. 지는 게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 연승보다 생각 위주로 가게 된다. <스타 1> 시절에는 연승 게임은 어떤 정도만 하고 출전할 적도 있다. 늘 이렇던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지금은 상당히 변했다(웃음).

**지난 시즌 우승 상금을 받은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직 받지 못했다(상금은 11월 말 즈음에 지급 예정). 대신 경기가 끝나고 장중중에서 족벌을 먹었다. 지어만 불렀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그날 새벽 6시까지 폭 달렸다.

**얼굴이 빈번한 데다 수줍도 짝팔하니 여자에게 인기 많다.**

큰 상금을 받아서인지 잘생겼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데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 잘생겼다고 말하면 화를 낸다. 물론 가끔 사위하고 화장실 조영이 받쳐주면 '이 모습이 진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있다(웃음). 그리고 애인이 생기는 건 GSL 우승과 맞먹는 기적이다. 솔직히 GSL 우승과 소개팅을 맞바꾸려면 응할지도 모른다(웃음).

**그럼 MAXIM에서 늘씬한 아가씨와 섹시 화보를 찍는다면 출연할 생각이 있나?**

영광이다. 태어나서 한 번도 늘씬한 여자 사진

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인지 멋진 남자, 예쁜 여자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사진 찍는 건 어색한 터라 늘씬한 아가씨가 있다면 촬영 시간이 10배는 길어질 거다. 어색함이 유발하는 자립일 거라 확신한다.

**요즘 잘나간다. 군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을 거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군대는 답이 없다(웃음). 솔직하면 군에서 부르면 가는 거다.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예비군을 비롯해서 상병이 겪던 친구는 멀리했다. 제일

**게임 이외에 다른 취미나 특기가 있나? 다른 게임을 언급해도 상관없다.**

스스보드 제작에 입문해서 작년에 신나게 타러 다녔다. 같이 타던 형이 올해 개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 누구에게 배워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스타 2> 말고 <워크래프트 3>의 유즈맵만 오오스 즐긴다. 같이 하는 친구들이 고수라서 이기는 재미가 있다(웃음). <스타 2>에서 우승한 덕분에 요즘은 못해도 욕을 먹지 않아 더 즐겁다.

**중요한 질문이다. 소녀시대, 카라, 포미닛 중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은?**

카라가 정이다. 예전에는 소녀시대에 열광하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요즘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녹을 만하다.

**저그 초짜에게 필살 '날빌'?(?) 하나만 알려달라.**

저그의 로망은 역시나 6드론 이후 신민토 빌드다(웃음). 날나스스 누구에게 사용해도 30% 이상의 고승률을 보장한다. 물론 내가 하면 50%는 가볍게 넘는다. 실제로 레드 게임을 할 때 3번 중 1번은 사용한다(웃음).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에게 사과, 그리고 MAXIM이란?**

사과라는 사과가 일반 사과라면 어머니가 파는 사과는 T.O.P.A. MAXIM은 내가 입대하면 여자친구 같은 존재겠지.

**입대하면 연락해라. 정기구독권을 보내줄지도...**

STAR CRAFT II SEASON3 OPEN

GSL은 이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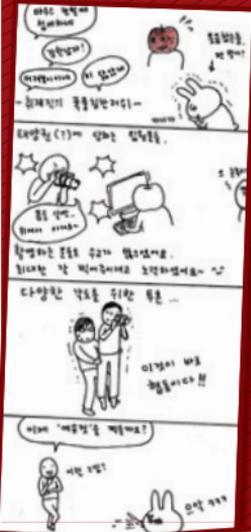
GOMTV esports.gomtv.com/gsl

강남구 9호선 역강기북기



BEHIND STORY

코코슈의 MAXIM 촬영 스케치





# 바야흐로 PSP 전성시대!

BY 김성민

지금 소개하는 게임만 즐기기엔 깊은 뽕도 남는다. 알짜배기 게임은 질서서 즐기기 재미도 2배다.



게임 동영상  
보러가기

## 몬스터 헌터 포터블 3rd

역시 문헌은 PSP용이 진리다.

가격 PSP 제1차사 CAPCOM 정품 스퀘어 액션 발매일 12월 12일 가격 59,000원

시상 시즌이 돌아왔다. (문헌 1 헌터 포터블 3rd(이하 문헌 3d)는 캠프 게임답게 한글화와 담을 쌓았지만 몬스터를 때려잡는 데 무슨 일이 필요하겠나? 각종 무기부터 녀석들을 그저 흡선 도구만 된다. (문헌 3d)는 몬스터를 상대할 스테이지도 한글 넘어져서 캐릭터를 움직이기가 한글 판에서는 다소 상상 헨이라 쓰고 익숙한 기존 몬스터도 대목 물감아해서 전작의 팬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게임에 임할 수 있다. 뭐 어차피 그쪽 배져 당신에게 몬스터는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한낱 재료가 불과하겠지만 말이다. 애환 옛 오토모 아이루도 간헐한다. 기쁨은 장미도 오히려 방해물 주기도 하지만 귀찮게 생기고 모 하루만으로도 데리고 다닐 이유는 충분하다. 아이루 전용 장비도 다양하게 등장하니 합찮고 다치지 않게 잘 챙겨서요. 기본적으로 (문헌 3d)는 장비빨이 받쳐줘도 게임 스피드가 시원찮으면 고생이 바지

인 게임이다. 그래서 몬스터를 효율적으로 벨리 사냥할 때 패곤은 배가 된다. 게임을 처음 접한다면 다소 불편한 시선. 친할까치하면 얽은 게임 시스템에 거부감이 들지 모른다. 그럴 땐 꼭 참고 네임드 몬스터 한 마리만 잡는다고 생각하자. (문헌) 제비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이 괜히 (문헌) 노래를 부리며 이 수렵 게임에 열광하는 게 아니다. PSP를 한번 집어든 5시간은 기본. 총 플레이 타임 1,000시간을 넘기는 건 식은 죽 먹기다. 크리스마스를 달력에서 지워버리는 건 참 좋은 일인데 2016년까지 몬스터 학살에 고스란히 한남할지 모르니 주의할 것 참고 몬스터 헌터 한정판 PSP는 상능에 최적화된 형태로 아닐로그 패드를 변경했을 뿐 아니라 2,2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표준으로 탑재했다. 이 책이나 옆의 소개에 일단 믿어주세요. (문헌) 팬이리만 구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 갓 오브 워 Ghost of Sparta

불멸 스파르타의 망명!

가격 PSP 제1차사 SOA 정품 액션 발매일 12월 2일 가격 40,000원



전작에서 전쟁의 신 아레스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한 스파르타의 망명 크레토스가 돌아왔다. 어차피 한글화 출사나 당시가 꺼리지만 아니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 간혹 자막 폰트가 구리라고 까는 사람도 있는데 영문만으로도 플레이하다가 스토리의 정반도 이해하지 못한 채 병어리 병거를 알아봐야 한글화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될 거다. 이번 작품은 PSP의 성능을 뛰어넘은 게임 불꽃 (동영상만 일주 40분)을 비롯해 연출, 액션 등 어느 한구석 흠집을 데가 없다. 특히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 크레토스라는 캐릭터의 사명에 최적화된 연출은 게임 몰입도를 높인다. 신화 속 괴물은 물론. 자갈 열 받게 하던 신이건 뱀건 안 가지고 때려잡는 무지바라고 환관인 스파르타의 황제 일상의 스토리를 날려버리듯 플레이 타임 자체는 6시간 내외로서 액션 게임의 고수라고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난이도를 바귀가며 적어도 '신' 모든게 캐주얼한 흥을 좋다면 무척 좋을 것이다. 이 게임 해-루므로도 PSP는 생명연명의 꿈을 이가하는 데 성공했다.



## 페르소나 2 罪 데몬 언더 갓모피?

가격 PSP 제1차사 비주얼 노벨 RPG 발매일 미정 가격 미정



경고다 아니라 충고 한다. 당시 (페르소나 3)로 (페르소나 2) 시리즈의 일문만 사면 아라던 살림이 담지 않는 게 좋다. (페르소나 3)처럼 말랑말랑한 게임이 아니라 소리다. 원래 아틀라스는 (진) 신 전성이라는 마나리한 게임으로 승부하는 체제사였다. 마라합체는 화려한 줄거움(그리고 노가다)을 선물한 이 게임의 여운이 남아 있는 작품이 바로 (페르소나 2)다. 한번 빠져도 안될 수 없는 매력은 자못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재미로 승부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최근 화려한 그래픽에 익숙해진 당시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 10여 년 전에 출시한 PS 1 버전은 罪와 罰법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작품은 그중 罪만 별도로 리메이크했다. 이유는 당면한 실수이다. 물론, 새로운 오프닝을 추가했고, PS1 버전 음악과 새롭게 리믹스한 음악을 신재해 즐길 수 있다. 10년 전에 출시된 (페르소나 3)의 국내 발매일이 나쁘지 않아 이번 작품도 한글화 출시 가능성이 장차지는 만큼, 캐주얼하지 않았던 (페르소나 2)를 좋아하던 팬이리만 기대해도 좋을 거다. 하긴 현실에선 그런 걸 다 떠나 우리나라 시장에 대시출을 동봉해 정발해준 장터까지지 않은 말이다.

## SO HOT

### 심미 통과 완료!

크리미널 걸즈 너자제



'크리미널'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범죄 인자를 가진 소녀를 채워줄(우리나라에는 금지된 바로 그것) 세계 태어나게 하는 게임이다(대중). 이런 설정 자체도 예사롭지 않은데 채워지 맥선과 시우드가 아한 걸 넘어서 예로 향해 달려다니는 게 문제였다. 개뿔사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대놓고 '크리미널 걸즈는 변태 게임이다'라고 자랑했으니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나? 게임 발매 전 영화 (크리미널 걸즈)도 공개됐는데 그림을 그린 이는 예로 민트 스페리얼스였다. 흔히 말하는 그 아... 그 충격적인 건 이 게임이 우리-부녀에 정발된다는 사실이다. (크리미널 걸즈)가 정식 발매될 거라고 공에 도 상상하지 못하여 이미 일본판은 구해 대행한 수많은 한국 오토모의 덕사(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제1, 제2, 제3 연 터사조는 본 문장의 마음이 심문 이해되지 않나 소-코라라에서 우리나라 PSP 유저를 이렇게 배려했으니 못 본 척할 수는 없는 노릇. 이렇게 하면 정발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거다. 크-크리미널 걸즈가 딱히 좋아서 그런 건 아... 아니다.

가격 PSP 제1차사 이치메코 정품 RPG 발매일 미정 가격 미정

# 타임머신 코믹스

## 시간 여행자를 위한 만화책

BY 김좌승



정신을 차리면 이미 2011년으로 가는 시간 여행이 완료되어 있겠지. 크리스마스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야 했다.



**아프리카대륙**  
이브마 카요히코

잡지(좋은 생각을 뿜어 내는 기술이 있다. 잠시 세상이 이미 보지 못한 현실은 역시 시공형 감성전환) 피터 에데라

분명 크리스마스인데 휴대폰은 조용하기만 하다. 아들도 녹록한 방 인을 잠시나마 환하게 할 여건은 개별 만화책이나 읽자 좌절 따윈 없다. 마냥 해맑은 여고생들이 당신 주위를 방방 뛰고난다. 아이들의 졸업과 동시에 만화는 끝난다. 발가벗고 보였던 세상이 다시 아우무자는 순간이다. **캐어는 시간 2010. 12. 24 7:00PM** 너무 빨. 시간 여행 대체제! 당신은 최악의 시점에 깨야 할 거다.



**HEN**  
오쿠 리베아

겨우 때문에 (건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작가의 겨우 사람은 이 작품에서 이미 시켰다. (태가결)이나 (기묘한 이야기)에서 봤을 듯한 독특한 예가와 동성애 예시들이 이 (건조)는 다른 수순형 그림체와 호화계 어울린다. **황목진경 (콜라비)**

자. (건조)가 마음에 들었나?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건조)에 등장하는 겨우가 마음에 들었나? 그렇다면 이 작품은 꼭 찾아봐라. 크리스마스고 뭐고 다 잊게 만드는 매력적인 겨우가 등장한다. 이 이상의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냐. **캐어는 시간 2010. 12. 25 6:00PM** 커풀들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시점에 깨야 한다. 캔담. 아버지 밖에 나가지 사 람만 있다. 겨우와 할배끼리만 이 모든 것 이 뒤집기 쉽다.



**몬스터**  
우라사와 나오키

한 편의 장편만화를 보는 것 같다. 만화책을 보면서 눈물을 글방인 건 처음이었다. 주인공이 실을 해해. 나는 나중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2월 20일이 되어 있을 거다. 하지만 난 여진이 일으킨 여물을 만날 거다. 무렵이지? **조진홍(2), 영광(2)레디(2)카(4)**

아우워진 분위기를 억지로 밝게 만들려 애쓰다 보면 더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여세를 몰아 좀 진지한 분위기의 만화책을 읽어봐라. 오해하면 미라. '진지하다=지루하다'는 공식이 예외일 때도 있으나. (몬스터)는 일방적인 외과 의사 캔조 덴가 '요한'이라는 환자상과 약삭을 자닌 어린 소년의 모습을 구하면서 시작하는 스릴러다. 18권인 한 권씩씩 느끼는 기현상을 경험할 것이다. **캐어는 시간 2010. 12. 27 5:00AM** 뿌듯하게 받아오는 창밖을 보며 '하렘밤을 꼬박 새웠구나'라고 말하는 순간 통통 사계가 시야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크. 크리스마스가 훌쩍 지나갔구나 아싸



**리브어린**  
이카미 켄

종이하다  
인화(재) 카이스트 재학 중

허황허황. 당상은 이미 빠져들었다. 이 여세를 몰아 당신의 원망을 시등을 걸어 보자. 야. 아예데 쿠다시야! **캐어는 시간 2010. 12. 25 12:00AM** 원소 물결에 그르ند고 지금 당당이라도 여성과 MT로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 발이 없을 거야(아빠도 여친도 없잖아?).



**열혈강호**  
전극진 / 양재현

아싸. 만화 자체가 어떤 건 아니고 만화 중간 중간에 삽입된 샷스 컷이 아싸. 당화된 의욕적인 가장 인상 같다. 세상이 흐른 지금도 아직 잊혀지지 않는다. 수중기를 중요 부분을 그려냈다. **정재홍(2), R(1)**

간만에 스토리에 집중했더니 지렛대 삼아 몸뚱이를 지탱하고 있던 어깨에 통통이 슬슬 밀려올 거다. 잠시 머리를 식히는 타임을 갖자. 다 읽고 처벌이두었던 <열혈강호>를 처음부터 다시 정독해도 상관없지만 페이지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샷스 컷을 찾아보는 재미도 빠르다면. **캐어는 시간 2010. 12. 31 3:00PM** **젠장, 크리스마스는 건너 뛰었지만 해를 이룰 보라 같 이연은 없다. <열혈강호> 전체를 정독한다면 개박 바로 직전에 깨어난다. 방학 숙제는 다 하셨수?**



**신들의 불의**  
유해이무리 반쿠

슬램덩크 이후. 나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 만화. **강영주(비밀), 윤복동(내 마계원(비밀))**

이제 안구를 좀 쫓아봤잖나? 이 가나건 여행을 마치고 나온 의욕도 쓸쓸한 겨울 중 며칠 정도는 기분히 지나 있을 거다. 예베레스트 초등정에 위치한 미스터리를 추적하러가다 보면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차가운 바람 공기를 쫓고 싶은 생각이 온 거다. 비축해둔 식량도 떨어졌을 테니 경사길을 바깥으로 나가거나 미스터리가 없다면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상쾌하다. 그리고, 반반은 헤어지. 참은이. **캐어는 시간 2010. 12. 25 11:00PM** **젠장, 크리스마스를 건너 뛰기에는 2% 부족했다.**



**간츠**  
오쿠 리베아

아싸. 아싸. 신작이다. 2010. 12. 25에 300이 갔다. 그래서 최고라고 하면 완결이 아직 아니다. **박재현(2), 2010. 12. 25**

샷스 컷만 보고 싶었더니 감동했나? 사서히 대담원은 당신의 상상을 (간조)로 발명해가게 해준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즘 만화다. (간조)의 무엇이 당신의 상상을 증명할지가 할까? 황당 설정. 변태성. 참란 등이 작가가 무책임하게 마구 투척해놓은 맥박들을 해결하느라 문 하생들만 죽어나고 고생하고 있을 듯. **캐어는 시간 2010. 01. 05 2:00PM** 18권 장면에 영랑정 하마 한 살 더 먹는 다. 죽기 전에 완결되면 볼 수 있는 건가?



**GON**  
마사시 타카

생각 다르면 공물 '만에게 괴롭힘당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울려 웃음이 나온다. 가볍게 볼 만하지만 만화의 끝만도 채 높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사가 전혀 없다는 거! **권준우(2), 복학생**

그레. 이제 끝이 없는 것도 귀찮다 10분 정도는 시간을 가져봐라. 아니.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고등학교 다닐 때 50분 만화책 보고 10분 신 사람들처럼? 오랜 시간 만화책을 들여다보느라 글자 따 보면서 들어오지도 않는다면 (건조)는 분명에 잠시 읽기 싫은 거야. 저쪽 배근 글자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캐어는 시간 2010. 12. 24 10:00PM** **한 권에 10분이면 충분하다.**

자, 어떻게 죽고 싶나?

그냥 장도는 것처럼 편안하게 죽고 싶다. 아, 그런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 목욕도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가 무엇인가?

지구에 이름을 알리고 싶다. '멋지게 음악하다' 간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여기서만 활동하면 억울하다. 내 노래를 듣고 감동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때까지 노래할 거다.

휴가 나와서 '사모곡'을 부르는 줄고, 전역할 때도 읊었다. 율보인가?

두 번 밖에 안 읊었다. 원래 눈물이 없는데 근대 다녀와서 감수성이 깊어진 것 같다. 전역할 때 서글고 힘들었던 일들이 피노파치처럼 학 재나기서 읊었다.

해병대 가서 후회했지?

들어가지마자, 훈련소 가서 3일 내내고 민했다. 지금은 최고의 경험이다. 해병대에 다시 가라고 하면 갈 거다.

언론에서 온통 해병대 이야기다.

우리는 몰라. 나보다 해병대 이미지가 앞설까 봐, 해병대 다녀온 걸 굳이 내세우려고 했다. 온 건 아니다.

양아버지 김홍국이 "친아들이 원치 않으면 해병대 보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었다.

나도 신해님(김홍국이) 보내서 해병대 간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지원 입대했다. 해병대 가기 전에는 신해님이 잘 챙겨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방송국에서란 민나는 정도였다. 제대 후엔 진짜 아들이처럼 잘 챙겨준다.

살면서 한 가장 나쁜 짓은?

없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비방장이다.

가시에 나날 정도의 순위로 한 가지만 말해달라!

없다. 난 빠르게 살아왔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는 언제인가?

7Dayz란 그룹으로 데뷔했다. 가 회사 사장 때문에 나는 솔로로 나머지 멤버들은 그룹 원티드로 데뷔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7dayz로 활동했을 거다. 친구(원티드의 멤버 서재호)가 사교로 떠났다. 정말 힘들었고, 아직까지 힘들다. 그래서 돌아가서 멤버들과 더 많은 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

죽기 전 해보고 싶은 음악 장르는?

밴드를 만들고 싶다. 소울을 기반으로 한 팝, 록도 좀 섞어서.

같이 밴드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 가수는 누구인가?

없다. 내 음악이랑 안 맞다.

데뷔하고 싶은 여자 연예인은?

신세경. 그런데 최근 관심이 깨졌다.

이상형은 어떤 여자인가?

착한 여자. 내 눈에만 예쁜 건 아니다.

진짜 착한 신승훈은 오.미도 괜찮?

내 눈에 예뻐야 하나니까.

한 영화는 좀 그랬다.

중학교 때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난 결국 음악 해야 될 놈 같다. (카리스마 탈출?)는 생활이 어려워져서 찍었다. 어차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괜찮다. 굳이 찾아봐야 나오는 거라. 뭐.

곧 발매될 미니앨범에 대해 소개해달라.

이번에도 내가 작곡했다. 장르도 '이정'이다. 요즘 앨범이고, 신상할 거다. 요즘 음악이 더 똑같다. 전자음악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는 못하는 것 같다. 전자음악을 할 거면 이렇게 하라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자신 있다.

당신에게 가수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직 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여태 나온 앨범 중 목숨과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조금씩 단계별로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다.

요버명은 본명 '이정화'가 될까 아니면 '이정'이 될까?

이정화. 이게 내 이름이니까. 내가 '이정'으로 입대했다면 군대 생활도 못하게 되었지.

하고 싶은 일이 남았나?

우리 부대 중 'MAXM' 팀원이, MAXM 많이 본다. '후임들이, 잘 있지?'

〈락업〉의 새 멤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다.

내가 잘 지리가 아니다. 그걸리아 없었지 만 거기서 외팔라고 해도 갈 생각은 없다. 언론에서 자꾸 MC를 칭과 비교하는데 상황이 좀 그렇다. 난 도리와 의리를 중요시한다. 추억을 줘도 내가 아니라 싶으면 하지 않는다.

원래 연기가 꿈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영화 〈카리스마 탈출〉(이정)이 출연



새인의 이정

의리로 푹푹 뭉친 새인이 정은 죽을 일에서도 음악 생각뿐이다.

MOTOR TEST DRIVE



MAXIM 시승기 #5

# SUPER REXTON RX4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렉스턴이 좀 나가니 썰매를 끌어주렴!

BY 유승민 PHOTOGRAPH BY ARC STUDIO COOPERATION 행운자동차 MODEL MAXIM 편집부 워너



# SUPER REXTON RX4

아름다운 그녀를 사고 목적이 뚜렷한 여행을 떠나야 진짜 매력한 크리스마스. 두껍게 시원하게 열리는 컨버터블이 해변으로 떠나는 여름에 제격이려니. 크리스마스의 오토함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12월엔 역시 지붕에 캐리어와 스키를 풍나게 엮고 달릴 수 있는 SUV가 제맛이다. 이 겨울, MAXIM 수컷들에게 추천할 최적의 SUV를 고르느라 무려 5분이나 고민했다. 답은 통닭집에서 먹어야 제맛이듯, SUV도 역시 SUV 잘 하는 집에서 골랐다. SUV의 명가 쌍용에서 새로 내놓은 슈퍼 렉스턴이 2.0으로 나왔다기에.

## 잘 나가잖아?

2000cc로 배기량이 줄었다고 해서 당차기 좀 건어납니다. 처음엔 육중한 렉스턴의 프레임 보다는 그대로 유지하고 외기에 기존 모델보다 파워가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해서 입아보면 눈에 띄는 성능 저하는 느끼기 힘들다. 겉싸게 차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오르막에서 탄력 있고 잘 굴러가는 힘이 배기량 2700cc의 RV6, RV6, RV7 등의 모델에 비해 약하긴 하지만 2000cc 배기량에 140마력인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차이라면 RV7에 비해 1100만 원 정도 싼 2400만 원대 가격에 연비까지 높으니 2700cc의 대배기량 모델을 산 사람이 좀 억울하겠다 싶을 정도다.

## 긴지는 여전하다

프리미엄 SUV라는 자부심이 손상가지 않도록 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 정속 주행 가능, 하이패스 시스템,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18인치 하이퍼 실버 휠 전 좌석 열선 시트 등 세심한 프리미엄 기능이 거의 그대로다. 환기를 절감하려고 끄자면 편의 기능을 빼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특히 기본으로 깔려 있는 내부 인테리어가 예뻐요. 진한 그린 톤의 우드 그레인 내장재는 최고급 세단에서나 보던 바로 그 질감이다. 특히 작업 손이 닿는 운전대와 변속기 레버에도 원목 무늬가 살아있는 우드 장식으로 마감했는데 맨질맨질한 촉감이 훌륭하다. 보통 하나의 모델 안에서 가격을 낮추고 하위 트림의 차가 나왔을 때, 종종 알고 빠진 쟁쟁이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슈퍼 렉스턴 2.0은 기획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배도 될 것 같 빼면 안 될 것을 골라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느낌이 든다. 환기를 좀 아는 친구네?

## 자세 메모리 시스템

쌍용자동차가 MAXIM에 제공한 차량은 카리스마 넘치는 투톤 블랙, 문을 여니 바다의 REXTON 로고 불빛이 은은하게 켜지며 운전자를 반긴다. 키를 꽂고 들라는 순간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기억된 전동 제어 시트가 몸을 운전대 앞으로 모셔준다. 짧은 다리 때문에 운전석 시트를 앞으로 끌어당겨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손을 다리 시어로 넣고 수구런

체로 시트를 왔다리 갔다리 조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 잘 알겠다. 게다가 옆자리에 오늘의 작업 대상을 태운 채라면 더욱 그렇다. 미리미리 당산의 신체에 딱 맞게 세팅해놓으면 슈퍼 렉스턴은 마치 인모처럼 키트차림 앞에서 당신을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는다. 여자인 의외의 포인트에서 남자를 그럴싸하게 보기도 하고, 찡찡만 단정하기도 하나, 메모리 체이가 25초의 시간 동안 움직이며 내는 나지막한 웅- 소리는 마치 주인님 오셨습니까의 느낌이 든다. 잘대 그녀에게 오토 메모리 체이니 뭐니 자랑질은 하지 마라. 그저 너무나 당연한 듯 한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된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엔 다 입력되었으니 걱정마라.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은 총 3명의 운전자 체형에 맞는 자세를 세팅해놓을 수 있다. 3명이 돌아다녀 차를 타도 원 바쁜만으로 렉스턴은 각 주안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여기서 당신이 조금만 머리통이 돌이간다면 MAXIM처럼 획기적인 응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트를 완전히 뒤로 젖혀거나, 공기가 충분할 만큼 뒤로 빼서 카섹스에 최적화된 자세를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 런터모드 섹스 모드도 전환이 가능한 차라니, 이진 혁명이다.

## 너무 섬세해 말게

이슈도 정도 있다. 에디터의 부모님이 타는 차로 렉스턴인데, 주행 중 센터페시아에서 원인 모를 뻑뻑 뻑뻑 소리가 나서 답답했던 터. 놀라게도 이반에



MAXXI이 시승한 슈퍼 렉스턴 차량의 센터페시아에서도 동일한 소리가 나는 거다. 우연이 아니라면 아마도 조금 과정에서 뭔가 시소한 흠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전·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을 켜놓으면 뽕뽕거리는 소리는 들리지만 장애물이 왼쪽에 있는 건지 오른쪽에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MAXXI 시무실에 주차하던 중 후방 장애물 경보음이 들려 당연히 좌측에 근접해 있던 벽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른쪽에 미처 보지 못한 레버로 이서 있더라. 운전석에서 볼 수 있는 표시대에 경보의 원인이 되는 장애물의 방향이 표시된다면 더 좋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 이성화된 자네를 위한 친환경 기능

가장 저렴한 트림의 슈퍼 렉스턴에도 크루즈 컨트롤이 붙어 있는 걸 보니 이제 정속 주행은 대세인 듯하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손으로만 편하게 운전 한다는 건 나 같은 무중급 보유자에게 신세계가 열리는 일이다. 이런 더 이상 운전 중에 목숨을 걸고 발을 끊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슈퍼 렉스턴의 크루즈 컨트롤에는 ECO가 붙어있다. 이 기능을 쓰면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여 공해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운전자가 로보트 아닌 이상 오르막에서 가속페달을 딱 필요한 만큼만 밟지 않는다. 이 기능을 쓰면 약간의리도 오르막이 나타났을 때 예코 크루즈 시스

템이 이를 감지하고 일어서 적정량의 연료를 분사한다. 그뿐이 아니다. 차량의 관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어를 아껴준다. 내리막 주행 시 설정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고 그렇게 발생한 관성 에너지를 다음 오르막을 오르는 데 사용하는 기능이다. 신기하지 않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 예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5% 정도의 연료 절약 효과가 있다.

### 경제 관념 제로인 자네를 위해

기본 옵션만 해도 이렇게나 훈훈한 슈퍼 렉스턴을 2,49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차량 유지비를 줄여줄 기술력은 군데군데 계속 숨어 있다. 차체 크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출력은 낮아졌으니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연료 소모도 오히려 늘어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했지만 공인 연비는 오히려 리터당 0.7km가 늘어났다. 이미 앞에서 주장했듯 설명한 예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말고도 CDPFI(Catalyzed Diesel Particulate Filter: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 먼지를 그대로 배출하지 않고 고온으로 연소시키는 시스템) 장착 및 최적의 배기 시스템 설계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받아 5년간 환경 개선 부담금 면제 혜택은 물론 각종 주차장 사용자 할인 등 다양한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당신이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앞으로 연료 사용도

줄이고 깨끗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에 동참해줘. 후손을 낳기는 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 이제 그녀와 함께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자. 말 안 해도 그녀에게 입힐 섹시한 산타 코스튬은 챙겼겠지? 참, 산타 모자는 치워라. 그녀의 머리카락이 산타 모자보다 빨간 루돌프 녹색 머리카락이 훨씬 더 자네를 달아오르게 만들 테니까. 그녀가 렉스턴을 맘에 들어 한다면 달리다가 잠시 길가에 세워두고 차에서 후손을 만 들어도 좋다. 징글 벨. 🎅

### 재원표

가격	2,495만원
엔진형식	14 XXV
연료	디젤
배기량	1,998cc
최고속력	148마력/4000rpm
최대토크	33.7kg.m/2,000rpm
승차인원	7인승
구동방식	후륜구동
변속기	자동6단
연료탱크	55 ℓ
공인연비	11.4km/l (3등급)
전장	4,735mm
공차중량	1,910kg



**Z4**sDrive35is



# Z4

## 질투의 화신

확 굼어버릴까? by 유승민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흔히 좋은 차를 보면 굼어버릴까? 하는 못된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성공한 노년의 여르신이 몰고 다니는 정장은 고급 세단을 보면서 굼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이 죽~ 굼어버리고 싶었던 차는? 아마도 당신과 비슷하거나 어린 나이의 애송이 녀석이 부모를 잘 만나 타고 다닐 법한 미끈한 2인승 로드스터였을 거다. 어떤가, 여기 보이는 이 새빨간 녀석 당신이 질투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차 아닌가?

사랑과 미움은 동양장 차이라고 했다. 당신이 Z4를 날카로운 연장으로 굼어버리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뒤집어 놓고 Z4가 당신 것이라고 가정하면 이토록 예쁘고 날렵한 애마 가도 있을까?

안 그래도 질투의 상징이었던 Z4가 공극의 로드스터로 돌아왔다. 2009년형 BMW Z4 sDrive35i가 2010년에 살포시 그 긴 모델명 뒤에 s를 달고 왔다. 지금까지는 주로 BMW의 자회사인 BMW M(모터스포츠)에서 Z4의 고성능 라인을 선보였지만 이번엔 M을 달고 나타나지 않았다. s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sDrive35i가 오히려 Z4의 M 로드스터의 기능을 능가한다는 점이다. S7M을 능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런 제길, 당신이 아는 그 음탕한 S와 M이 아니다. BMW M01인 BMW의 자회사로서 메르세데스-벤츠로 치면 AMG 튜닝 같은 거다. 이제 나이를 좀 먹었다고 2인승 로드스터를 당신의 새 애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신이 저 놓아버린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 이번엔 당신이 누군가로 하여금 당신의 차를 굼고 싶게 만들 차례다.

### 제원표

가격(VAT 포함)	9,590만원
배기량	2,979cc
최고출력	340마력/5,900rpm
최대토크	45.9kg.m/1,500rpm
제로백	4.8초
안전 최고속도	250km/h
연료탱크	55L
공인연비	9.4km/L
전장	4,239mm





# HEAVY METAL RIDE

PHOTOGRAPHS BY JIM WRIGHT

그를 머트리 크루의 드러머 **토미 리**는 한때 파멜라 앤더슨이라는 벅마를 신나게 타고 다녔다. 얼마나 신났으면 파멜라 탑승 동영상도 팔아치웠겠다. 이 화끈한 남자가 타고 다니는 두 발 달린 금속 물체가 그녀보다 섹시할지 궁금하다.

● 이 바이크 참 정하게 길다. 모른는 사람이 두 팔을 번쩍 번쩍 든 당신을 보면 별 받는 줄 알겠다.

우하하! 내 바이크는 3.7m가 넘는다. 내가 본 것 중 프런트가 가장 긴 바이크다. 괜찮지? 유련하기는 좀 힘들다.

**어떻게 이 바이크를 갖게 됐니?**

4년 전쯤 주문 제작했다. 로드워리어 바이크를 갖고 싶었다. 화려한 그래픽 없이 전체가 메탈 플레이트로 덮인 바이크 말이다. 멋진 공중이름 가진, 이리 저리 술집을 돌아다닐 때 탈 수 있는 바이크.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녀석과 여행하는 게 좋다. 라디오도 없다. 오직 나와 도로만 있을 뿐.

**라디오가 없으면 그름 헤즈드 오브 어랩(2009년 재결성의 새 음반을 위해 팬들이 보낸 곡을 들을 수 없음)인데, 온라인에 편집된 된 우리 밴드 음악의 원음 트랙을 올리고 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리믹스하게 했다. 그 결과 우리는 만 개가 넘는 리믹스 곡을 받았다. 덕분에 나는 최근 몇 달 동안은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새벽 2, 3시까지 데모 버전 음원을 들었다. 전 세계 인과 함께 레코드를 만들고 싶었다. 멋진 경험이었다.**

**원래 바이크를 좋아했니?**

그렇다. 82년에 첫 오토바이로 할리를 샀다. 온종일 그것만 바라봤다. 바이크엔 특별한 매력에 있다. 일단 여자를 뒤에 태울 수 있다. 뒤에 앉은 그녀는 바이크의 진동에 탐닉한다. 그뿐인가? 살기 위해 당신을 꼭 잡을 거다. 그리고 그것에 중독될 거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지?



헤즈드 오브 어랩의 (A Little Deviance Announcement)는 아이폰즈에서 들을 수 있다.



# STUFF

## BACK TO THE MAC

맥북에어(11인치)를 사야 하는 이유!

버릴 수가 없다. 내 가까이 노예가 되어주겠네! BY 김성현



CPU Intel Core 2 Duo SU3300  
DISPLAY 11inch  
RESOLUTION 1366x768pixels  
GRAPHIC CARD NVIDIA GeForce 320M  
WEIGHT 1.06kg

### 1. 해상도

맥북에어의 해상도는 1366x768이다. 별거 아닌 것 같나? 기존의 10인치 넷북의 1024x600 해상도를 써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다. 위아래 화면이 뭉툭 질린 화면을 보며 작업하다 보면 답답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그렇다고 1366x768의 해상도를 확보한 11인치 노트북으로 눈을 돌리면 이번에는 CPU가 속을 썩인다. 맥북에어처럼 적절한 CPU와 만족스러운 해상도의 조합을 보여주는 노트북은 찾아보기 어렵단 얘기다.

### 2. CPU

맥북에어의 CPU는 Intel Core 2 Duo SU9400이다. 최근 노트북에 인텔 모바일 i3 6 UM (저전력) CPU를 탑재하는 걸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발열 및 전력 소모가 안정적이고, 동영상 재생 및 인코딩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하지만 내장 그래픽 코어를 CPU에 탑재한 i 시리즈는 외장 그래픽 카드와 역할이 중복되기에 효율적이지 않다. 게다가 3D 작업이나 멀티태스킹을 할 때 인텔의 내장 그래픽 카드가 CPU 메모리를 짐작해 퍼포먼스가 다소 떨어지는 아쉬움도 있다. 그래서 맥북에어는 초저전력 CPU Intel Core 2 Duo SU9400을 탑재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배터리 타임을 늘려주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추가하는 걸 선택했다. 여기에 SSD(플래시 메모리 타입의 하드라고 이해하면 된다) 하드의 은총이 더해진 맥북에어는 부팅을 비롯해 작업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 3. 그래픽 카드

맥북에어의 그래픽 카드는 NVIDIA GeForce 320M이다. 모바일용인 데다 메모리로부터 256MB를 나눠 쓰기 때문에 데스크톱용으로 출시된 녀석과 비교하는 건 곤란하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데스크톱용과의 비교다. 내장형 그래픽 카드와의 차이는 넘사벽이다. 무슨 말이고?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 2를 노트북에서 돌릴 수 있을 정도(물론 어느 정도의 옵션 조정은 필요하리)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 스마트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트위터만 잘 봐도 당신 스마트폰에 생기가 들 거다.



### STEP1 계정 생성!

트위터는 '종달새'라는 의미다. '지저분해 ~지저분해' 하며 140자 정도를 떠들 수 있는 간단한 블로그다. 일단 계정을 만들자. [www.twitter.com](http://www.twitter.com)에 접속하면

### STEP2 팔로우(FOLLOW)!

트위터도 블로그 이웃처럼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팔로우'라고 부른다. 친구가 있어 당신 글을 읽어줄 것 아니냐? 유명한 트위터 유저로 팔로우를 하거나, 트위터 모임에 가입해 그곳 사람들과 맞팔할 수도 있다.

### STEP3 팔티(RT)!

이제 팔티까지 해볼 때가 됐다. 마음에 든 글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을 나의 팔로워나, 팔로우한 친구에게 전송하는 걸 말한다. 당신이 화상상에서 큰일을 보는데 후자가 떨어져 날라리엔 트위터에 접속해 '아 낚 후지 없음에 XX 팔로워 감사'에 있는 낚시꾼 후지 좀 갖다주실래?'라고 팔티하면 된다 소라다.

### STEP4 언팔(UNFOLLOW), 그리고 블럭(BLOCK)!

이쯤되면 당신의 트위터는 다른 이들의 글로 도배됐을 확률이 높다.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의 일상을 트위터에 써지르는 인간도 많다. 그럴 때는 상대의 프로필을 클릭한 후 좌용히 언팔(UNFOLLOW) 버튼을 선택하면, 그는 이 인간과 트위터에서 상종하고 싶지 않다면 블럭(BLOCK)하면 된다. 어때 간파하?

이제 MAXIM KOREA의 트위터를 팔로우할 차례다. 맞팔해주지 않았다고 울고 불고 짜진 마라. 대신 화보 촬영의 생생한 현장을 트위터로 연보해 해주겠다. MAXIM 트위터의 글에는 글음 옆에 알티하여 팔팔팔음을 증명한다던 한 그 녀들의 사진을 MAXIM에서 꺼냈어 출처도 모른다. MAXIM은 관대하리!

MAXIM KOREA 트위터  
[twitter.com/maximkorea](http://twitter.com/maximkorea)



## Versus.1 Resolution

### 에버라텍 ES-110\*

CPU Intel Core 2 Duo SL2300  
DISPLAY 11.6inch  
RESOLUTION 1366\*768pixels  
GRAPHIC CARD GMA4500 MHD  
WEIGHT 1.4kg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다고 평가받는 에버라텍의 11인치 울트라신 노트북이다. 1366\*768의 해상도는 확보했지만 CPU가 맥북에어 11인치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픽 카드 역시 마찬가지로, GMA4500 MHD는 (아비노보)처럼 한참 묵은 게임을 돌릴 정도는 되지만 너무 말라매다. 어디다 대고 내장 그래픽 카드를 외장 그래픽 카드와 비교하고 있애? 간헐지개



맥북에어 11인치 제품은 CPU를 i430에서 i643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RAM도 3GB를 추가해 총 4GB 내장 SSD 하드 역시 64GB에서 128GB로 업그레이드 역시 **좋은 업그레이드했을 때 예상 금액은 170만 원 내외다.** 사실 본인이 무언가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는다면 기본 사양의 맥북에어도 충분하다. 하지만 일단 지르고 난 후 추가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니 신중히 고려할 것. 기본 사양은 **1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슬슬이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 맥북에어의 아름다움 자체라고 쓰고 또 알뜰이 늘 보더라도 읽는다는 본 순간 당신은 버티셀 수가 없을 거다. 종이처럼 얇지만 읽은 두께의 노트북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다. 맥북만의 알티티지 트랙 패드 역시 마찬가지로 트랙 패드를 읽은 칩에 손가락으로 컨트롤해보지 않았다면 믿을 하지 마라. 여기에 충족되면 다른 노트북의 트랙 패드는 오징어처럼 보일 거다. 레노버의 팔공이 아니라, 신대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한 게 바로 알티티지 트랙 패드다. 마우스 따위 필요없는!

## Versus.2 CPU

### 소니 VAIO VGN-TT11V11\*

CPU Intel Core 2 Duo SL2300  
DISPLAY 11.1inch  
RESOLUTION 1366\*768pixels  
GRAPHIC CARD GMA4500 MHD  
WEIGHT 1.3kg

→맥북에어와 매우 근접한 사양을 보인다. CPU는 동일하니 패스. 무게는 맥북에어보다 약 300g 정도 무거운 편이다. 문제는 역시 그래픽 카드다. 내장 그래픽 카드의 한계는 명확하다. CPU의 메모리를 잠식하므로 3D 가속이 필요할 때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아.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돌리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 Versus.3 Graphic Card

### 에이서 Aspire 5745P-354G32M9\*

CPU Intel Core i3 370M  
DISPLAY 15.6inch  
RESOLUTION 1366\*768pixels  
GRAPHIC CARD NVIDIA GeForce 320M  
WEIGHT 2.7kg

→가격을 떠나 11인치 모델이던 점에서 이웃이다. 해상도는 맥북에어와 같고, CPU의 성능은 오히려 한 수 위지만 어지간한 것보다 무거운 2.7kg의 무게는 이 제품이 랩톱형 노트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11인치 노트북은 맥북에어의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모델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결론.

## Versus.4 Thickness & Wight

### 11인치 노트북 중에서는 거의 없다.



→레노버의 울트라신 아이디어 퍼드 U280\*이 맥북에어에 명함을 내밀 수 있다. U280은 18mm의 두께에 1.39kg의 무게에 불과하여 12.5인치에 3.5UM(자전차) CPU를 탑재했고, 320GB HDD, 최대 4GB RAM 장착이 가능하다. 맥북에어를 출시하기 전이었다면 슬림한 자체에 모두 간파했겠지만 이미 늦었다. 레노버 지못미!



MAXIM KOREA 트위터  
[twitter.com/maximkorea](http://twitter.com/maximkorea)





- 1) iPad 635,000원 APPLE 16GB 와이파이 모델 기준
- 2) 3D 블루레이 타이틀 33,000원 SONY PICTURES
- 3)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금속 문동화 가격 미정 에스피엑스 3-2) 289,000원 에스피엑스
- 4) 2인치 위 시스 패브릭 외해 카디건 가격 미정 뷰앤조이
- 5) 의자 위 빨간색 패딩 베스트 가격 미정 출하우스
- 6) 30 노트북 1,099,000원 MSI
- 7) 영국 디자이너 엘리 카시모프와 칼라베라이션 한 아이폰 케이스 70,000원 안케이스
- 8) 카카오톡 748,000원(기본 패키지 기준)SONY
- 9) 굿윌크로울 와이인 크리텔링 가격 미정 발리니
- 10) 분홍색 패딩 무츠 169,000원 러버덕 by 각샵
- 11) 빨간색 장갑 20,000원데 스타일러스
- 12) 장갑 안에 있는 노란색 곰돌이 귀걸이 39,000원 티니위니
- 13) 분홍색 다용도 수납 케이스 129,000원 윌트디즈니
- 14) 청양 연두색 장이 경쾌한 락 59,000 뉴에라 by 핏츠온
- 15) 상자 안에 담긴 휴대용 고리, 마린코,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213,000원 스타일러스 by 굿문류
- 16) 주황색 빈지갑 129,000원 티니위니
- 17) 영국 디자이너 엘리 카시모프와 칼라베라이션 한 아이폰드 케이스 70,000원 안케이스

스타일러스는 우리에게도 반겼다. 미국의 10대들이 12명씩 색소를 가장 많이 하는데, 이 현상을 스타일러스 효과라고 한다.

여자  
 하얀색 후드 티셔츠 39,900원 라플레티  
 체크무늬 치마 255,000원 티미힐피거  
 빨간색과 핑색의 커뮤 스킨 35,000원 셀빈클라인 언더웨어

남자  
 청양 연두색 티셔츠 가격 미정 씨피컴피니  
 빨간색과 핑색의 커뮤 스킨 48,000원 셀빈클라인 언더웨어  
 장바지 165,000원 힐피가데남



1)리자 위 에발 장신들 한 할간세 스페이드 순더케 179,000원 리라레드

2)리자 위 리가 더린 크리스 코트 859,000원 시스팀

3)MACBOOK 1,400,000원데 PRO APPLE

4)함강 15,9000원 LOGITECH

5)모조 스개 원당관 79,000원 장글

6)니조 슈프림 2,000원 니조 벨 크란디 3,500원 티코벨

7)카메라 899,000원기본 패키지 기준) SONY

8)다이어리 30,000원 CIAK Journal

9)목걸이로 귀걸이 세트 가림 미정 오로시아

10)아이디어 대한 디올의 하생이 향간장 향수 145,000원 웨이 블루밍 부케

30ml 71,000원/ 50ml 98,000원/ 100ml 145,000원 크리스찬 디올

11)가장 인기 있는 테일러 700ml 42,000원 호세 쿠엘보

12)두 개의 반지를 붙이면 허벅지 되는 커울링

여자 반지 159,000원, 남자 반지 179,000 로이드

13)3가지 다른 발자국 모양의 가림 각 148,000원 모두 프리마 콜라베

14)리본 장식으로 엿을 낸 에나멜 소재 구두 258,000원 소다 by DFD

15)좁은 와인색과 검정색 가죽 스패치에 각 99,000원 모두 로이드

16)하얀색 상지 안에 들어 있는 빨간색 보석 반지 499,000원

진주 반지 199,000원 모두 스타일러스 by 글든류

17)은색 반글 가림 미정 오로시아

18)검은 테 인강 370,000원 자람시 by 디리인테네셔널

19)흰색과 검정 조합의 인강 400,000원 로퍼 by 디리인테네셔널

20)할간색 가죽 원글부츠 379,000원 엑스아이엑스

21)검장색 가죽 장갑 98,000원 지이코

22)보석 장식이 화려한 클러치 백 가격 미정 오로시아

23)검은 황색 스퀘어 128,000원 프리마 콜라베

24)남색 스카프 128,000원 타이힐피거

25)갈색 구두 596,000원 소다 프리미엄 벨라리오

26)남색 바탕에 줄무늬 머플러 148,000원 올린

27)할간색 타이 58,000원 지이코

28) T 스타캡 장신을 단 검장색 구두 216,000원 일모스트릿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날에 숨지는 사람이 평소보다 12.4%나 많다.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비싼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

여자

파란색 셔츠 가격 미정 티앤지티 무언

니트 치마 125,000원 힐피게터님

남자

흰색 셔츠 105,000원 힐피게터님

검은 황색 바지 265,000원 시스팀 올브



4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19

20

22

23

24

- 1) 레드론 500,000원 SENNHEISER
- 2) 방울 달린 하얀색 니트 티셔츠 가격 미정 클럼오나코
- 3) 빨간색 체르무니 머플러 145,000원 타이힐피거
- 4) 최상급 프리미엄 위스키 700ml 200,000원 WINDSOR XR
- 5) 보드게임 15,000원 RIOGRANDE 보드게임 43,000원 MAYFAIR
- 6) 프러두얼 65,000원 BANDAI
- 7) 음반 16,500원 수진 보날
- 8) 피규어 97,200원 BANDAI
- 9) 붉은 리본 동어캔 고급스키온 빛의 심페인 85,000원 펄 포르통 루즈
- 10) 하늬색 운동화 145,000원 리코스테 by 룰잇볼
- 11) 색상색 실을 엮어 화려한 무늬를 낸 카디건 389,000원 하울링 by 웨어하우스
- 12) 초록색 만디 부터 3장 55,000원 모두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 \* 빨간색 하우스 투스 체크 벨트 38,000원 타이힐피거
- 13) 머플러 아래에 있는 양말 3족 각 12,000원 모두 해피식스 by 웨어하우스
- 14) 모티프 99,000원 BENO

루돌프 손목은 원래 겨울철만 되면 성 호르몬 분비로 힘이 부러진다.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볼 수 있는 무성한 털의 루돌프는 모두 고추기 찰진 눈물이다.

14

크리스마스 노랑이 뽀빠니 니트 200,000원 헤지스  
니트 안에 인은 체크 셔츠 100,000원 헤지스  
화식 바지 188,000원 자이코



1

2

3

4

5

7

6

8

9

11

10

13

12

WANT YOU



### 1.MSI / FR600 3D

굳이 3D 영화를 보려고 번거롭게 극장을 찾을 필요 없다. 이제 3D 영상을 노트북으로 집에서 편하게 감상하자. MSI의 3D 노트북 FR600 3D는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를 탑재해 마음에 드는 블루레이 타이틀을 손쉽게 즐길 수 있다. 넉넉한 15.6인치 화면, 인텔 6-4800 CPU, USB 3.0 포트 탑재는 덤이다.

가격 1,099,000원 문의 [msiway-os@co.kr](mailto:msiway-os@co.kr) 1644-4038



### 2.APPLE / IPAD

KT에서 아이패드도 정식 발매한다. 제품 설명은 그동안 지겹도록 했으니 생략. 출시하는 늦은 감이 있지만 개성까지러서 모든 게 용서된다. KT는 SKT에서 경쟁 모델 갤럭시탭의 가격기가 절반 약 100만 원 내외를 높게 책정한 걸 보고 민생을 불쌍을 거다. 물론 갤럭시 유럽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패드 때문에 판매가 지지부진했던 30만 원 정도 폭등 가격 인하를 강행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가격 635,000원 (16GB 와이파이 모델 기준) 문의 [www.show.co.kr](http://www.show.co.kr) 1588-0000



### 3.SONY / NEX-3

미라리스 카메라 중 가장 인기 많은 NEX 시리즈의 보급형 기법게 넘겨지는 플라스마 채집과 컬러풀한 색상이 트레이드마크다. 크리스마스 선물 패키지로 남자의 로망 핑크 더블 렌즈 키트 이 출시되었으니 그동안 눈독을 들이던 사람들이 구매했을 것이다.

가격 748,000원(키트 패키지 기준) 문의 [www.sony.co.kr](http://www.sony.co.kr) 1588-0911



### 4.SONY PICTURES / CLOUDY WITH A CHANCE OF MEATBALLS

강고 베고프 때 이 영화 (하늘에는 음식이 내린다)만큼 볼 생각 따윈 마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장면을 3D 기술로 생생하게 그려냈다. 원작에 대한 기대 때문엔 영화의 만족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크리스마스에 부담 없이 즐기기는 충분한 작품이다. 가격 33,000원 문의 [www.sonypictures.co.kr](http://www.sonypictures.co.kr) 02-563-4000



### 1.TACOBELL / NACHOS BELL GRANDE

나오는 맥주를 부르고, 맥주는 속 취를 부른듯 타코벨의 나초 벨그란데는 주문 즉시 매장에서 만들어 테이크아웃도 가능하다. 단편질 덩어리 강냉이와 나초 치즈 소스가 일교를 흡수해서 더디게 만들어준다. 술이 약한 사람에게도 그

만인 안된다. 인성 고기와 토마토가 나초집 위에 얹어져 먹기 편하고 가격도 착하다. 다이아터만 가면 헬레 내놓음...  
가격 3,500원  
문의 [www.tacobell.co.kr](http://www.tacobell.co.kr) 02-703-6866



### 2.SONY / NEX-5



NEX-3와 달리 풀 HD급 동영상 (1920x1080) 촬영을 지원한다. 메탈 바디가 고급스러움을 더해, 컨버터와 어댑터로 일파 마운트 렌즈에도 호환할 수 있다. 무엇보다 DSLR 카메라 특유의 감이 있는

화면을 동영상 촬영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  
가격 898,000원(키트 패키지 기준) 문의 [www.sony.co.kr](http://www.sony.co.kr) 1588-0911

### 3.APPLE / MACBOOK PRO

맥북에어가 매력 영아리지만, 맥북프로가 천하구라기 취급을 받을 필요는 없다. 맥북에어 13인치가 맥북프로 13인치보다 빠른 게 느껴지는 건 SSD의 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RAM, SSD를 장착한 상태라면 맥북프로

의 퍼포먼스가 더 뛰어나다. 사람들이 맥북프로로 오징어처럼 여기며 싸게 파는할 때 때때로 영양실적만 사삼을 영성하도록!  
가격 1,400,000원 대 문의 [store.apple.com/kr](http://store.apple.com/kr) 090-330-8877



### 4.LOGITECH / C910



이제는 웹캠도 풀 HD(1080p)급 영상 녹화가 가능한 시대다. 로지텍의 C910은 HD급(720p) 화질로 영상 통화도 즐길 수 있지만 장거리 연애하는 커플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다. 웹캠 영쪽의 마이

크로 생생한 시운드 즐기는 것도 OK! 그 차나 웹캠이라는 말을 듣는 자마자 아한 동영상상 때때로 너 선택은 X 집고 반성해라!  
가격 15,900원 문의 [www.logitech.com](http://www.logitech.com) 02-761-1207

# X-MAS

지름 리스트



화보에서 숨은 제품 핫리스트 수고했다. 당신이 궁금에 하던 제품의 정체를 알려주겠다.





### 1. SENNHEISER / RS 180

다세대 주택 또는 층간 소음이 심한 곳에 살면 음악을 크게 듣는 일은 포기해야. 그렇다고 모기소리만 큼 작게 음악을 들자니 감칠맛이? 좋은 대안이 있다. 켈하이저 RS 180을 영리해라. 실내용 헤드폰이 라 외부 소음 차단 효과는 떨어지지 않지만 패시브로도 웅장한 전향(저역)의 음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무선 헤드폰이라서 선에 지치 일도 없다. 다소 비싼 가격을 제외하면 흠 잡을 데 없는 제품이다. 가격 500,000원 문의 [www.konnav.com](http://www.konnav.com) 02-533-3962



### 2. 수진 보일 / THE GIFT

올해 막을 내린 영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 출신 수진 보일의 2번째 음반이다. 음반보다 가수가 더 화제를 모은 신데렐라 소프라노의 가수는 사람들의 관심을 식으면서 자연의 대응에 앞서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괜찮? 그녀의 음반은 빌보드 소식과 함께 아름다운 사진 예뻐 1위를 차지했다.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이번 음반 (THE GIFT)는 '더 퍼펙트 노벨', '오, 홀리 나이트'가 수록돼 크리스마스에 듣기에도 그만이다. 가격 16,500원 문의 [www.sonymusic.co.kr](http://www.sonymusic.co.kr) 02-530-0900



### 3. BANDAI / MBF-P02KAI

세상 참 좋아졌다. 이제는 프라모델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움을 넘어서 관절을 자아낼 정도다. MBF-P02KAI(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의 예뻐한 보디라인과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붉은 색 짙은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스키를 연상시키는 잘 빠진 일본도 개로 한껏 멋을 낸 프라모델 하나만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질 거다. 원래 시그라온 휴일은 집에 차박해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게 최고다. 당신도 일집어? 가격 66,000원 문의 [www.gundam.co.kr](http://www.gundam.co.kr) 02-701-7270



### 4. BENQ / EW2420

벤쿠의 EW2420은 넓은 시야각이 장점이다. 178°의 시야각을 제공해 어떤 방향과 각도에도 같은 밝기와 색상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당선이 누워서 모니터를 봐도 시야각 때문에 굴치 아플 일이 없다는 소리다. 풀 HD해상도(1920x1080)는 물론 VA LED 패널을 사용해 명암비 제연도 탁월하다. 15mm 두께에 슬림하고, 디자인도 수목화 죽자처럼 깔끔하다. 24인치 모니터를 명암비 생각이었다던 사복 직원 제품이다. 가격 398,000원 문의 [www.benq.co.kr](http://www.benq.co.kr) 1688-3666



### 5. RIOGRANDE / FELIX

펠릭스는 어렸어서 가볍게 즐기는 캐주얼 게임이다. 룰은 간단하다. 8번의 경매 후 획득한 카드 점수와 남은 돈의 합이 높으면 승리. 퍼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는 게임으로 적당하다.

### MAYFAIR / SETTLERS OF CATAN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졌을 법한 (카탄)의 세 버전 카탄성에 올라올은 사명감의 땅파리기 경쟁을 다룬 게임. 1995년 독일에서 올해의 게임상을 받은 직공급게 우연성과 필연성을 잘 배워낸 보드게임의 진수를 보여준다. 혼자 할 수 없다. 게 단정했기. 가격 각각 6,000원, 43,000원 문의 [www.lubicon.com](http://www.lubicon.com) 02-522-8802

### 6. BANDAI / BOA HANCOCK

(원피스)를 좋아한다면 침투해의 여제 보아 Hancock 모를 리 없다. 이미 나미와 함께 수많은 동인계의 주인공에게 과연 좋은 일인지는 의문이지만으로 등극한 지 오래다. 밀짚모자를 쓴 루피를 일면다심 사령하는 그녀가 밀짚모자 세 시한 기모노로 무장한 그녀의 피규어를 곁에 두고 햇빛을 당겨보자. 늘 무언가를 요구하는 여자 친구보다 밀짚모자신을 바라보는 보아 Hancock도 매력적이지도 모를 일 아닌가? 가격 97,200원 문의 [www.gundam.co.kr](http://www.gundam.co.kr)







하간새 티셔츠와  
스커트, 신발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VIT

유이  
검정색 상의 목걸이 주황색과 노란색 반지  
흰색 주황색 펠피 모두 제이이앤벨  
빨간색 로피 댄스 레깅스 헬스아이엑스  
쿠찌 장식의 구두 슈츠원

릴제이

매달 장식이 화려한 목걸이 빨간누보  
장 장식이 문보이는 베급 티셔츠 제이이앤벨  
오피프로 장식한 펠피 빨간누보  
검정색 쇼츠 에디터 소장  
하얀색 퍼 부츠 기이아



## TINA

**노래 습씨가 끝내준다. 당신 고품의 끝은 어디인가?**

아직 시범해보지는 않았대(웃음). 평소 친구들인 데리아어 캐리의 노래를 즐겨 부른다. 지금은 가끔 '백사리'가 나지만 고품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노래 연습을 도대체 얼마나 한 건가?**

인천국제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반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연습하다 교무실에 끌려간 적도 있다. 학교를 관두고는 하루에 적어도 8~9시간씩 연습했다.

**외동딸이 학교를 그만두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을 거다.**

물론이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부모님을 설득했다.

**지금은 호숫해하시겠다.**

방송을 보시고 "역시 내 딸이 재일에 빠다"고 말씀하셨대(웃음).

**취미는 요리. 특기는 집안일이라니 숙소에서 요리는 때때로 당신이겠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엠베에게 먹고 싶은 게 없느냐고 먼저 물어본다.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

**그럼 엠베들이 가장 좋아하는 당신의 요리는?**

계란말이. 숙소에 참치가 있으면 참치 계란말이. 김치가 있으면 김치 계란말이! 내가 먹어도 정말 맛있다.

**당신은 한 미디로?**

재미있는 사람 간혹 나를 처음 만나면 무뚝뚝해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나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상형은?**

무뚝뚝하지만 말 한마디로 나를 감동하게 하는 귀공자 스타일.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은?**

비다가 있는 따뜻한 나라로의 여행.

**마지막으로**

'나는 VNT의 \_\_\_\_\_ 담당'이다.

막내 막내라서 엠베들에게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대(웃음).



티나  
귀족 모양의 귀걸이, 머리 장식이  
돋보이는 목걸이, 오른손에 착용한 반지  
모두 제이앤엘의  
상자기 컬렉션 목걸이  
왼쪽 가슴 위의 브로치, 모두 밸런스  
동영상 등 티나  
쇼츠 에디션 소장  
크림색 가죽 부츠 기어아



## YUMI

예고 재학 중이다. 춤, 노래 이외에도 끼가 넘칠 것 같다.

춤, 노래는 물론 연기도 좋아한다. 1학년 때 연기 실기는 전교에서 손에 꼽을 만큼 성적이 좋았다. 기회가 된다면 드라마에도 출연해보고 싶다.

고운 외모와 달리 스트리트 댄스가 특기라고 들었다.

17세 때 춤에 푹 빠졌다. '고릴라 크루'라는 댄스팀의 막내 시절 언니, 오빠에게 다양한 종류의 스트리트 댄스를 배웠다.

춤을 추며 어떤 기분이 드나?

춤을 추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가 좋다. 거친 비트에 몸을 맡길 때면 정말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

당신 미니홈피에 들어가 봤더니 사진첩이 많혀 있었네!

데뷔했으니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잠시 달아뒀다. 앞으로는 활동하는 모습을 올릴 예정이다. 참고로 사진첩에는 셀카가 아주 많다(웃음).

수업은 오연남이 평을 최고 통쾌하겠다. 셀카를 잘 찍는 당신만의 노하우는?

입을 고양이처럼 모으고, 카메라를 45°위로 쳐다본다.

이상형은?

비의 눈웃음을 가진 남자답고 유머러스한 사람.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은?

루돌프!

마지막으로

'나는 VNT의 \_\_\_\_\_ 담당'이다. (외모(웃음) 담당이고 예교와 '밍'을 담당한다. 이상기를 왔다 보면 다른 멤버는 모두 웃고 있는데 나만 밍 때리고 있던 적이 많다. 밍때리는 생각이 올 정도로 자취)

유미

프라이빗 작업 팀이스 푸마  
인형이 달린 브로치와 반지, 호루라기 목걸이  
모두 발렌노브  
빨간색 예니클레트 예디터 소장  
에니클 슈즈 슈즈원

대뷔곡 '소리'에서 노래의 시작이 담긴  
뿐이다.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나?  
시작은 무조건 신이 나에게 폭풍 간지는  
기쁜! 춤을 뽐우는 데 올랐었다.

첫 무대는 만족스러웠나?

다행히 그동안 연습한 만큼 별다른 무  
리 없이 소화했다.

취미가 뭐라고 들었다. '작사의 신'은  
언제 강림하나?

일상생활 중 불편한 가사가 떠오른다.  
그래서 노트와 펜은 내 생활필수품이  
다. 보통 기분이 우울하거나, 날씨가 흐  
려 무릎이 육신거릴 때 영감이 떠오르  
는 경우가 많다.

요즘 쓰고 있는 가사를 실력만 귀뜸해  
달라.

슬픈 사랑, 그리고 이별에 대한 내용이  
다. 자세한 건 비밀!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가?

경험에 상상의 힘을 보탤다. 아직 어려  
서 경험은 많지 않다(웃음). 앞으로 경험  
을 많이 해보고 싶다.

표정 연기와 성대모사의 달인이라고 들  
었다.

익살스러운 악동 표정을 잘 짓는다. 예  
쁜 표정을 지으면 싸수 없게 보인다(웃  
음). 확요비 성대모사는 곧잘 하는 편  
이다.

레퍼가 R&B 기수를 성대모사 하는 건 처  
음 됐다. 뭘은 누구에게 배웠나?

연습장이 되기 전에는 독학. 되고 나서  
는 하니 레퍼리와 영호 선생님에게 정  
식으로 배웠다.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레퍼 선배가 있  
다면?

윤미래 선배님! 다이나믹 듀오와 슈프  
림 팀(까)원래도 좋다.

당신은 한 마디로?

얌파, 벗겨도 벗겨도 늘 새로운 사람이  
대(웃음).

그렇다면 이상형은?

불수록 매력 있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  
재미있고 잘 생기면 금상첨화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은?

남자친. 아니 음악 방송 1위!

마지막으로

'나는 VNT의 \_\_\_\_\_ 담당'이다.

분위기가 팀 분위기가 내 기분을 따라가는 것 같다. 분위  
기 메이커라고나 할까(웃음)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은 없나? 또? 또?

릴제이  
방간색 민지 제이미엔벨  
강장색 홍지 집안 알엘비  
금색 옥걸이 깃털이 달린 브로치  
모두 발렌투보  
분홍색 민스매 티셔츠 프제디  
검정색 스포츠 에디터 소탕  
강장색 에이프 워커 부츠  
기아아

# VNT



### 첫 화보 촬영이다.

(유미) 독자에서 모델로 업그레이드였다. 신기하다!

(테나) 콘셉트가 다양하고, 촬영장 분위기도 좋아서 즐거웠다.

### '김창환 사단의 첫 아이돌 그룹'이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진 않나?

(유미) 오히려 우리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 첫 방송 때 대표님, 건모 삼촌, 미경 언니, 클론 삼촌이 모두 총출동해서 대가실이 가득 찼다. 다른 가수에게 민망할 정도였다(웃음).

### 자상대 데뷔 방송이 나간 후 주말 내내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였다.

(모두) 우리가 놀랐다. 실시간 검색 순위는 특별한 사람의 것으로 생각했다. 언제까지 순위권을 유지할지 지켜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 술직히 말해라. 정말인가?

(릴제이) 사실 예상했다(웃음). 지금은 10명 중 1명 정도가 우리를 알겠지만, 이 책이 나올 즈음이면 10명 중 9명 정도는 알 거라 기대한다(웃음).

### 자상대 데뷔 무대라서 긴장도 많이 했겠다.

(유미) 방송 직전에 건모 삼촌이 "부담 갖지 말고 노래방 왔다고 생각해"라고 말씀해주셨다. 부담 없이 편하게 논다는 생각으로 무대에 올랐다.

###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유미) 솔직히 첫 무대에는 관객 호응도 거의 없어서 무심고 떨었다. 하지만 여러 번 무대에 서다 보니 안무를 따라 해주는 편도 생겼다. (릴제이) 책이 나올 즈음에는 무대로 뛰어드는 팬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전에

내가 흥분해서 객석으로 뛰어들면 어떡하지(웃음)

### MR을 제거한 라이브 영상(녹음된 배경음을 제거한 영상)과 뮤직비디오가 큰 차이가 없다. 요즘 아이돌답지 않은가 창력이다.

(모두) 연습, 연습, 그리고 또 연습! 우리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룹이다. 피부와 가는 시간을 아껴 노래와 춤을 연습한다. 연백 수행하듯 온종일 뱃을 보고 노래했다. 대표님도 가수는 노래를 잘할 때 가장 빛이 난다며 무대에 오르면 예뻐 책까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셨다.

### VNT 음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릴제이) 우리 음악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두 좋아하실 거다.

(테나) 실제로 모 음원 사이트에서 우리의 음원을 구매한 사람 중 10대와 40대 비율이古巴 비슷했다.

### 그룹 VNT의 라이브는 누구인가?

(모두) 건모 삼촌이라고 할까? (웃음) 우리는 신인이니 모두가 라이브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발전하고 싶어서 현재 최고로 인정받는 그룹 2티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룹이기도 하다.

### 다음에 MAXIM과 화보 촬영을 할 생각이 있나? 없더라도 있다고 말해라.

(모두) 물론! 불러만 달라. (릴제이) 하지만 다음 화보는 소녀처럼 찍어달라. (유미) 아니다. 릴제이는 착한 콘셉트가 잘 어울린다.

녹음 완료! 이제는 배도 박도 못한다.



티나

귀걸이와 팔찌 모두 제이미앤벨

입술 라인 티셔츠 푸마

오른팔에 착용한 초커 기어아

소형금 장식이 특징인 벨트 기어아

스츠 에디터 소장

금색 귀걸이 장식으로 었을 넌 구두 슈즈원

IN DA CLUB

# J&B PARTY

BY 김해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S **J&B**

푸시렛 돌스보다 더 핫한 퍼포먼스 그룹 J&B Dolls가 파티에 등장하는 순간 클러버들은 시선을 빼앗겼다. 이 페이지를 펼친 순간 당신도 이미 그녀들의 노에다.

## J&B DOLLS HOT DEBUT!

10월 16일, 서울 이태원의 클럽 VOLUME에서 사이키델릭 조영에 취해 자유롭게 몸을 흔들던 클러버들이 일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이날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J&B Dolls를 보기 위한 파티 퍼플로 스테이지 곳곳이 순식간에 혼잡해졌다. J&B Dolls는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J&B를 대표하는 퍼포먼스 팀으로 멤버는 여우, 유림, 은송, 시후, 해민으로 구성됐다. 착한 몸매는 물론 큐티, 섹시 파워풀 등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퍼포먼스를 모두 소화하는 J&B Dolls의 첫 디지털 싱글 앨범을 듣고 싶다면, J&B 홈페이지(jnbsearch.co.kr)에서 다운로드 하자. 귀에 착착 감기는 후렴구가 중독성이 강한 타이틀 곡 'LOOK DAT KILL'을 비롯해서 정통 하우스풍인 'Start A Party', 트렌디한 일렉트로니카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HOT', 슬로 하우스 발라드풍인 'Tonight'을 들을 수 있다. 하나 데, 그녀들을 실시간으로 만나고 싶다면 J&B 페이스북([facebook.com/jnbsearch](https://www.facebook.com/jnbsearch))을 놓치지 마라.





# J&B

## EXPECT THE UNEXPECTED

그녀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다. 수컷들의 눈빛은 이미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어두운 클럽 안에서 굳이 그녀들의 모습을 담겠다고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수컷들의 자태를 보고야 말았다. 아직까지 시끄하게 클러빙하던 차도남들은 온데간 데없었다! 이날이 첫 무대라던 J&B Dolls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녀들의 무대 중간중간에는 스테이지 곳곳에 배치되어 클러빙들과 함께 춤을 추던 J&B 댄스팀이 깜짝 게이미라 공연을 선보여 클럽의 열기는 그야말로 절정으로 치달았다. 당신도 그녀들의 색시한 퍼포먼스를 직접 봤다면 분명 집에서 고성능 DSLR을 챙겨오지 않은 걸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다. J&B Dolls는 상상 이상을 보여주었으니깐,

 J&B Dolls



party  
party



### HOT CELEBRITY

할루윈 나이트를 즐기 위한 셀러브리티의 행렬은 파티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 이날 첫 번째로 무대를 달군 주인공은 역시나 J&B Dots였다. 지난 파티 때 이미 J&B Dots의 핫한 퍼포먼스에 감동여진 클러버들이지만 친정에 설치된 특수 무대를 타고 내려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그녀들의 예상치 못한 도발에 또 한 번 쓰러졌다. 슈퍼팀 팀, UV, 장근석&빅브라더, ROCADEMY도 물론 우리를 즐겁게 해줬지만 J&B Dots의 색시한 퍼포먼스만 하겠나! 이제 그녀들이 없는 파티는 삼삼해서 어떻게 가나니?





## HALLOWEEN PARTY NIGHT

10월 30일은 대령의 할로윈. 헛한 파티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었다. 참가가 발간한 그날 지나치는 거 봤나. MAXIMO 파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또 갔다. 할로윈 데이에 친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면 애석하게도 당신은 간호사, 바니걸, 컷우먼으로 변신한 그녀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다. 이날 할로윈 퀘리톤 그랜드 시어터에는 할로윈 나이트를 볼대주기 위한 파티 파들로 빌 디들들이 있었다. MAXIMO 할로윈 파티 현장 속 그녀들의 모습을 전폭 담아 왔으니 당신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할 거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는다면 QR 코드를 스캔해 가나 MAXIM 홈페이지로 직행할 것

# Halloween

## J&B Dolls

스타일리시한 프리미엄 스카치whisky J&B를 대표하는 퍼포먼스 팀으로 지난 6월 공개 오디션에서 순수 아마추어 400여 명의 후보 가운데 80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여성 5인조 그룹이다. J&B Dolls는 공식 사이트(<http://bbsotch.co.kr>)에서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파티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유림, 헤민, 은송, 여을, 시후.

파티 현장  
침투하기



TAYLOR COLE



# The main event

요즘 아메리칸 수컷들은 월요일 밤마다 이모님 게모인하듯 모여 TV를 시청하는 재미에 빠져있다. 드라미(드라마) 속 데일러 콜을 보기 위해서  
여체 강장엔 유독 까다로운 한국 MAXIM 독자들까지도 그녀가 시문집을 수 있을까? 거, 어디 한번 봅시다.  
BY BREKKE FLETCHER PHOTOGRAPHS BY KAYT JONES



"어리는 확실히 컸는데  
위도 어떻게 좀 해볼까요?"

## 미드 <로스트>가 사라지고

(24)도 끝나고 영 심심한 미드 팬들에게 삼삼한 소식이 있다. 아름다운 처자 테일러 콜이 귀여운 엉덩이와 미소로 새로운 미드 시리즈 <디 이벤트(The Event)>를 장식한다. 약혼자가 사라진 뒤 미국 역사 뒤 숨겨진 음모와 비밀에 접근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이 미드가 미국 현지에서 훌륭한 재미를 끌고 있다. 특히 비키 로버츠로 등장하는 테일러는 팜 파탈 이종 스파이로 등장해 못 남성의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화면 속 모습에 속지 마라. 그녀의 사랑스러운 몸매 뒤편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 언제 연가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고등학교 때 배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 당하고 모델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무릎이 회복되고는 나의 출세작 <서머랜드>의 오디션에 참가해서 LA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제 하트메요

### 고양 텍사스가 그림지 않아요?

난 정말 텍사스를 사랑해요. 자주 가긴 못하지만요. 사람들이 아주 좋아요. 가기도, 거기도 없어요.

<서머랜드>의 동료 배우들이 다음 요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투루 블러드>의 라이언 퀸트, <해어 스프레이>의 잭 예프론, <트와일라잇> 시리즈에 출연한 켈란 루츠, 거기에 당신까지. <서머랜드>는 정말 많은 스타를 배출했군요.

맛있요. 많은 인기 스타가 이름을 알렸죠. 그리고 라이언과 나는 3년 반 동안 사귀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예요.

### 헤어핀 남자친구를 TV에서 계속 보는 느낌은 어떤가요?

만약 백역과 실제 그 사람 사이에 선을 긋지 못한다면 배우와 연애를 해선 안 되겠지요. 우리 방송이나 케릭터, 스토리와 상관없이 데이트를 했어요.

### 이제 새 시리즈에 대해 얘기해보죠.

아무리 걸로든 착하고 멋진 여자라도 속내는 다를 수 있었어요. 제가 알든 비키라는 여자는 외관과 내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예요. 사람들이 그녀를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녀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가 많은 일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난 악한

사람일지도 자기 스스로를 나쁘다고 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아주 복잡한 인물이고 진짜 같은 겉집이 쌓인 비밀을 안고 있죠. 다양한 연을 가진 인물을 연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 인생에서 절대 밝힐 수 없는 이벤트(사건)가 있다면 이 기회에 살짝 밝혀주세요.

만약 있다고 해도 내 입으로 말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자신의 실수에서 많은 교훈을 배워요. 나도 종종 그렇고요.

### <디 이벤트>에선 액션이 아주 많이 나와요. 재미있는 촬영링 에피소드가 있나요?

내 자프의 뒤쪽 티어아가 최근 사라졌어요. 분명 누군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가 촬영하던 자프이 꽤 험한 곳이었다고요. 아마 도둑맞았겠지요. 만약 장난이라면 생계형 조크였죠?

### 내년 초에 개봉하는 <그린 호트 3D>도 편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았나요?

잠깐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세스 로건과 같이 작업하는 게 무척 재미있었어요. 미셸 공드리 감독도 우리가 그 장면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뒀고요. 지도 영

화가 어떻게 완성될지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자신감. 허세는 싫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나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늘 웃게 만드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게다가 그런 사람이 우연히도 잘생겼던 더 바랄 게 없어요?

### 어떤 남자를 보면 특별히 푹 떨어지나요?

아무 이유 없이 질투에 불타는 모습을 볼 때요. 하지만 난 나와 함께 있는 그 남자가 자신을 세상의 왕인 것처럼 느끼도록 해주고 싶어요. 밀고 당기는 게임은 싫어요. 그에게 매우 특별하다는 걸 알게 해주겠어요.

### 신체부위중 가장 자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내 몸매의 매력은 70% 이상 차지하는 다리 스타일레토를 신으면 끝내주죠.

### 파티를 좋아하나요?

자난 허간간 지겹게 했어요. 요즘은 친구들과 과 집에서 노는 게 더 좋아요.

### 미자미자 질문. 남자친구 있나요?





화이트 셔츠 James Perse  
린제리 Calvin Klein

(왼쪽) 상의 Michael Stars  
바카니 리의 Malia Mills



“아무리 걸으로는 착한 여자라도 속내는 다를 수 있잖아요.”

상의 Joe's Jeans

(오른쪽) 비키니 상의 Mata Mills  
바지 Frankie B.



“이 여자야, 진짜 조심”

ICON

# 私 成勳

BY 크리에이티브 WORDS BY 유승민  
PHOTOGRAPH BY ARC STUDIO  
HAIREMAKE-UP 이태우 ASSISTANT 조정민

최근 크리스 리벤틴, 마이클 비스핑겐에서 연달해 패했다. 리벤틴을 원하고 있어? 되면 좋다. 가능성은 모르겠다. 어차피 UFC 속에서 결투하는 게 내 목욕하 거대하든 운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크리스 리벤틴에 대한 신세가 바뀌긴 했지만 '되도 반달에야 살까'는 여전히 유효한 건가? 반달레이미 살아있는 연애라도 한번 붙고 싶다.

자신있어? 갑자기 대한 상대가 바뀌어서 준비가 부족했고, 결국 패한 건지만 기본적으로 자신 있는 상태는 없다.

미들급에 계속 출전하고 있지만 사실 신장이나 리치 면에서 다른 미들급 선수보다 불리한 점이 많다. 웰터급으로 강할까 생각은 없애? 불리하지 않다. 웰터급 선수들도 다 그렇다. 미들급과 별 차이가 없다. 일부러 힘들게 체중 빼는 일도 힘들고, 나에게 편한 체급의 몸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

혹시 고기를 끊을 수 없어선가? 고기는 절대 끊을 수 없다.

최근 비스핑겐에서 로 불로 당했다. 거시기로 보호대를 차도 맞으면 많이 아픈가? 보호대를 채워주는데 내니 맞 아플 텐가? 남자는 다 알지 않나. 최근에 당했을 땐 거시기 보호대가 박살났다.

헉, 당신의 주니어는 무사한가? 김시호보니까 음... 조금 기사가 나고 있는데 괜찮다고 결과가 나왔다.

기스리니 어디에? 그... 뭐라고 부르나. 시타구니에 있는..

아. 뭐지 않겠다. 부디 2세 생애에 문제가 없길 바란다. 2세가 태어났던 누굴 달았으면 좋겠나? 당연히 와이프를 달았으면 좋겠다.

당신을 달으면? 너무 보기 싫을 거 같다.

아름을 날이면 마한건가? 음... 아름답고 영미를 달길 원하지 않겠나?

말이 추 선수를 달으면? 그게 제일 문제다.

오늘 촬영은 맘에 들었나? 최고다. 금방 끝났으니까.

당배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던데? 당배를 피우진 않던 시기는 가끔 피운다. 시기는 졸업하지 않고 연가만 안인데서 사실상 둘러는 데 형이 참 좋다.

혹시 UFC 파이더 중에 당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나? 많다. 운동선수로서 안 그럴 거 같지만 정말 많다.

복싱에 입문한 한 독자가 당배를 피워도 되는지 트위터를 통해 질문 들어왔다. 지금 안 피우면 그냥 피우지 마라. 파이더 중에 원래 피우던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강기를 하는데 안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피우기 시작하면 강력 격이 현저히 떨어진다.

최근 패션 브랜드 칼콜과 콜라보에이션을 진행해서 독자 브랜드 후(후) 라인을 론칭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 디자인 소재 선정 등 제작 전반에 참여했다. 패션에는 원래 몇몇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 우연한 계기로 칼콜 관리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많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당신은 패셔니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은의 후학 아예 패션업계로 필드를 옮기려는 건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조금 있다. 난 아직도 여러 가지 웃을 더 만들고 싶다. 바지나 피카, 티셔츠도 만들고 싶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칼콜처럼 좋은 브랜드와 손잡고 해야 할 것 같다.

당신의 후 '리우'는 당신처럼 티프하고 남성적인 스타일의 의상인가? 일단 편안하고 개성있는 귀여운 느낌의 옷이다. 하지만 좀 더 남성적이고 티프한 느낌의 옷도 생각하고 있다.

요즘 남성 패션은 동성적이다 못해 게이 같은 느낌으로 흐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쁘지 않다.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 멋있고 색채도 보인다고 생각한다.

본인한테는 어울릴 것 같나? 아니다. 안 어울릴 거다.

MAXIM에서 당신과 함께 패션 회보를 촬영한다면 어떤 콘셉트의 회보를 찍고 싶을까? 이탈리아 아미아 보노의 휴게텔은 정말이런 좋겠다. 사실 귀여운 것도 좋은 한데 쉽진 않겠다.

당신처럼 멋져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웃어 주는 방법을 조언해달라. 웃을 땀 때 의상 전체를 통틀어 3가지 색깔이 남으면 안 된다는 게 내 패션 신조다. 언젠가 3색 안에서.

팬스 패션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받아? 잡지다. 나도 원래는 옷 입는 센스가 탁월하진 않지만 잡지를 보고 따라 하는 것도 패션 감각이 탁월하다는 말까지 듣게 된다. 역시 잡지가 제일 좋다.

패션 모델인 아내의 조건도 크게 적용해? 아. 와이프는 패션 코드가 나랑 많이 다른 거 같다. 패션에 관해서는 별보다.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입고라 하면 딱 잘라 거절하나? 대체로 그렇다.

인기 TV시리즈 <아이리시> 후속작 <아레나: 전쟁의 여신>에서 안근자에 도전한다. 언기는 자신 있어? 없다.

언기를 위해 둘로 준비하는 게 있어? 준비하는 거 잘할 수도 없다.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다. 오늘부터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겠다. 액션 영화라도 한 번 보고.

액션 영화 주연 제인이 들어오면? 좀... 잠깐 기다리라고. 좀 시간을 달라고 해야지.

멜로 영화는? 액션보다 멜로가 어울리지 않아? 액션보다 간단해서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노래와 패션, 언기까지 남는다는 당신을 보면 과연 전투기에서 운회한 후 어떤 인생을 살지 궁금하다. 계획을 말해달라.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고깃집을 열어서 사업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장사가 좀 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

얼마 전 MAXIM은 UFC 헤비급 챔피언 앤디 쿠투어 선수를 인터뷰했다. 앤디 쿠투어처럼 계속 펜타곤에 오를 작정인가? 앤디는 정말 멋있고 훌륭한 선수다. 나이가 45세가 넘었는데도 펜타곤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내 게 영감을 많이 준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 보통 그들이 안 돼서 그만두는 것뿐이다. 역시 자기 목표가 중요하거든 같다.

아시아계감이 됐다. 아시아권계 김메달리스트로서 대회에 참가하는 한일 양국의 출전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달라. 그냥 많이 하겠다만 이제까지 운동한 거 하나도 헛된 건 없으니 자신감 가지고 경기장에 올라가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도 부담 걸지 말고 상대만 보고 끝까지 싸워라. 그러면 금메달이 온다.

베이징올림픽 때는 MBC에서 해설위원으로 나섰다. 언젠가 또 당신의 해설을 들을 수 있나? 기회가 되면 유대해설도 하고 싶다. 다른 스포츠도 시켜주면 할 수 있는데.

MAXIM 독자들이 கே한 남자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만 알려고 한다.

"땀을 날았는데 날 달으면...  
그게 가장 문제다."

메도라 랑글  
세스핀더 제이미엔벨  
앤버지 리코스테  
손목시계 보스 워치 by 갤러리아클락

커버)  
카기엔 후드 집업 랑글  
청바지 브라운브레스





화안제 린미스  
메아수 메딕토 by 서원영  
신금영 숭배 시계  
보스 워치 by 갤러리아몰락  
요른손에 착용된 팔찌  
모두 제이이엔엘  
화려한 장식의 문보이는  
글루디에이퍼 슈즈 기아아

전형적인 미인은 아닌데 배우경에 손이 가듯 얼굴에  
자주 사운이 간다.

오디션에 강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홍당무) (과속  
스캔들) 등 지금껏 오디션에서는 늘 결과가 좋았다.  
배역을 따지지 못한 영화도 오디션 결과는 1위였는  
데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고사했다.

한동안 연극판에서 진배가 끊겼다는 소문이 있었  
다. 개연성 지양생처럼 포스터를 붙이고 거리 홍보  
도 했나?

한때 국립극단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다. 공연을 자  
주 보고, 노트에 꼼꼼히 후기를 작성한다고 말했더  
니 그렇게 외전했다.

가까운 내석들이 원래 그렇다. 예능 프로그램에선 강  
단 있는 캐릭터로 그려졌다.

실제로는 우척 어린 성격이다. 전형적인 A형이랄까?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지려 노력했다.

그럼 당신은 어떤 배우처럼 살고 싶은가?  
나탈리 포트먼 자신 있게 삶을 꾸려간다. 영화 (브  
이 보 베타데) (클로저)에서 맡은 강하고 개성 넘치  
는 역할도 해보고 싶다. 하지만 그런 배역을 제외받  
은 적은 없다(웃음).

아무래도 (클로저)처럼 자극적인 영화는 노출이 빠  
질 수 없다.

누군가를 유혹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반드시 노출해  
야 하는 건 아니다. 스스로 섹시하다고 생각하면 적  
이 없어서인지 아직 노출은 조심스럽다. 얼마 전 영  
화제에서 입은 드레스도 시크하게 연출한 건데 바람  
이 부는 바람에 망했다(웃음).

'황우송에 꿀벌지 노출'이라는 기사 제목에 우리  
도 놀랐다.

드레스는 예했다. 차마 알아 떨어진 게 문제였다. 스  
타일리스트에게 잘 조여 달라고 부탁했는데 결국 바  
람 때문에 차마가 필력했다. 그 상황에서 애써 수습  
하는 게 이상할 것 같아서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했  
다. 원래 코르셋 콘셉트였고 조금 길었다. 속옷 노출  
꿀벌지라!!

예쁜 당신이 참아라. 그녀자나 하이랜드(불사신) 병  
이리도 걸렸나? 70년생치고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  
보인다.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묘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더 어려 보이기 위해 열심히 관리  
해야 할지도(웃음). 평소엔 헤어크림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도 기호 화장품 정도  
밖에 없다.

목소리가 맑고 가늘어서 대중의  
호불호가 뚜렷하다.

목소리와 발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도 이제는  
쿨음핵스로 여기진 않는다.  
어떤 여자 작가는 내 목  
소리만 생각하면

이제에 불꽃같이 있는 남색 사조  
일비스릴 by 루카비드  
오른팔에 착용한 레일 실미  
엑스아이엑스  
관람에 착용한 반금  
모두 제이더블  
일류로 지르 착사이 모인보인 차라  
에바수 에리크 by 서한영  
큐비 장승태 단 김장석 구두 힐크린



장에서 발딛 깨다고 했다. 목소리는 작지만 조곤조곤하는 말이 귀에 쏙쏙 들린다고 하더라.

동감이다. 돌아가신 할머니와 유독 사이가 좋았다고 들었다.

육장이 할머니였지만 나에게게는 친구보다 편하고, 누구보다 가까운 분이였다. 내가 24세가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는 할머니 때문에 늘 잠에 일찍 들어갔을 정도다. 지금도 할머니가 몹시 그리다.

할머니와 즐겨 친 고스톱이 그려온 건 아니요?

고스톱을 친 사실은 어떻게 알았나(웃음) 원래 어르신은 민화투를 좋아하신다. 장당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며 밤을 새운 적도 많다. 그 덕분에 지금도 연배가 있는 선배님들은 편하게 느껴진다. 말처럼 다가가면 되니까. 오빠랑 또래 연가자가 불편한 경우가 훨씬 많다. 배우 생활을 위해 고쳐려고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처럼 어리고 내성적인 사람이 연기할 때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많다.

스우치를 했다 갔다 하는 느낌이랄까? 평소 내 모습과 전혀 다른 인물로 변신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기가 재미있다. 영화처럼 돌아가는 카메라는 많이 익숙해졌는데, 화보처럼 순간순간이 중요한 촬영은 여전히 어색하다.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남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말과 행동 주변에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넘었다. 외모만 고집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진작 반했을 거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유혹하니?

미움에 드는 사람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다. 부끄러워서 떴지만 할 정도로 소극적인 캐릭터로 변신한다.

그래서 에디터를 독바로 바라보는군. 쟁쟁 이번 크리스마스 계획은?

교회에 갈 거다. 나만 빼고 친구들이 모두 커뮤러라고 어떤 때보다 슬픈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다.

영화 전에 영화 촬영도 끝났다. 잉여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니?

요리 회원에 다니고 있다. 목표가 없으면 중도에 포기할 것 같아서 한식 자격증을 딸 생각이다. 할머니와 오래 살아서 맛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짙어낸다.

그 회원이 도대체 어디인가?

강남 근처다. 자세한 건 비밀. 요리를 배우고 나면 수확물 배울 예정이다. 이는 분 중에 정각 장애인이고, 배우려면 연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MAXIM은?

아직 아무런 색사항, 게다가 미국에서 MAXIM은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멋진 잡지다.

고민과 걱정에는 색시한 화보로 만나길 기대하겠다. 

코로넷 모양의 실크 상의  
에카수 에디트 by 서관영  
금색 벨이 토끼는 바지  
엑스아이엑스  
가족 장갑 클럽모나코  
벨간제 부티 캠프린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묘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하늘색 보석 장식을 단 굵은 목걸이  
제이미앤벨  
노란색과 검정색 줄무늬가  
멋스러운 시폰 원피스  
에이수 에디트 by 서광영  
핑크색 반지 제이미앤벨  
빨간색 구두 가이아





듀브론 엠미스 피파어  
핑크 엑스아이엑스  
김장서 알벳 구두 도나제티

# MAXIM DECEMBER 2010

## 정기 구독 신청 방법

MAXIM KOREA 웹사이트(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정기 구독 신청란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결제 방법 2 무통장 입금(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신용 59-91002-0304 국민은행 88381-01-004896 농협 355-0006-499-03 신한은행 100-026-094070 우편은행 1005-704-630646 기업은행 208-107032-04-03



강금  
체인 지갑 (보라색, 회색)



인케이스  
Slider Case (검정색)



남성 화장품  
TASK 에센셜



컬럼비아  
캠핑용 접이식 고급 의자



연극열전 3  
오월엔 결혼할거야 티켓 X 2



연극열전 3  
웃음의 대학 티켓 X 2



스타일음므  
가죽 휴대폰 케이스  
(흰색, 검정색, 발색)

### 6개월 정기 구독

- (정가 29,400원) -  
27,300원 (7% 할인) + 1000원 적립  
🍀

### 12개월 정기 구독

- (정가 58,800원) -  
51,700원 (12% 할인) + 2000원 적립  
🍀🍀

### 24개월 정기 구독

- (정가 117,600원) -  
97,600원 (17% 할인) + 4000원 적립  
🍀🍀🍀

### 36개월 정기 구독

- (정가 176,400원) -  
137,500원 (22% 할인) + 6000원 적립  
🍀🍀🍀🍀



MAXIM 홈페이지에서 활동할 때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입니다. MAXIM 홈페이지 회원은 가진 맥을 현금처럼 구매 할인, 유료 파일 다운로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맥=1원)

- ※ 위 사건의 정기 구독 선물은 2010년 11월 16일 현재 남아 있는 선물입니다.
- ※ 선물의 특성상 조기 품질되고 다른 선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시는 선물이 있으면 서두르세요.
- ※ 6개월/12개월/24개월 기간별 정기 구독 선물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www.maximkorea.net 을 참조하세요.
- ※ 정기 구독 선물을 선택한 경우, 선물과 함께 배송되는 첫달에 한하여 배송비(2,500원)가 부과됩니다.

# MAXIM

# BUSINESS

## MONEY 김매니저의 주식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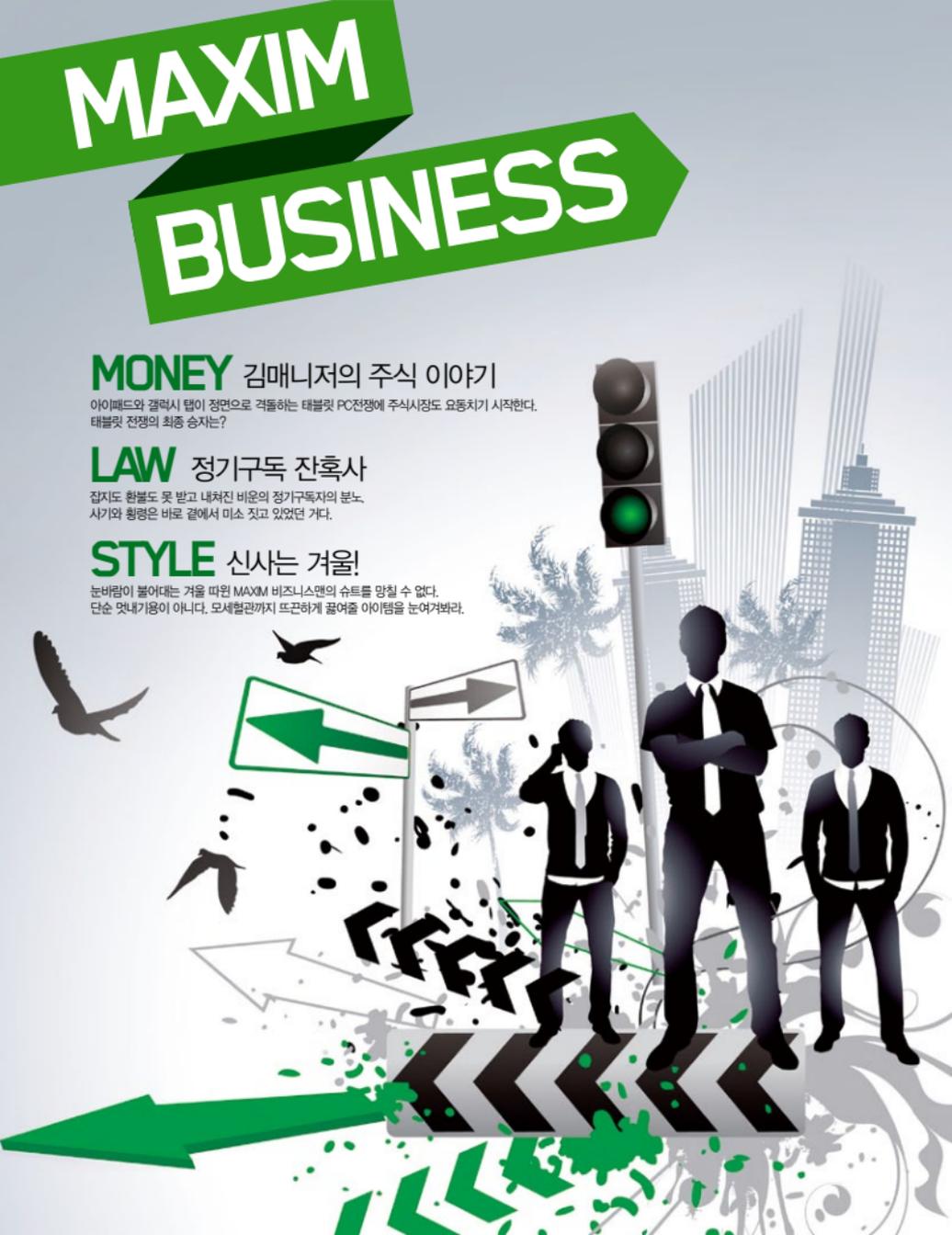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태블릿 PC전쟁에 주식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한다.  
태블릿 전쟁의 최종 승자는?

## LAW 정기구독 잔혹사

잡지도 환불도 못 받고 내쳐진 비운의 정기구독자의 분노.  
사기와 횡령은 바로 곁에서 미스 짓고 있었던 거다.

## STYLE 신사는 겨울

눈바람이 불어대는 겨울 따윈 MAXIM 비즈니스맨의 슈트를 망칠 수 없다.  
단순 멋내기용이 아니다. 모세혈관까지 뜨끈하게 끌어줄 아이템을 눈여겨봐라.



## 태블릿 PC전쟁의 최종 승자는?



○제는 더 이상 태블릿 PC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다. 이는 올해 출시된 애플의 아이패드 덕분이다. 아이패드가 아직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얼리어답터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패드를 가지고 주위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 ◎ 요즘은 아무도 APPLE를 '사과'라고 이 해하지 않는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팟 터치, 아이폰을 통해 matured 아이템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IT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아이폰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개화시킨 장본인이다. 향후에도 태블릿 PC인 아이패드와 스마트 TV인 아이TV 등 선도적인 제품들이 출시 대기 중이다. 이러한 애플의 선도적인 제품 출시와 성공은 다른 IT기업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왜 우리는 못했을까, 그 동안 뭘 했을까 하는 자문에 빠지게 한다. 특히 노키아, 모토로라와 함께 기존 퍼폰의 강자였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삼성과 LG의 대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삼성은 하드웨어적 강점을 바탕으로 갤럭시의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안드로이드 OS와 512MB 메모리를 탑재하고, 4인치 슈퍼 AMOLED 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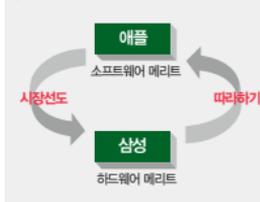
널을 채택하여 차별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삼성의 갤럭시는 빠르게 국내외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다. 즉 빠른 대응으로 아이폰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LG는 총체적인 스마트폰 사업 전략의 부재로 매우 뒤처져 있다. 이체서야 R&D에 힘을 쏟으며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옵티머스 윈을 출시했으나 얼마나 팔릴지는 미지수이며 자카형 스마트폰이라는 점에서 마진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LG가 출시할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 ◎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

태블릿 PC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애플이 올해 4월 출시한 태블릿 PC 아이패드의 경우 올해 1300만대 이상 팔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패드 성공에 자극받은 경쟁 업체들은 연 연결과 내년에도 걸쳐 다양한 태블릿 PC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스마트폰 블랙 베리도 유명한 RIM의 플레이북, 델컴퓨터 스트리크, HP의 슬레이트 등이 있다. 내년 태블릿 PC 판매량이 5천만 대에서 8천만 대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억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성장이 예상되는 태블릿 PC 시장에서 아이패드에 가장 위협적인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이다. 삼성전자는 10인치 패널을 채택한

아이패드보다 작은 7인치 패널을 채택하였다. 또한 삼성과비밀디스플레이의 AMOLED가 술력을 바탕으로 조만간 태블릿 PC의 디스플레이에도 AMOLED를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태블릿 PC라는 신규시장은 애플의 아이패드가 창출하였지만, 그 시장의 수혜는 애플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삼성 등의 후발 주자들에게도 동성한 공교물을 흘려주고 있는 거다. 하지만 LG의 경우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태블릿 PC에서도 더욱 뒤처져 있다. 애플이 진득 흘려놓은 공교물을 삼성에게 모조리 빼앗기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태블릿 PC에 대한 이렇다할 로드맵이 없는 실정이다. 오만하면 잃어가는 애플, 뒤따라가는 삼성, 계속 처지는 LG라고 할 수 있겠다. 언제까지 에어쿰만 만들건가

### ◎ 애플/삼성 메커니즘



삼성? 애플? 어쩌면 그 전쟁의 승자는 당신이 몰지도 모른다.

BY 김태-ke.kimmanager@twitter



▶때론 주위역기 왕이 득점왕이 되지

지금까지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장이 보여준 메카즘을 살펴보면 애플이 선도적인 히트상품을 출시하면 삼성이 하드웨어적 기술력을 가지고 재빠르게 따라잡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적 요소는 개량화를 지향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OS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결국 애플은 삼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견력과 사람들의 생활 형태까지 바꿔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세계 개척이라는 도박을 감행하고, 삼성은 그 결과를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애플이 개척한 신대륙이 팽팽해졌다 싶은 확신 시연 뒤에도는 형국이다. 게다가 제품 아이디어는 애플이 이미 제공해주니 삼성은 몇 가지를 덧붙이면 되고, 취약점인 소프트웨어는 구글이 제공해주고 있으니, 기존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 이점을 활용하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 애플이나 구글 입장에서 억울할 만도 하다.

스마트 TV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기존 TV시장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구글 TV와 애플 TV를 능가할 만한 스마트 TV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3D기술과 대면적 AMOLED 기술이 결합한다면 결국 스마트 TV시장에서도 삼성이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좋고 이기면 더 좋은 게임

그 뿐이 아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에는 삼성전자가 생산한 반도체가 들어가 또 삼성SD가 생산한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가 또 삼성SD가 생산한 새로운 시장이 커지면서 완성 제품 판매에서 수혜를 볼 뿐만 아니라 부품 판매로도 이종의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반도체 생산 전문 업체인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반도체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40%, 20%를 돌파함으로써 꿈의 점유율이라 할 수 있는 60%를 돌파하였다. 이는 일본의 Epoxia, 미국의 Micron 같은 후발 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졌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양사(삼성, 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세계 디램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디램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모바일 디램의 경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이미 68%에 이르고 있으며 하이닉스는 18%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모바일 디램판매에서 양사의 점유율 합계는 85%에 이르고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는 모바일 디램 뿐만 아니라 낸드플래시메모리가 탑재되는데, 세계 낸드플래시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42%, 하이닉스는 10%다. 즉 50% 이상을 양사

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장이 성장할수록 낸드플래시메모리와 모바일디램의 수요는 급증하게 되는데 그 수혜를 누가 보게 될지는 지양하다. 조금 과장하면 삼성은 아이폰이 팔려도 좋고, 갤럭시 탭이 많이 팔리면 더 좋다고 하는 얘기다.

▶전자제품 얘기만 하다 주식 얘기는 언제 나오나?

이 사람이, 벌써 다 했다. Early-adopter로서 태블릿 PC를 사서 자랑하는 것도 좋아한 삼성 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Early-adopt해보라는 말이다.



참고로, 아이폰도로는 MAXIM을 볼 수 있다.

# Suit for Winter

겨울 신사를 위해.

BY 곽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조장진

**1.** 장식 하나 없는 묵직한 남색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로, 단추로 경쾌함을 살렸다. 650,000원 시스템 울모

**2.**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고급스러움을 담은 가죽 시계로 6시 방향에 있는 날짜침이 편안하다.

527,000원 휴고보스워치 by 갤러리어클락

**3.** 더블 몽크 스트랩 슈즈로, 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예의 바른 슈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금육을 하던 수도승이 산냈던 신발이 현대에 와서 옥스퍼드화곤 있는 구두에 질린 멋쟁이들만 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었다. 가격 미정 스텐다



1

2

3

4. 장식 하나 없지만 독특하면서 튀지 않는 색감이 은근히 돈 냄새를 풍긴다. 소가죽 브리프케이스 495,000원 쿠론

5.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려면 명함은 늘 상대방이 탐낼 만한 명함 지갑에서 살포시 꺼내자. 악어가죽달을 쓴 소가죽 명함 케이스 105,000원 쿠론

6. 캐시미어 소재의 두툼 스트라이프 머플러가 슈트에 풍위를 더한다. 148,000원 올젠

7. 보통 페도라는 울 소재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 제품은 고가의 토끼털 펠트를 사용해 은은한 광택감이 더욱 고급스럽다. 평범한 슈트에 고전적인 멋을 주고, 캐주얼 의상에는 포인트로 안성맞춤이다. 430,000원 강글



#### SMART STYLE

### 양복 입을 당신 스타일도 스마트 하게

없어 보이면 여자? '더' 안 생기는 거 알지?

1. **STCO** 아린바다 몇 번이고 옷을 직접 걸어입다가 늘 회사에 지각하는 게 고민인가? 이제 당신'사전에' 셔츠와 타이를 인형 놀이 하듯 입히기만 하면 된다. 다양한 코드 버튼을 참고할 수 있고 가격도 바로 볼 수 있다. 쿠론북도 있으니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할 때 활용해 보자. 가까운 매장 검색용이 아당연하지

2. **Necktie Knots** 아직도 혼자서 타이

를 못 맨다고? 목이 넓은 중등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맨다고? 아. 당신에게 새 넥타이보다 필요한 건, 상황에 맞는 타이 매는 방법이 무려 10가지나 있는 바로 이 어플!

3. **로카디스** 아예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당신을 위해 준

비밀 어플.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룩 코드 화보가 있으니 당신은 그대로 따

라 하면 된다. 하다보면 응용력이 생기기까지.

4. **바나나 리퍼블릭** 리저와 일상 생활 속 에티켓을 퀴즈를 통해 배울 수 있고, 그 상황에 맞는 코드법도 알려준다. 센스 넘치는 당신을 위해

목비권을  
행사하겠다!



## MAXIM 형법

## 사례 연구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 최근 한 잡지사가 유명 잡지의 짝퉁판을 발행하다 정가구매자들의 구독료를 떼먹고 도망가는 조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잡지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만한 이 사건에 MAXIM의 이름이 연루되어 참 부끄럽고 미안하다. BY 유승민



**이**제 잡지를 정가구매할 때에도 행어나 이놈의 잡지사가 몇 권 보내주다 도망가지는 않을지 노심조사하며 증거물을 챙겨둬야 하는 세상이다. 대신 누구도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오늘 단단히 법적인 트레이닝을 해 두자.

당신은 MAXIM 잡지를 정가구매하고 있는 애독자다. 1년 정가구독료를 입금하고 이제 한 3 권쯤 받았는데, 갑자기 잡지가 오질 않는다. 책에 적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홈페이지는 온데간데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환불을 요구할 방법도 없다.

어떤 잡지사는 사실 짝퉁 MAXIM을 만들어 오다 법원에 의해 출판금지 명령을 받은 업체였다. 세상에 잡지도 짝퉁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당신은 정가구독을 신청할 때 이에 관한 이유면 얘기도 듣지 못했다.

사라진 잡지사는 어떤 죄를 저지른 걸까?

- ① 강간죄
- ② 사기죄
- ③ 횡령죄
- ④ 혼인빙자간음죄
- ⑤ 간첩죄

### ➡ 형법 제347조 [사기]

②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굳이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를 묻는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사기죄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1.사람을 기망하여 2.재물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가구독료는 돈이고 돈은 가장 대표적인 재물이다. 잡지사가 당신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관건은 돈을 갖고 된 잡지사 사가 당신을 기망하였는지속되었는지 여부다.



### 집사의 예상 병명 1

이봐, 사기꾼! 당신이 정가구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은 것 뿐. 사기가 될 만한 일을 할 적 이 없잖아!

평소 같으면 빛의 속도로 당신의 주권이 높아져서 재판 진행되고 천천히 변박하자.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는 명사적인 말로 하지 마요(명사적 기망행위). 행동만으로도 가능하네(속이는 행위)는. 책 등 집주리 MAXIM은 줄이고 돈을 낸 당신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MAXIM이라고 써 붙여 놓고 있었고, 집사님도 똑같은 영국 MAXIM을 불러주며 당신의 척을 유별시켰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당진조차도 완벽 속기에 충동한 것이었다.

### 집사의 예상 병명 2

우리가 정가구독료를 받았을 당시에는 아직 법원의 명령을 받지 전이었고, 지금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속인 건 아니야!

잘 참았다. 말장난을 정말 싫어하는 당신의 주력부터 진정사기사. 백만 양보해서 집사가 말로도, 행동으로도 당신을 속인 적이 없다고 치자. 하지만 형량상 사기죄에는 어려운 말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것이 있다. 직접적으로 속는 말이나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지

금 이 집사가 딱 그 꼴이다.

집사시는 법원으로부터 쫓겨 집사에 대한 법정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집사시는 당신이 정가구독을 신청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 천치 구독료 내 션다가 1년도 안 되어 종납 수도 있는데 그대도 내 션치 개유? 하고 당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다. 전문 용어 그 말하면 집사시는 정가구독 계약에 있어 고지 의무 가 있는 보증인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정가구독료 낼 때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당신의 송과다.

### 사기죄의 요건에 관한 판례

【判】 가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가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수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정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대판 2004. 4. 9. 2003도7828)

【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개시소식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가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던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판 1986. 9. 9. 86도956)

당신이 집을 하나 사고고 하는데 그 집이 사실은 소유권 다름으로 소송 중이라면 매도인은 이 집이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집이라고 당신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는 예다.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을 샀다가, 사실은 집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허우야름에 돈도 집도 잃는 일까지 가도 길에 나팔을 거 야가대 대환함은 이 시간에서 만 사해(도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정가구독료를 배려한 당신 또한 이렇게 집도 돈도 못 받게 될 줄 알았다면 아마 5만원밖에나 하는 정가구독료를 냈을 지 없다.

### 집사의 예상 병명 3

우리가 MAXIM 팀에 소송 중이었던 거 꼭 일일이 말해주어야 하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띄워 놨잖아!

이왕 참고 내내(합리하게 맞서)도 한 거 끝까지 신당계 반복해준다. 허급삼은 정가구독료 맥락과 도망가기 사건과 똑같은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은 꽤나 비슷한 사정에 관한 판결이 있다.

【判】 임대인이 임대계약금을 채취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8. 12. 8. 98도3263)

그렇다. 당신 일당에서 그 집사가 소송이 걸려있는지 대대 어떻게 알겠나? 집주를 정가구독료 할 때 마다 다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행 중인 사건들을 모두 검색하러는 알았거? 당신의 홈페이지 방문 공지사항이나 하는 것들을 유심히 읽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정가구독이 중간에 종납 수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은 집사가 당신에게 전화로 성실하게 사전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 SHOW ME THE MONEY!

### 그래서 환불은?

환불만 해주면 어떤 일로 해 줄 수도 있을텐데.



그래, 이 내셔널 사기죄로 범죄자 만났을 땐 하겠다. 대법원 당사(대법) 내 헌법 용어해 줄테니 다음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급게 환불이나 해 주면 어떤 일로 하겠

소. 라고 할 수도 있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정당한가? 하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홈페이지도 담은 채 도망가 버린 집사에게 환불을 받을 방법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사법 찾는 용어를 써서 찾아야 할지. 사기도 횡령도 당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문제는 결국 원금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집사의 정치는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한다.

상식적으로 집주를 못 보내게 되었다면 남은 기간만큼 돈을 환불해 줘야 한다. 집주를 못 보내주게 되는 순간, 남은 기간만큼 정가구독료는 토해내야 한다. 정가구독자 소유의 돈을 잠시 보관하는 것은 것뿐이다. 그러던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집사시가 돈을 골짜기 한 장은 내야 한다는 것(행위), (임의상환청) 또는 (정가구독환청)이라는 범죄에 걸리게 된다. 아

집사시는 정가구독료를 받고 정성적으로 계산하여 환불해 주어야하는 의무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의상환청)의 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임의상환청)은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게 되는 큰 범죄.

#### 법정 제65조 [형량]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정 제365조 [업무상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65조의 죄행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정 제300조 [업무상 횡령]

① 유물, 서류를 또는 타인의 장유를 이법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MAXIM 발행사 교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 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뜬금없이 정기 구독료 사기라니 뭘 소린가 싶기도 할 거다. 남자의 영원한 친구 MAXIMI 작년부터 일단 심한 몸살이 이어야 끝났다. 상표권 침해 쪽쪽 잡지 논란 발행사 교체 두 개의 MAXIM 등 수많은 생재미를 남긴 우리나라 잡지사상 초유의 국제 소송은 가짜 맥심 발행사가 독자들의 구독료마저 훔쳐 달아나는 최악의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 ▶ MAXIMI 두 권?

MAXIMO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지난 몇 달 간 (5월호~10월호)까지 사점에 두 가지의 MAXIM 이 깔려 있었던 걸 기억할 거다. 워 엄밀히 말하면 MAXIMI 두 개였던 적은 없다. 단지 진짜 MAXIM과 가짜 MAXIMI 잠시 같이 있었을 뿐이다.

이 왓지 못할 해프닝의 전말은 이렇다. 세계적 남성잡지 MAXIMO에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MAXIM 상표를 단 잡지를 만들던 D오 회사라는 업체가 있었다. 그런데 이 D오 업체가 언젠가부터 MAXIM 본사(Alpha Media Group, 뉴욕)에 상표 사용의 대가인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다. 남의 돈 때리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이 회사는 한 두 달도 아니고 몇 해에 걸쳐 제대로 로열티를 내지 않았다. 돈을 받지 못한 MAXIM 본사는 이 D 업체에 독촉도 해보고, 계약줄 테니 조금이라도 내라고 구슬리기도 했다. 하지만 배짱 좋은 이 업체는 그 외에도 국내에서 계속 MAXIM의 이름을 빌려 돈을 챙기고, MAXIM 본사의 연락을 무시로 일관하는 배짱자 전범을 펼쳤다.

### ▶ 헤지펀드의 농간? 일방적 계약 파기?

계약을 해지 당하지 당황한 D업체는 이번에도 돈을 갠기보단 배를 짜는 쪽을 택했다. 아래는 홈페이지를 통해 D업체가 주장한 내용이다. 문밖에 모르는 헤지펀드가 MAXIM을 인수하려니 갑자기 계약을 변경하고 더 큰 돈을 요구하니 다시 2012년까지 라이선스 계약이 되어있는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하지만 헤지펀드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대체 어

디서부터 꾸며낸 이야기일 지 수조차 없다. D업체는 애초에 201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MAXIM 본사는 계약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처음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는 모두 서울지방법원에 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다.

### ▶ 쪽쪽 MAXIM 강행

대형량 너머에서 속살이만 하던 MAXIM 본사는 결국 D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 때부터 벌어졌다. MAXIMO의 계약이 해지되고 상표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D업체는 아무 일도 없는 양 MAXIM이라는 타이틀을 딱히나 표지에 새긴 잡지를 계속 펴냈다. 그게 벌써 2009년 8월이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짜 MAXIM을 무단으로 찍어 온 거다. 눈발이 가 있다면 눈치챘겠지만 그 때로부터 그 잡지에서 해외 MAXIM의 기사나 화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 정식 MAXIM KOREA 설립

상표권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한 대한민국에 회의를 느낀 MAXIM 본사는 우리나라에서 아예 MAXIM을 출시시키는 것까지 고려했으니, 이전 막무가내로 저자 상표를 도용해서 쪽쪽 MAXIM을 만드는 걸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MAXIM 본사는 가짜 잡지가 나오지 못하도록 정식 한국판 MAXIM의 재창간을 추진했다. 그렇게 설립된 새 MAXIM KOREA는 올해 5월부터 정식으로 다시 MAXIM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잡지 말이다. 애들이 MAXIM의 코드를 알까? 하는 걱정은 안해 도 된다. 현 편집진 대부분은 과거에 D업체에서도 MAXIM 기자생활을 했던 에디터들이다.

### ▶ 잡지 사상 초유의 국제 소송

정식으로 MAXIM 버전이 나왔음에도 D업체는 무단발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다섯달 동안이나 두 가지의 MAXIMI 서점 가판대에 깔리는 왓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거다. 어쩔 없이 MAXIM 본사는 지난 반데판에서 가짜 MAXIM을 발행하던 국내의 D오 업체를 상대로

2010년 1월에 국제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법원에 상표권 보호를 요청했다. 그리고 바로 소 지닌 10월 우리나라 법원은 동제의 D오 업체에 출판금지 및 판매금지 등의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MAXIM은 다시 우리나라에서 발행 될 수 있게 된 거다.

### ▶ 정기구독료 횡령

법원의 판결이 나자 D오 업체는 발빠르게 홈페이지를 단교하고, 전화는 불응이 되었다. 그들에게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 수많은 제3자들이 뒤로 한 채, 잠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행했다. 석달된 운송비를 받지 못했다는 퀵서비스 아저씨는 하혈한 표정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간 그들을 먹여 살렸던 정기구독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남은 구독료를 정겨 달아내는 사실이다. 다른 돈은 몰라도 MAXIM을 누굽니까? 아예 정기구독자의 돈을 때리고 도망가서는 안 될 일이었다. MAXIMI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독자들 덕분이기 때문이다. 독자들 각자의 피해 금액은 몇 만 원 수준이지만 모인 분량 적지 않은 돈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게는 1~2천 정도의 잡지를 못 받은 구독자부터 심하게는 해외에서 운송비 포함 5천원 정도 정기구독료를 냈다가 4권이 남았는데 돈을 매긴 독자도 있다. D업체가 잠적하기 직전에 1년 정기구독료를 냈다가 잡지를 단 한권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D업체로부터 구독료를 때 먹힌 피해자들의 전화도 오늘도 MAXIM KOREA 사무실은 하루종일 전화에 불이 난다. 대형회 11월 30일까지 MAXIMO에 피해 사실을 증명하면 2권의 한도 내에서 공식 MAXIM 한국판과 일לו를 바꾸고 있다. 당신이 MAXIMO로 www.maximkorea.com에서 피해 상담을 하고 소정의 과월회라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맹장열전!

BY 권영민 WORDS BY NASICA

자고로 맹장이라면 눈앞에 떨어지는 포탄도 비비탄처럼 가볍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고대 그리스의 한 장군이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기 위해 적의 창에 여러 번 찔려했다 라고 떠들어댔다. 그러자 다른 장군은 선두에 서서 싸우다 발파에 적의 화살이 닿는 순간 무대를 지휘하는 장군의 본분을 잊고 병사처럼 행동한 걸 후회했다 라고 응수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이 일개 병졸이었다면? 당연히 전자의 장군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다.

好  
子  
加  
士  
士  
士





# 영국 헤이크장군

Hague

영국의 헤이크 장군은 또 다른 의미의 명장이다. 자신은 용맹과 담을 쌓은 주체에 자기 휘하의 군인을 용맹스러워야 하는 상황에 몰아넣어주는 재주는 탁월했다. 처자 세계대전에서 전방의 영국군 장병이 물이 부족하고 인 참호에서 추위에 발발 떨어져 차가운 통조림과 건빵으로 주린 배를 채우던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헤이크 장군은 안전한 후방에서 반박하는 은제 장식으로 식히고, 반박하는 폴리오리스를 타고 웅장한 프랑스의 고성에서 사령부로 출퇴근했다. 한 번의 공세로 발생하는 수많은 사상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영국군 10만 명으로 독일군 8만 명을 없앴다면 독일군의 예비 병력이 더 적으니 아군의 승리라고 떠들었음 정도다. 헤이크가 책임자야 할 전선이 넘어져 전방으로 옮기면 통신 교란이 어려웠던 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전 책임을 프랜시스 장군이 초반의 기동전이 끝나고 참혹한 전투가 예상되는 참호전으로 들어간 상황을 우물쭈머야. 적의 방어선을 뚫을 수 없는 데도 계속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한 것과 비교하면 양자 모두 이런 양자기가 없다. 덕분에 헤이크처럼 전쟁터의 술상수병 따위는 개에게 던져준 처자 세계대전의 장군들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적진을 향해 먼저 뛰어들던 장군들과 비교당하며 시자들을 지휘한 당나귀 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시교리  
망개들야!



헤이크 장군이 주도한 1915년 이프르 공세는 무명무려한 개들의 희생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내국에 군복무를 제대로 마친 장관이 거의 없단 게 많이 뒤쳐 노블레스 오블리제 따위는 개소리다. 나폴레옹전쟁 당시의 영국, 프랑스의 용맹한 장군처럼 육신을 걸 건으로 나라에 봉사하는 건 끝도 안 된다. 사회 지배층이려면 최소한 국민의 의무 정도는 수행해야 한다. 자기 자식은 소중하니 어떻게든 군대를 보내려 하지 않고, 있는 집 자식도 총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보내려 하는 행동은 무책임의 끝이야 한다. 하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량 참모가 나올 때 가슴에 솔을 물리는 것부터 모르르치지 군대에서 거주중이면 해본 일

프랜시스 장군의 뒤를 이어 영토 함대군을 지휘한 더글러스 헤이크 장군은 1915년 1차 세계 대전의 이프르 공세로 유명하다. 그는 젊은 시절 영웅 숭배의 희생자가 되었는데, 나폴레옹의 영웅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영웅이 됐으면 내가 가슴에 영웅을 태워 넣을 수 있는 크라운의 영웅은 왜 만지지 못한 건가 물어봐 내신

## MAN OF BATTLE

### 그땐 그랬지

나폴레옹전쟁 시절 장교는 술상수병의 화신이었다.

나폴레옹전쟁 당시 장교들은 직접 전쟁에서 전황을 파악하고 병력을 통제해야 했다. 그렇지만 주먹 화기 머스킷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고작 60~70m에 불과해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대포는 달랐다. 당시 주력인 6파운드 포는 유효 사거리가 약 700m 정도, 최대 사거리는 1km가 넘었기에 후방 지역도 절대 안전하지 않았다. 실제로 나폴레옹 시대의 고위급 장교들은 대부분 포탄에 맞아 사망했다. 나폴레옹의 부하 장수인 칸 베시에르 등은 모두 포탄의 파편에 맞아 전사했다. 나폴레옹의 장작이었다가 나중에 러시아군 편에서 싸운 모로 장군도 나폴레옹군의 포탄에 두 동강이 났다. 영국의 포

로투갈 함정고 최고사령관 무어 경 역시 프랑스군의 대포에 맞아 전사했다. 하지만 장교 나폴레옹 본인도 대포에 의한 상처는 입은 적이 없고, 적의 소총탄에 단지 발가락을 맞아 부상한 경우밖에 없었다. 그만큼 적진 가까이에서 지휘했다는 증거다. 나폴레옹은 전쟁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을 지켜주는 자신들의 운명을 맡았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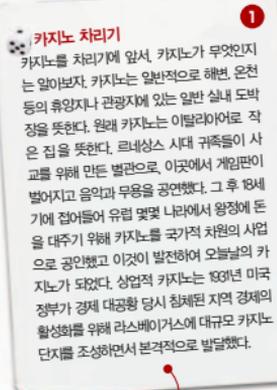


영국의 영웅은 나폴레옹을 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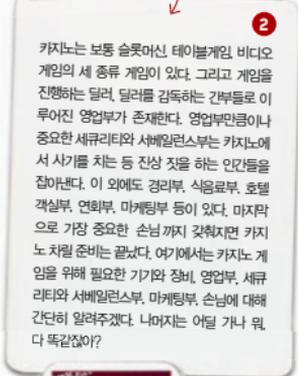
나폴레옹은 영웅인 예술가 전쟁에서 오스트리아에 첫 패배를 당할 땐 만이, 러 아미엔 영웅 연을 잃었다. 무명 무명 나폴레옹과 영웅 놓고 자살 간판 걸린 만 무명 영웅은 나폴레옹에게는 영웅 만 손사익이다.





### 1 카지노 차리기

카지노를 차리기에 앞서 카지노가 무엇인지 는 알아보자. 카지노는 일반적으로 해변, 온천 등의 휴양지나 관광지에 있는 일반 실내 도박 장을 뜻한다. 원래 카지노는 이탈리아어로 직 은 집을 뜻한다. 르네상스 시대 귀족들이 사 교를 위해 만든 별관으로 이곳에서 게임만이 벌어지고 음악과 무용을 공연했다. 그 후 19세 기에 접어들어 유럽 몇몇 나라에서 왕정예 돈 을 대주기 위해 카지노를 국가적 차원의 사업 으로 공인했고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카 지노가 되었다. 상업적 카지노는 1937년 미국 정부가 경제 대공황 당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라스베이거스에 대규모 카지노 단지를 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했다.



카지노는 보통 슬롯머신 테이블게임 비디오 게임의 세 종류 게임이 있다.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딜러를 감독하는 간부들이 루어진다. 영업부가 존재한다. 영업부원이나 중요한 세큐리티와 사베일런스부는 카지노에 서 카지노를 치는 등 진상 짓을 하는 인간들을 잡는다. 이 외에도 경리부, 신용료부, 호텔 객실부,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손님까지 갖춰지면 카지노 차릴 준비는 끝났다. 여10에서는 카지노 게임에 위해 필요한 기기와 장비, 영업부, 세큐 리티와 사베일런스부, 마케팅부, 손님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겠다. 나머지는 어쩔 거나 뭐 다 똑같잖아?

### 2 장밋빛 미래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카지노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 걸쳐 3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카지노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생 카지노도 1년에 150 개소 이상 불쑥 불쑥 생겨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궁금하지 않나? 전 세계 카지노 전체 매출액은 2007년을 기준으로 100조 원을 웃돈다. 이 정도면 카지노 한번 차려볼만 하지 않나? 마침 국가도 슬슬 카지노 산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도박을 금기시하는 사회주의 국가 특히 한국, 폴란드, 체코,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카지노 산업을 인정하고 있다. 또 최근 도박의 나라 싱가포르에서도 대규모의 카지노를 신설하며 도박의 나라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이 도박 산업을 늘러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카지노에서 연중무휴 카지노를 가동시킬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연 경치가 좋지 못한 경우 카지노를 대체 관광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셋째 카지노 산업은 많은 돈을 쓸수록 흡수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외화를 끌어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인들이 카지노를 방문하면 여행비가 머무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인당 소비액도 늘어난다. 외국인 관광객 1명이 카지노를 이용할 경우 반도체 76%, TV 4%를 수출할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놀랍지 않나?

하지만 카지노를 차리는 것에 법적인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박 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법적 규제가 존재하는 등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 터키의 경우 100~1500개의 침실을 소유한 특급호텔에만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고,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정직하고 성실하여 인격을 갖춘 사람만이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탈세). 우리나라의 경우 몇 개의 호텔 카지노를 제외한다면 카지노는 모두 한국관광공사에 운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법적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곳 이 많다. 아메리칸 드림 찾아 한 번 떠나볼까? 경쟁 업소가 많아 우리나라의 강원랜드처럼 독점의 재미를 누리진 못하겠지만.

자 그러면 얼마큼의 돈 투자가 필요할까? 강원랜드는 섹터산업 합리화사업 단 강원도 정성군 등에서 약 510억 원의 자본이 출자되어 설립되었다. 당시 투자비와 확장 단계에 사용한 돈은 모두 1조1천7백억 원 정도 야. 잠깐 만! 아직 포기는 이르다. 8년 후인 2008년 강원랜드의 자산은 1조 510억 원으로 30배나 증가했다. 카지노 개방 약 두 달 만에 910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니 말 다했다. 이 매출액 중 97%가 카지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다. 이 정도면 투자 대비 수익이 확실한 사업 아닌가?





## 필요 장비

### → 슬롯머신



슬롯머신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슬롯머신은 미국의 자동 판매기에서 유래했다. 미국 술집의 한 가지 자동판매기는 북 볼복으로 사기를 빼어냈다. 동전을 넣었는데 사기가 나오지 않거나, 원래보다 많은 양이 금액기로 나오거나, 정상적으로 나오는 동전들을 무려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았다(여자가 말 안 듣는 여자가 좋지 않나). 현대 슬롯머신의 시초는 188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라비터 벨이란 이름의 자동식 슬롯머신이다.

슬롯머신은 핸들을 당긴 후 휠이 빠르게 돌고 정지해 배당액을 빨리 배출하고 바로 다음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좋다. 즉 1회 게임 시간이 빠르면 배출수록 즐길 수 있는 게임의 횟수가 많아져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슬롯머신의 색은 빨간색이 좋다. 고객들이 좋아한다. 초록색과 남색은 거부감이 드니 사지 말 것. 1933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슬롯머신 게임 소속이 테이블게임 소속보다 높았던 적이 있었다. 어떤 카지노는 수익의 86% 이상을 슬롯머신에서 벌어들인다. 강원랜드의 경우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

한다. 기계라고 무시하지 말고 가능한 많이 들여다 놓자. 고객들이 바쁜데 카드, 담배, 종이 등을 박으면 사자가 쉬지 않고 기계를 돌려 준다. 또 도박 중독은 테이블게임이 아닌 머신게임. 그 중에서도 슬롯머신에서부터 시작된다. 슬롯머신에 폭박 신경 쓰자. 단 자식 등을 이용해 돈을 넣지 않고도 기계를 돌려 가나 게임 결과를 조작하는 전문적인 슬롯머신 탈이 범을 주의해야 한다.

### → 칩



칩은 돈에 대한 감각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물건이다. 세종대왕이 플라스틱 칩으로 가치를 올기는 순간 세종대왕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칩의 색은 금색, 노란색, 핑크색, 초록색, 남색, 흰색 등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칩은 구매 시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한다. 칩 제작사의 뒷조사를 철저히 하고, 공장 직원들이 주문양 보다 많은 칩을 만드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복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추천하는 재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뭉, 못 밀어사자 아니라. 테이블과 구별이 되든지, 크기가 적당할지, 색

이 예쁜지를 확인하고 카지노 내 CCTV 카메라에 포착이 잘 되는지도 반드시 체크한다. 마지막으로도 칩을 쓰게 내부를 확인하자. 흡입이 잘 나는지도 같이 체크한다.

### → 시계

시계는 가급적이면 두지 않는다. 고객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을 즐기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개장 6년 후가 되어서 시계를 설치했다.

### → 카드



카드는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클로버로 이루어진 슈트부가 각각 Ace, King, Queen, Jack 이 네 가지 그림 카드와 2~10까지의 숫자 카드 13장으로 이루어져 총 52장을 구성한다. 나이에 따라 그 수는 달라지기도 한다.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클로버는 사계절을 의미하고, 각 그림의 그림 카드와 숫자 카드 13장은 계절의 주를 의미한다. 그러하여 카드 한 짝은 1년을 상징한다. 여기에 조커 카드 한 장을 더하면 365일이 완성된다. 카드 뒷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잉크로 체크를 하거나 오소리리를 구부리는 행위를 크리밍이라고 하는데 카지노에서는 이를 대비해 카드를 자주 교체한다. 특히 바카라의 경우 손님이 카드를 직접 만지기 때문에 바 게임마다 카드를 교체해야 한다.

## 인사관리

### → 딜러

딜러는 테이블게임을 수행하여 게임을 운영하는 카지노 종사원이다. 게임볼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고객들의 게임을 도와주는 보조자로 고객에게 칩을 팔고, 지불하고, 거두어들이는 역할도 한다. 카지노 게임은 원래 딜러 쪽 승률이 높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실제로 딜러는 게임에서 지기도 하고 다른 카지노 게임장에서 많은 돈을 잃기도 한다.

### → 간부

간부 직급은 보통 플로어맨, 플로어퍼슨, 피트보스, 슈프트맨, 처저, 게임메니저로 구분한다.

플로어맨: 주일, 계약, 대리급, 딜러의 채용과 해고를 추천한다.

피트보스(피터): 사자, 계약, 대리, 과장급, 플로어맨의 채용과 해고를 추천한다.

시프트 매니저: 과장, 차장, 부장급, 해당 시프트의 사설을 관리하며, 자기 아래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할 권한이 있다. 무료 음과 유료 채팅, 크레딧시스템(여자의 승인과 발행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다. 제한 없이 구박까지 접근 가능하다).

게임 매니저: 차장, 부장, 이사회, 카지노 게임 운영에 있어 최고 책임자다. 카지노의 모든 제한규칙에 출력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의 사원들에 대한 해고와 채용도 물론 가능하다. 손님에게 서비스 모든 무료특권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됐나? 잘 보여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 → 도박 처벌

도박에 미친 혹은 미처가는 중인 고객이라면 서비스가 좋은 나쁘건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한 번 풀리면 가득 차 진상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원인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손님이 불만에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아래에 있는 체크 사항을 검토한 후 액션을 취한다. 아래 항목은 실제로 <딜러 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다.

### ☑ 손님 불만 시가지 체크 사항

- 단골손님인가?
- 손님이 가진 금액은 얼마인가?
- 손님 앞에 놓인 칩은 얼마인가?
- 손님이 잃은 돈은 얼마인가?
- 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가?
- 칩이 정렬로 회를 내고 있는가?
- 손님이 정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 손님은 정말 자신과 믿고 있는가?
- 정확히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가?
- 주저하는 기색은 없는가?
- 의도적으로 회를 내는가?
- 현재도 회를 일으켰던 손님인가?

## 카지노 보안

### 서베이런스부와 시큐리티부

카지노 보안은 크게 모니터링과 사업장을 감시, 관측을 담당하는 서베이런스부와 보안, 안전을 담당하는 시큐리티부로 나뉜다. 모니터링 운영관리실은 하늘의 눈 혹은 빅 브라더로 알려져 있다. 유지선 일반 파손 프로젝트의 대표곡 Eyes in the Sky 역시 카지노의 CCTV를 두고 만든 노래다. 그만큼 카지노는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큰 형같은 존재다. 이들 서베이런스부의 사람들은 카지노 다른 직원과 어울리는 것을 배제해야 하며, 당연히 카지노 직원 중 친한 것이 없어야 한다. 근무시간 외에 카지노 영업장, 바, 라운지,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 퇴근시 바로 귀가해야 한다. 그야말로 오롯이 영타다. 시큐리티는 주로 사설 보안 업체, 즉 경비원을 고용한다. 또 이들은 정장형류 등의 형벌상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형벌을 제외할 권한은 없다.



### ▶속임수

일반적인 사기 방법을 소개하니 잘 직책하도록!

#### • 속임수의 종류

**핀향** 게임 결과가 나온 후 칩을 베팅 박스에서 빼는 행위

**프리스트** 빈도로 칩을 추가하는 행위

**퍼스트 포스트** 게임 결과가 결정된 후에 베팅을 결정하는 행위

**행위**

**카드 카운터** 게임 확률을 조작하는 행위

**크림장** 크레딧, 반지 등을 사용해 카드에 표식을 남기는 행위

**리버전**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동안 사기를 치는 행위

**크레딧** 크레딧을 받은 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금액까지 게임 후 도주

**엔즈오프** 딜러가 공병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악수하면서 공병 손에 사기질 것을 권유

**초과 지불 행동**: 칩을 많이 쓰는 손병에게 실제 주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얹어 줌

**스타킹테크**: 딜러가 카드를 미리 조작해 놓아 다음의 딜러에게는 알지 못한 채 테이블을 인계하여 자신이 아는 손병이나 공병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행위

**거짓서**: 카드를 쓰는 것을 숨겨져 보이지 않던 부분으로 조작하는 행위

**스타킹** 순서대로 미리 정렬해 놓은 카드로 딜러가 손병이 원하는 카드를 주는 행위

**콜라** 비알리에 만들어 놓은 표시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아는 것

이 외에도 고객의 손이 머리카라, 머리 호추머니, 입트, 목에 갈 때, 고객이 기침, 재채기를 하며 입에 손수건을 댈 때, 양말을 옮길 때, 쓸데없이 칩을 많이 만질 때를 유의해서 보자. 매의 눈!

### ▶컴퓨터카운터 직책하기

컴퓨터카운터(딜러) 카운터란 카드를 읽는 사람을 말한다. 다양한 수단을 쓰는데 특히 팔에 스위치를 달아 손을 움직이며 시계를 구에 올리도록 고안한 장치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를 색출하는 법은 알려주자.

### • 마케팅

법률이나 조례에서 카지노 상품을 직접 광고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카지노 전경이나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하거나 입소문에 의존해야 한다. 광고 외 다양한 프로모션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길!

#### ▶대회 주최

바카라 대회, 골프 대회, 각종 다나쇼를 열 수 있다.

#### ▶포인트

카지노에서도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콤포(Complementary)는 고객이 쓴 돈에 비례하여 쌓이는 것으로, 이 포인트로 호텔 숙박비 또는 항공료를 결제할 수 있다. 카지노마다 콤포도 전환되는 금액이 다르다.

#### ▶신용대출

크레딧이라 불리는 제도도 자격이 되는 고객에게 오직 신용만을 담보로 하여 카지노 지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크레딧은 수급률이 30% 밖에 되지 않아 카지노의 수익률을 악화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경우 수급률이 90%가 넘는다. 이거 갠 돈을 고용하지 않

#### ▶할인

콜프가 할인 정도 많은 돈을 베팅하지 않은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서비스)로 더 많은 베팅을 유도할 수 있다.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의 동반자이거나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할인율과 대상을 결정한다.

#### ▶무료 칩

카지노 게임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칩이다. 과다 발행하면 영업 실적에 낮아진다.

#### ▶버스 대령

여행사를 통하여 관광용 고객을 유도할 수 있다. 이들 관광객은 베팅을 과감히 하지 않고 단 순히 게임을 경험하고 즐기기 때문에 카지노에 큰 이익은 주지 않는다. 하지만 비수기에 객실의 점유율을 높이고, 영업이 부진한 시간에 때로 몰려오면 카지노 특유의 떠들썩한 분위기기도 조성할 수 있다. 게다가 잠재고객으로 육성 가능하다. 어서 흡수!

### 컴퓨터카운터의 특징

1. 천천히 보정한다. 2차세가 부진스럽다.
3. 비자카운터가 크(장치가 보통 다리 밑 부분에 있다).
4. 용량이 숲을 마시지 않는다. 5. 숲에 취한 척 한다.
6. 숲이 주머니 안에 있다.
7. 숲은 상복에서도 많은 돈을 베팅한다.
8. 숲은 사이조가 몸에 비해 크다.
9. 카지노에 2시간 이상 머물지 않는다.

### 손님~♥ 어서 오십시오!

미자막으로 가장 중요한 손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손님은 게임 승률, 게임 시간, 평균 베팅 금액 등에 따라 등급을 WVP, VP, 일반고 등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다. 여기서서는 중독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보자.

#### 1단계: 즐기기

**친구, 가족과 함께 단체 관광을 왔다가 카지노를 방문한 손님, 주로 심원 혹은 백원짜리 슬롯머신 기계 앞에서 일평거리다.**

#### 2단계: 격하게 즐기기

슬롯 혼자 카지노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는 손님. 슬롯머신 베팅 금액이 높아진다. 슬롯머신 버튼을 누르기 귀찮아 종이조각을 끼워넣고 즐긴다 한다.

#### 3단계: 분야 넓히기

테이블게임으로 이동한다.

#### 4단계: 직업으로 삼기

카지노 주위에 숙소를 잡는다. 호텔에서 모텔, 여관으로 나중에는 찜질방이나 월세방으로 거주지를 옮긴다.

#### 5단계: 돈까지 버는 진짜 직업으로 삼기

다른 손님의 진심부름을 한다. 담배 심부름도 하고, 게임 풀을 알려주기도 한다. 동시에 여러 게임을 하는 손님을 돕기도 한다. 손님의 지시대로 게임을 대신 수행하는 것. 여기서 손님이 돈을 따면 이 돈으로 게임을 한다.

#### WORDS

카지노 은어  
말아서 좋을 건 없다.

- **원장:** 게임장에서 진짜 가운은 사람
- **전주:** 돈이 많은 손님으로 영베팅이 들어 붙어 그들의 하인 역할을 한다.
- **호박:** VP 등 돈이 많은 손님 앞에서 일평거리며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받는 돈으로 가끔 심부름을 해서 정장하게 보찌를 받는 경우도 있다.
- **팜콘:** 딜러들이 받는 팁
- **돼지 형명구라:** 바카라



#### QnA

### 카지노 딜러 공금증

4천차 카지노 미녀 딜러에게 물어봤다.

**어저께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해주었다. 딜러를 유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유혹해봤지 안 남어간다. 회사 안에서 만난 손님을 밖에서 따로 만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또 우리는 도박하는 사람 자체를 싫어한다. 아, 오메가라 연애 상대로서 싫어한다는 말이다. 물론 손님과 결혼한 선배 딜러들이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 가는 손님이 있을 것 같다. 만나 있는 손님이 좋다. 질책기면 더 좋고, 당연하겠잖아**

**어떤 손님이 가장 싫어하?**

음하는 손님, 그리고 말 많은 손님.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손님이 있는데, 좀 시끄럽다. 그리고 아무런 공짜라지만 음욕수 많이 마시는 손님은 아무래도 좀 성가시다.

**속담수 쓰는 사람 많이 봤나?**

한 번도 못 봤다. 카운터카드를 읽는 사람들은 입구에서 색출한다. 곳곳에 CCTV가 있고 딜러가 주시하기 때문에 속임수 쓰기 힘들 것!

**호박수들이 카지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가 있나?**

손은 늘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 한다. 손을 아래로 내리거나 손가락으로 애당 카드를 계산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

**손님이 리서플(게임 도중에 카드를 다시 섞어 게임을 새롭게 시작하는 행위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간부의 제재에 따라 요구를 들어주거나 거절한다.

**딜러들은 카지노 직원 돈을 씹듯이 하고 나올 것 같다. 보통 사탕과 똑같다. 우리는 단지 게임 풀을 아는 것 뿐이다.**

**카지노 게임에서 돈을 만 적이 있나?**

마카오 카지노에서 40만 원을 배팅해 100만원을 만 적은 있다. 운이다.

**그런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카지노 게임을 처음할 경우 운이 잘 따르다는 말이 있다. 물론 하나의 실일 뿐이다.

**다른 나라의 딜러들은 어떤가?**

베네치아는 특히 딜러가 불친절하다. 마카오의 딜러는 시끄럽고 좀 더럽다. 사카카도 없고, 우리나라는 딜러들이 친절한 편이다. 진짜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의 달리 음습깝깝기 공격해 준다. 다른 나라에 가면 음습은 사 막아야 된다.

**게임에 중독된 손님을 자주 보나?**

그냥 퇴근할 때 본 손님이 내가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있는 경우가 많다. 출퇴근 시 만나는 손님이 똑같아 종종 데 자부 현상을 겪는다.



# HOT SCI-FI WOMAN 8

우리가 SF 영화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 BY 김지현



## 시에나 길로리 in <레지던트 이블 2>

**Character:** 좀비와 맞서 싸우는 특수 요원 빌 밸런타인

**Hot point:** <레지던트 이블 1>의 8 할이 주인공 밀라 여신분이었다면 <레지던트 이블 2>의 8할은 시에나 길로리다! 촉촉하면서도 강렬한 눈빛으로 적들을 노려보며 원 샷 킬시키는 모습은 좀비 때 사이에서 더욱더 광채가 난다. 좀비들의 대결백에 총알을 빔아넣던 그녀가 그렇게 강인하던 그녀가 가끔씩 내비치는 겁먹은 모습은 뒤에서 외락 달칵하고 싶은 충동을 자극한다.

**And more...** <레지던트 이블 2>에서 생사가 불분명했던 시에나 길로리는 <레지던트 이블 3> 마지막에 아주 장만 등장한다. 이리다 5편에서 주인공 꿰찰기게

## 시에나 밀러 in <지.아이.조>

**Character:** 막의 여전사 베로니스

**Hot point:** 영화 내내 온몸에 피가 통하지 않게 꼭 조이는 전신 가죽옷을 입고 지가보다 키가 큰 남자 배우들의 머리를 향해 연방 하이킥을 날린다. 게다가 금발이었던 그녀가 흑발로 변신해 나쁜 여자의 치명적인 매력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하지만 HOT SCI-FI WOMAN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시에나 밀러는 가죽옷을 입기 위해 촬영이 진행되는 5개월 동안 피부더 가루를 뿌려가며 몸을 쪼어짜내야하였고 목발할 때때문에 하타터면 소중한 가슴을 데일뻔했다. 전신에 유문이 생겼을지도.

**And more...** 시에나 밀러는 인퇴류 중 본사마의 불에 가슴 키스를 퍼뜨려야 말았다. 오오 루저들의 희망이시여 근데 말이 무슨 사이이?

## 리시야 나프 in <토탈 리콜>

**Character:** 가슴이 세 개 달린 창녀 매리

**Hot point:** 근육투성이의 아널드 슈워제체가와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본 스펀의 모습을 보면 당신도 쿵구성이 범람발름거릴 거다. 부스스한 피아미리에 게슴조례하게 뜯은 눈. 섹시한 끈-사를 입고 모닝 키스를 퍼뜨리는 그녀의 모습에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널드 슈워제체가에 방의된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정작 기억에 남는 그녀는 가슴을 여윌뿐으로 하나 더 달고 다니는 창녀다. 가슴이 세 개 별이 다섯 개

**And more...** <토탈 리콜>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주연 배우들 이름 대신 '가슴 3개'가 든다. 삼유방녀의 미친 존재력!

## 스칼렛 요한슨 in <아이언 맨 2>

**Character:** 정체를 숨긴 채 아이언맨의 비사가 되는 러시아 스파이 블랙 위드

**Hot point:** 착 달라붙는 가죽 슈트가 스칼렛 요한슨이란 글래머를 만나 원래 뻔뻔한 가슴을 더 뻔뻔하게 땡땡한 영영미를 더 땡땡하게 부각시키는 기적을 행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진짜 이유는 그 촉촉한 몸매로 여러 명의 오피스 룩을 섹시하게 소화해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엔 왜 이런 여직원 없나!

**And more...** <아이언 맨 2>에서 스칼렛 요한슨은 귀녀스 펠트로를 위협하는 인물로 나온다. 그래서인지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드 역에 캐스팅된 후 여배우들의 기싸움이 대단했고, 역시 여자의 적은 여자



### 조 셀다나 in <아바타>

**Character:** 판도와 형성 나비족 추장의 딸 네이티리

**Hot point:**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활쫓고 뛰어 다닌다. 활도 쓰고 심지어 캐리건 새 위에도 꼴질 올리된다. 정말 잘 올리된다. 게다가 몸에 걸친 가리온 실오라기 한 장뿐이라는 하지만 머털할 꼴으로 괴미하는 건 볼 로였어.

**And more...** 상인 집자의 양대 산맥인 (플레이보이)와 (허슬러)는 3D 포르노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허슬러는 3D 아바타를 패러디한 포르노 영화를 제작했다. 제목은 (This Ain't Actor XXX). 배우들의 몸에 파린 페이트칠까지 하는 열과 성을 보였지만 번도는 글빠다. 외계인이 나뉘고는 포르노다. 썰.

### 매간 폭스 in <트랜스 포머>

**Character:** 주인공의 색사한 여친 미카엘라

**Hot point:** 마이클 베이 감독은 오디션을 보기 위해 집에 찾은 매간 폭스에게 자신의 페라리를 세차하라고 시켰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감독은 즉석에서 OK 시인을 보냈다고. 이런 미친놈 하지만 자동차 보닛을 열고 있는 매간 폭스의 자세를 보면(비크 위에 웅크린 뒤태도) 감독의 마음을 백번도 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매간 폭스는 이러한 캐스팅 비화를 털어냈다 감독의 노여움을 사 3편에서 하차하게 됐다. 이런!

**And more...** 매간 폭스는 한국 남자 비가 좋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비는 "그녀와 19금 장면을 찍고 싶다"고 화답했다. 네 이놈!!

### 로즈 맥고완 in <플래닛 테라>

**Character:** 고고 안에서 여전사로 거듭나는 체리 달링

**Hot point:** 영화 초반에 봉총을 추는 그녀의 육박진 영영이와 허박지를 보는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 빠져들거다. 이제 그녀가 춤이 때에 역하버린 한쪽 다리 대신 총을 꽂고 돌아다녀도 전혀 징그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 영화 사상 가장 색사한 외다리 여인 일 터 총을 단 의족을 번쩍 들어 360° 회전하면서 춤비틀을 뽐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색사할 수 없다.

**And more...** 영국 최대 온라인 DVD 대여업체 리브윌름닷컴이 '올레 보고 싶은 영화'란 주제로 인기 투표를 실시한 결과 (플래닛 테라)가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이미 무어가 노좌적인 누드를 선보인 (스트리트즈).

### 셀마 블레이어 in <헬보이>

**Character:**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헬보이의 여친 리즈 서먼

**Hot point:** 평상연 도도하고 차갑지만 순식간에 뜨거워진다. 진짜 불에 밀리지는 그녀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리즈 서먼은 불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지만 불을 완벽히 통제하지는 못하는 초능력자라 화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주위를 활활 불타오르게 한다. 게다가 헬보이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단상이 진정한 **HOT SCI-FI WOMAN!**

**And more...**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에서 시러 미셀 겔라와 친한 카스를 나누던 순진한 고교생 기억 하나? 영화 속 그 고등이 바로 그녀다. 셀마 블레이어는 이 파격적인 동성애 키스씬으로 일약 스타가 됐다.

# Play With

UH~MMMMM  
SANGMI!

착한글래머 엄상미와 함께 하는 방콕 파티!  
wanna play with us?

BY 아샘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은진 MAKE-UP 진애 리스닝과-성당영  
ASSISTANT 김해성, 조정민

COOPERATIONS LUBICON [www.lubicon.com](http://www.lubicon.com) 02-322-88021  
홍인영리안 안대영(02-3446-7725) 미용 이-혜미  
권태호 장하진 이세영(02-3444-7712) 게스트 안대영(02-514-0639)

Good



팬티 모델즈중의인 이너웨어  
류미류브 루비준



Chun

## Good Girl? Naughty Girl?

1992년 평壤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고 14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다. 대미선교회가 그토록 부르짖던 10월 28일 휴가는 오지 않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사태지와 아이들은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 그리고 그해 어느 날, 무척 훌륭한 아가씨로 성장할 삼크미, 엉성미가 태어났다. 아, 깃  
블레스 1992

학교 다니면서 가장 억울한 기억은?  
어느 날 학교 주변 모텔에서 '엉성미 학생증 놓  
고갔다'는 전화가 교무실로 걸려왔다. 선생님이  
한테 혼났는데 내 학생증은 나한테 있었다며 억  
울해서 교실에서 평평 울었다. 알고 보니 같은  
학교 남자애들이 훔친 장난을 친 거였다. 막 웃  
으면세 그런 이상한 애들은 그냥 무시하고 싶  
다. 나중에 선생님이 사과했다.



"닉쿤이나 김현중처럼  
부드러운 스타일이 좋아요."

CUTE + SEXY + WILD  
+ HOT = It's Me!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장갑 날 걱정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다.

누가 준 건가?  
그냥 친구...? (웃음)

실제로 만나는 친구들은  
귀공자랑은 거리가 멀지만요!

PARTY with SANG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가 생기면 해보고 싶은 일은?

몰아서 펜션으로 여행 가기 아 둘만 가면 재미없으니  
까 친구들이랑 여럿이 모여서 놀고 싶다.

사진 잘 나온 것 같나?

그냥 좀 날씬하게만 나오면 좋겠다!

Show me what you got!

빨간 브라 세트 엘빈클라인 언더웨어  
(왼쪽) 핑크 브라 세트 게스 언더웨어

"Take me home!"







Summer  
Attack!!



정민, 양기, 홍미은

All Night Po



## Must Have A Muffler

BY 고정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교영은 MODEL 홍인영 ASSISTANT 조정진  
COOPERATIONS 지프, 타이헬피커, 클럽모나코(02-2138-7769)

추운 겨울 바람에 쫓겨드는 건 당신의 소중한 주니어만이 아니다! 당달이 칼바람에 움츠러든 당신의 소중한 모기지를 위해 준비했다. 머물러는 체온을 2℃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체온이 1℃ 올라갈 때마다 면역력은 5배 높아지니 점점 더 극상쾌해지는 할거머리 강기를 기분히 머물러로 물리칠 수 있다!



왼쪽 페이지>> 사뭇건 머물러가 외로움의 불꽃에  
기쁨을 부었다면, 모노톤으로 마음을 달래자.  
스카나 타러 가지 뭐  
가격 미정 클럽모나코

오른쪽 페이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제품은 옷 색깔과 입는 이의 기분에 따라  
하얀색과 빨간색 양면을 골라 사용할 수 있다.  
50,000원대 지프

허리에 두른 머물러>>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  
고급스러워 보이며 폭이 넓어서 당신의 넓은 어깨도  
충분히 다 감싸고도 남는다.

여자 친구 셀만큼 간혹이 보드라운 지푸 뽀뽀  
비비적거리게 될 거다. 100,000원대 타이힐피커



\* 이런 여자가 응원해 주면 매년 풍년일 텐데.



♂남자

귀 달개기 있는 빨간색 모자 62,000원 버튼 by 햇초은  
밝은 회색 질러 가격 미정 스톤아일랜드  
체크 셔츠 49,000원 데니즌  
하얀색 반소매 티셔츠 25,000원 아디다스네오  
청바지 108,000원 브라운브레스  
낙타색 워커 99,000원 호킨스

♀여자

한국테디베어협회 인증 상품인 크리스티 120,000원 테디베어  
목걸이와 팔찌 가격 미정 오르시아  
금색 비키니 73,000원 코데즈컴바인  
검정색 벨트 가격 미정 가이아  
허리에 두른 노란색 스카프 가격 미정 제이미앤젤  
발등 위 장식이 포인트인 구두 216,000원 일모스트릿



♂남자

행글러와 노란색 줄무늬 티셔츠 36,000원 헤드  
행글러 패딩 베스트 119,000원 반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풍기는 빨간색 후드 점퍼 100,000원대 지프  
짙은 보라색 크로스 백백 115,000원 안케이스트  
노란색 신이 포인트인 트레킹 바지 50,000원대 아디다스네오  
보라색 장화 가격 미정 네이티브

♀여자

원단에 착용한 검정색 팔찌 가격 미정 오르시아  
원단에 착용한 여담 장식 팔찌  
오른팔에 착용한 흰색 팔찌 모두 가격 미정 제이미앤젤  
보라색 도노니니 73,000원 코데즈컴바인  
짙은 갈색 스트랩 슈즈 45,000원 노퍽적인 느낌



남자

하늘색 구찌계 29,000원 원스  
하늘색 패딩 장미 199,000원 푸마  
주황색 티셔츠 49,000원 지프  
손가락이 없는 니트 장갑 가격 미정 콜럼비아  
청바지 228,000원 칼빈클라인 진  
파란색 운동화 가격 미정 밴드오플레이어  
한국 전통 방패면 10,000원  
앞리 70,000원 모두 한국민속연보문화

여자

하늘색 비키니 가격 미정 반스  
원스에 착용한 색색의 구슬 팔찌 모두 가격 미정 제이미엔벨  
오른손에 착용한 하늘색 팔찌 가격 미정 오로시아  
파란색 벨트 139,000원 마텔  
백색 아래에 달린 휴대용 단모 가격 미정 키스탑멜로우  
하늘색 무즈 39,800원 슈즈힐



\* 에헤야 디아 바람 분다.



남자

머리 보호대 38,000원, 가슴 보호대 76,000원 모두 아디다스  
일러스트 프랜징 민소매 티셔츠 가격 미정 폴링코5스페이스  
원색과 검정의 고무 스트랩 시계 218,000원 블랙다이스  
넥타의 검버섯 라이플 by 웨어하우스  
하얀색 하이톱 100,000원대 크리에이티브 레크리에이션

오독이 모양의 판치백

골색 바랜타이 점퍼 570,000원 코올로스호프  
짙은 카키색 태딩 점퍼 239,000원 바커루진  
스웨이드 소재의 슈즈 119,000원 호킨스

여자

검정색 탱크 톱 54,000원 푸마  
메탈 링 장식이 돋보이는 목걸이 가격 미정 오르시아  
팔뚝에 두른 체인과 검정색 끈으로 된 목걸이 98,000원 알렉트 지  
노란색 비키니 가격 미정 반스  
에니멜 소재의 사이 하이 부츠 가격 미정 가이인

\*미안해 금메달은 너무 쉬워



남자

머리 위에 걸친 갈색 프레임 선글라스 575,000원 존칼리아노 by 다리인타네셔널  
빨간색 패딩 장미 289,000원 라이플 by 웨어하우스  
화색 데님 바지 가격 미정 미정 플립업나오  
파란색 끈이 포인트인 강장세 유키 519,000원 마벨  
낙타색 맥락 108,000원 커버넌

여자

빨간색과 흰색 비키니 68,000원 크레즈잡버린  
캐디원 금색 구슬이 여러 개 달린 링지 108,000원 케이트 스페이드  
파란색과 빨간색 구슬의 팔찌 가격 미정 제이미앤벨  
빨간색 호피 루니 쿠두 189,000원 게스



\*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있겠나?



\*여자

호피 무늬 비키니 76,000원 코데조컴바인  
검장색 하플 뽀치, 검장색 풀피 모두 가격 미정 제이미엔젤  
리본이 달려있는 풀피 가격 예스케이컬  
악어가죽 스트랩 슈즈 358,000원 카사

\*남자

방울 달린 레안세 털모자 가격 미정 클럽모나코  
노란색과 검장색 그래픽이론을 넣은 배딩 점퍼 109,000원 잠방이  
파란색 바림마이 138,000원 커바넌  
화색 백팩 189,000원 티레벨 by 웨어하우스  
패딩 점퍼 주머니에 있는 카키색 니트 장갑 가격 미정 라이플 by 웨어하우스  
주황색 스트랩 시계 348,000원 타이맥스 워치 by 갤러리아블락  
청바지 155,000원 라코스데  
하늘색 운동화 200,000원대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 외국에서 우리 인기 좀 있어요.





## 그녀가 나를 향해 까르르 웃었다

하드웨어가 완벽하면 첫 눈에 끌린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하드웨어라도 계속 보다보면 질린다. 멋진 하드웨어에 훌륭한 소프트웨어까지 갖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포사는 훌륭한 하드웨어에 행복한 소프트웨어, 거기에 자능까지 탑재한 유부다. 중국 주나라 2대 왕이었던 유왕의 혼을 쏙 빼놓은 여우 같은 기집애가 바로 애다. 천하의 미색이 들끓는 궁궐에서 왕의 마음을 주고 혼을 정도였으니 포사가 절세 미녀라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그녀가 왕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명칭만 다른 공녀들과는 달리 자신의 매력을 한꺼번에 다 드러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사용했다는 데 있다. 왜 여우같은 기집애라고 했는지 알겠지?

### PROFILE

**이름:** 포사 / **주목가:** 눈을 요령하게 뜨고 뇌싸적으로 웃기

**수법:** 평소엔 절대 웃지 않다가 결정적인 부탁을 해야 할 때만 왕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그녀의 수법에 홀려감 넘어간 왕은 그녀가 웃는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었던 나머지 포사를 웃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취하게 된다. 그래서 그녀가 두무지 웃을 기미를 안보이자 왕은 나라 전체를 상대로 대사가기를 발한다. 전쟁도 안 났는데 봉화를 울려 전국의 제후들을 불러오게 한 것. 포사는 그제서야 행복웃음을 지었고 이후 왕이 자신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안달이 나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그녀는 그 뒤로도 중요한 부탁을 해야 할 때만 왕을 향해 웃었다.

### 실천연습

**상황 1.** 12월 24일 일고 지내던 이는 (여자)동생을 만났다. 평소 도도한 표정으로만 당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오늘따라 미묘하게 다르다. 그러다니 당신을 향해 예사시 웃는다. 그녀의 심경에 무슨 변화라도 생긴 걸까? 나에게 돈이라도 빌리려는 심산인가? 도대체 이걸 무슨 시추에이션인가?

**눈치 포인터:** 평소 잘 웃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당신을 향해 함박웃음을 짓는다.

**그녀의 심층:** 둘 중 하나다. 그녀의 갑작스런 꽃미소는 '재발 나를 유혹해 주세요' 혹은 '부탁이 있어요' 라는 무언의 신호다. 호시탐탐 작업 기회를 노려왔던 당신에게겐 절호의 찬스다. 일단 그녀의 웃음을 못 알아차린 척 넘어가며 그 소근을 만끽하라. 그리고 적당한 기회에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라. 이때만큼 당신의 말발이 잘 먹히는 때도 없다. 그동안 MAXM을 통해 갈고 닦은 지성과 유



"시원하게 좀 빌어봐"

IMAGES Dreamstime.com



## 내가 힘들면 더 상냥해지는 그녀는 흑시 스파이?

얼굴이 예쁘든다 똑똑하기까지만 여자는 피곤하지만 예쁘고 똑똑하고 당산한테만 머리 버리니까 여자는 너무도 사랑스럽다.

나리를 뒤집어엎은 중국 4대 미인 중 한 명인 서사가 바로 그런 여자였다. 할나리 최고의 미녀였던 서사는 오나리에 간첩으로 보내졌고 서사는 미모와 지혜 콤보 세트로 오나라 왕을 제대로 구워삶았다. 얼굴이 못생기고 머리가 나쁘면 스파이 짓도 못한다.

### PROFILE

**이름:** 서사 / **주목가:** 부드러운 태도와 우아한 말투

**수법:** 궁중에 있는 다른 여자들은 모르는 사실을 백선에게 알 정도로 차려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신의 똑똑함을 이용해 바가지표를 끊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태도로 왕을 향한 존경심을 내보이며 왕에게 자신의 의결을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그리고 왕은 큰일인 적은 일인데 서사가 묻기 전에 털어놓게 하고 급기야 그녀의 지지가 없는 어떤 일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실전연습

**상황 2** 포지션은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능력자다. 당신은 회사에 심각한 일이 생겨 며칠 내내 긴급 회의를 하는 날 몹시 지쳐있다. 그런 당신에게 그녀가 몹시 잘려준다. 평소에는 절대 해주지 않던 생과일주스를 손수 만들어 주고 피곤에 찌어 뺨이바린 당신에게 다가와 인마도 해준다. 게다가 애교까지 더 시켜준다. 하하하하

**눈치 포인트:** 피곤한 당신에게 급진절하다. **그녀의 신호:** 피곤해 보이는 당신을 정말 걱정해서일 수도 있지만 절묘하게도 그 타이밍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라면 '당신 회사의 비밀을 알려 줘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다. 어쩐지 작업 빠르거나 내세울 것 없는 당신에게 초절정 미녀가 접근했다 싶었나? 그렇다면 그녀는 스파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그녀의 따뜻한 친절과 온화한 말투, 몸짓 애교로 피곤이 싹 달아나 사나이의 기운을 회복한 당신이 그녀

와 불타는 밤을 보낸 후 점점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제 자기도 모르게 회사 기밀이 술술 새어 나간다. 하지만 그녀의 유혹이도 버텨낼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녀에게 거짓 정보나 감기피 뽀인 정보만 흘려보낼 것

서사는 오나리를 하루빨리 망하게 하기 위해 왕과 집사리를 함께 할 때마다 온갖 애교로 그를 홀리며 정병 전장을 부추겼다. 결국 왕은 전쟁을 일으켰고 보기 좋게 지고야말았다!

머를 그녀에게 가깝 없이 드러내 보여자. 그녀가 교태 섞인 웃음소리를 내며 당신의 기승에 난 말을 먼저작 거라나? 그렇다면 작전성공이다. 그녀에게 지금 당장 섹스하자고 말하라. 만약 당신이 쓸데없는 말발을 늘어놓는 동안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간다면 분명 **부탁**이 있는 거다. 그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해야할 몹이다. 그녀가 정말 예쁘다면 눈 막 감고 들어주든지

포사에게 흘렸던 유왕은 그녀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다 결국 반란군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내 때 좀 맞춰보소"





## 몸으로 말해요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한공의 총애를 받아 왕비 지위를 뺏긴 여희는 한공과 한공이 신임하는 부하 두 명 까지 섹스 파티너로 둔 권력의 실세였다. 핵심 인물을 꼭 잡고 있으니 매사가 그녀의 마음대로 술을 흘러갔다. 당신도 친한 친구들을 조심할 것. 그녀가 언제 어떻게 그들을 섹스 파티너로 포섭하여 모두를 구멍 뚫어서 만들지 모른다.

### PROFILE

**이름:** 여희 / **주목가:** 목덜미를 파고드는 스캔십

**수법:** 뛰어난 미모로 왕을 추린데 이어 왕의 가장 큰 신임을 얻고 있는 심복인 양왕과 권력을 스캔십으로 유혹했다. 오숙한 풀술에서 일부러 떨어져 자신을 부촉하게 한 다음 그들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자신을 던지게 했다. 이후 그녀는 뜬눈으로 양왕과 관요를 불러내 술에서 온 우정장을 나누었다.

### 실전연습

**상황 3** 도도한 그녀를 겨우 고드거 술로 눌러간 당신 인맥이 드문 풀술에 들어사자하자 그녀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풀 위에 그대로 주저앉는다. 깜짝 놀란 당신이 그녀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고 묻자 '나뭇가지에 걸려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으니 나를 부촉해 달라'고 말한다. 그녀는 당신의 품에 안긴 채 가슴팍을 더욱 더 파고든다.

**눈치 포인트:** 그녀가 당신의 가슴팍을 파고 든다.

**그녀의 신호:** 쿠엔틴 타린티노 감독의 <레스 브루프>에는 '남자가 사주는 술을 마디할 여자는 없지'란 명대사가 나온다. 당신도 술집이나 바닷가에서 마음에 드는 그녀에게 맥주 한 병을 건네봐라. 대다수의 여자들이 거절하지 않을 거다.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을 매몰차게 마디않는 그녀들이 먼저 당신의 가슴팍을 파고든다는 건, 자 이제 그녀가 팔 **원하**는지 명백해졌? 그녀는 '나 내랑 자고 싶어요'라는 신호를 열심히 보내고 있는 거다. 이거 못 알아치하려면 바보지.

하지만 은근히 이 신호를 못 알아치하는 수컷들이 많아서 속이 터질 것 같다고 편집부 여자 에디터 1인이 털어냈다.





오늘 밤은 아들이 무서워요

## 여신 꼬시는 법

자, 그녀가 보내는 신호를 대강 알아차렸으니 심화 단계로 들어가 보자. 여신들을 마음대로 골라잡은 그들의 비법들은 역사책에서 쑥쑥 뽑아냈다. MAXM은 혼해빠진 연애비법서에 나오는 험한 말들은 늘어놓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검증된 여신 꼬시는 법!

### 서경역

**누구:** 조선의 유학자이자 황진이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

**무기:** 무심함

**무기 활용법:** 황진이는 학문의 경지와 인품이 높다는 서경역을 꼬시로 마음먹었다. 직정하고 담백한 설마인 날아오겠느냐는 자신감으로 서경역에게 접근했지만 그는 자신을 유혹하려 온 황진이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황진이는 '이런 남자 내가 처음'이라며 서경역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며 존경하게 됐다.

**교훈:** 예쁜 여자에게는 고고한 학취를 끌어라. 자신에 게 질해주는 남자들에게 약속해 있던 그녀는 당시의 무심함에 자기도 모르게 신경을 쓰다 그만 빠져들고 만다. 이런 남자는 내가 처음이야!

**부작용:** 예쁜 그녀의 주유엔 남자들이 날리고 날렸다. 주유도 모르고 시크하게 굴다가 뒤도 세도 모르게 어정에서 쫓겨 나간다.

### 노예

**누구:** 날근이 거대한 건달

**무기:** 고추

**무기 활용법:** 노예는 자신의 고추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썩 커서 마차 바퀴를 돌릴 수 있을 정도라는 소문을 냈다. 이런 대단한 새끼 이 소문을 들은 여부가야 밤낮으로 남자를 찾는 황후 조희에게 그를 바쳤다. 소문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노예가 입증하자마자 황후가 그의 웃을 찢었는데 노예의 거시기는 상상 이상

으로 크고 힘도 세서 한 번 키지면 줄어지지 않았다. 이런 알찬 새끼 노예는 그녀와 몇 번 공함을 맞추더니 날마다 새롭고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이것이 바로 신세계

**교훈:** 남자는 자고로 썩어 한다.

**부작용:** 그것이 작고 귀엽다면 낭만이다.

### 서동

**누구:** 마을 개서 출어머니를 모신단 가난한 청년

**무기:** 헛소문

**무기 활용법:** 서동은 진평왕의 딸 선화 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로 갔다. 아이들에게 마을을 나누어 주면서 '선화 공주와 서동이 같이 낮이 밤에 올라 정을 통했다'라는 내용의 노래를 지어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선화 공주는 이 노래 때문에 귀양을 가게 됐고 서동은 귀양 가는 그녀를 만나 친피로 정을 통했다. 결국 마을 개서 팔던 이 사기꾼 같은 녀석은 백제의 무왕이 됐다. 헛소문의 좋은 예.

**교훈:** 말이 씨가 된다.

**부작용:** 조선시대 어떤 노파는 김은애라는 여자와 마을 총각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에 혼사침이 막혀버린 은애는 노파를 찾아가 부엌 칼로 수십 방울 쑤새했다. 헛소문의 아주 나쁜 예.

### 미생

**누구:** 신라 최고의 비평대미 / 무기: 화장

**무기 활용법:** 항상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여자를들 쳐다보거나 해도 다 쓰러질 정도였다. 일단 얼굴이 잘생겼고 언변과 춤에 능하다. 자카타 백

명이 넘어 본인도 거역을 잘 못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긴장이 풀 거다. 어렸을 때부터 공주들을 건드리고 다녀 진흥왕이 '재 왜 저러냐'고 분노하자 이모인 사도왕후가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러니 이해하라'고 친정사했다. 누나가 미살이니 알면하지?

**교훈:** MAXM 그루밍 페이저를 정돈할 것

**부작용:** 본관이 구려대 화강까지 됐다고? 완전 빠이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 잘생기야 화강밭도 잘 밟는다. 그 중 최악은 얼굴에 여드름이 딱지처럼 난 경우다. 율동불문한 피부에 바른 비비크림이 화염계 온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서로를 향해 토사물을 발사하게 될 거다.

### 비보온달

**누구:** 함 대 등네 비보 / 무기: 백치미

**무기 활용법:** 평원군은 딸 평강공주가 올 때마다 '비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버리겠다'라고 한바했다. 평강공주가 6살 때 왕이 좋은 집안의 남자와 혼인을 시키려 했지만 평강공주는 이를 거역하고 친피로 비보 온달을 찾아가고 결혼했다. 비보 온달은 손가락 하나 깨뜨리고 공주를 아비로 맞았다. 그 후 평강공주는 비보 온달에게 무술과 학문을 가르쳐 최고의 장군으로 만들었다.

**교훈:** 백치미로 장인어른을 공박하거나 부모를 향한 여자의 반항심을 자극하라.

**부작용:** 장인어른 공박에 기적적으로 성명에 능려져야 배를 얻었다리라고 그게 말이 아니다. 비보 온달을 끝까지 따지 않으면 건 후에 장군이 되었기 때문이란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당신이 평생 비보로 머무른다면 그가 당신을 죽이려 들거다.

# HOT 한 그녀의 작품이 궁금했나?

그녀를 마주친 순간 당신의 뚝뚝이가 아몰레드처럼 지체 발광했나?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녀가 누구인지 찾아 나설 차례다. 공부만 아니던 당신도 능동형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오해 나라니까

범을 찾으려면 굴에 들어가야 하고, 그녀의 작품을 찾지 마라. "스텝 비디 스텝~ 우 니베르"는 아니지만 친절히 설명별로 설명해주겠다. 독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 노출칠 작품 또는 대물(가)를 강조한 작품은 배제했다. 넉넉한 이해 부탁한다.

## 상황 1

당신이 그녀의 일본 이름을 알고 있다(아니 어떻게) 그것도 일본어로(대단한데) 축하한다. 당신이 그녀의 이름을, 그것도 일본어로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다. [www.dmm.co.jp](http://www.dmm.co.jp)에 접속하라. 그리고 검색어에 매우 이름을 입력해(재)한마디로 'AV' 라고 쓰인 항목을 클릭한 후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한 소리)라 빙고 이제 그녀가 출연한 작품을 목록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남은 건 이제 토렌..

吉沢明歩

우리나라의 적극적 친구들 덕분에 위의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땐 우회접속을 이용해야 한다. 별거 아니다. 이곳에 접속한 후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바로 이곳! <http://anonymouse.org/anonwww.html>

## HOLLY EXPO

### 세계 유명 AV 박람회

2011년 해외여행 추천 코스는 바로 이곳(은?).



#### AVN 어워드(Adult Video News Award)

세계의 시선을 끄는 AV 시상식.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할리우드 아카데미 시상식의 성인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빠르겠다. 90년대는 AVN 시상식 때문에 라스베이거스를 찾는 관광객이 넘쳤을 정도다. 요즘은 우리나라 예로 비디오 시장처럼 포르노 업계가 침체 모드로 행사 규모와 참가자가 대폭 줄었다.

#### 베를린 비너스 페어(Venus Fair)

비너스라니 이름부터 먹어준다. 매년 10월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의 포르노 영화제다. 시상식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포르노 박람회와 관련 비즈니스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무엇보다 일본도 참여하는 영화제라는 게 포인트다. 물론 안 통해도 수컷이러면 그녀의 보드랭귀지는 통하든 마련 그녀 나 내내 휴가는 베를린으로!

#### 모스크바 어덜트 페어(Adult Fair)

최근 가장 잘나가는 포르노 박람회다. 포르노 산업의 강호로 떠오르는 체코, 러시아를 등에 업고 행사 규모와 참가자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베를린의 AV 시상식이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대안이다. 소규모 아마추어 제작(성인) 방송과 일인 미디어(직접)의 경쟁에도 불리지 않는다는 등유류 포르노 제작 업체의 자신감이 반영적이다.



MAGIC EYE

일본어라고 쫓지 마라!

이것만 알아두면 당신도 까막눈 신세를 면한다.

예제 Moodyz MIAD-319 POLE DANCE FUCK Serina Hayasaka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중요 포인트만 일러줄 테니 잘 기억해두도록

1 [Moodyz]

AV 레이블 이름이다. 관련 내용은 MAXIM 11월호를 참고할 것

2 [MIAD-319]

물론이다. 이것만 있으면 작품 검색은 물론 여배우의 이름까지  
가릴 게 없다.

3 [POLE DANCE FUCK]

작품 제목이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4 [Serina Hayasaka]

배우 이름이다. 마음에 드는 배우라면 이름 정도는 기억해두면 편  
하겠지?



상황 2



당신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 이름이다.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어디인가?  
대부분 구글링의 도움을 받아  
아겠지만 운이 좋으면 국내 포  
털 사이트에서도 그녀의 일본  
식 이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상황 1'로 바  
로 넘어갈 수 있다. 유일한 점은  
'NGAGARA HAWA'처럼 꼬부랑  
글씨에 약한 당신을 노리는 낯  
사꾼이 많다는 거다. 저런 단어  
를 검색해봤자 당신이 찾는 그  
녀의 이름을 찾을 수 없을 테니  
정신 똑바로 치릴 것

WHITE MASTER

본죄들의 거처

그들의 안목은 기히 천하제일이라 하겠다.

야구 동영상 시대(avlov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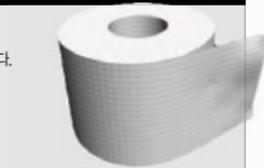
신작 정보가 궁금한 이에게 제격이다. 영도의 트  
랜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잠시 만  
다봤다 감백했다. 당신에겐 천만다행이다.

mireatoo의 블로그(blog.naver.com/mireatoo)

AV 정보라기보다는 관련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글을 만날 수 있다. 주인공의 내용이 상  
당하여 있는 즐거움이 있는 곳 업데이트가 자주  
이뤄지지 않는 건 단점이다.

노총각 대야세의 블로그(daeysae.pe.kr)

이름을 모르거나 AV 재야 고수를 안다고 할 수 없  
다. 다양한 장르물에 대한 총칭상인듯 평가가 인  
상적이다. 맛보기 영상이 물론 작품에 등장하는  
일본어도 소개하니 '이제야'~ 밖에 모르는 당신  
의 일본어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기회다. 즐겨찾  
기는 필수다.



kjname의 블로그(kjname1story.com)

영화 평론처럼 한 작품을 깊게 파고 들어간 리뷰  
가 매력적이다. 리뷰를 읽고 본 작품을 감상한다  
면 금상첨화 대소 매아터러한 장르나 배우도 다  
룬다는 게 강한 주인공의 친절한 댓글은 이곳에  
들르는 재미를 배가시켜줄 거다.



## 상황 3

당신이 그녀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녀가 출연한 작품의 표지를 갖고 있다(음기).

표지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않겠다. 이제 풀편을 확인할 차례다. 읽는 방법은 귀동이의 박스 기사를 참고하도록, 검색창에 품명을 입력하면 그녀가 출연한 작품은 물론 그녀의 이름, 비슷한 장르의 작품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올레!

### MOTTO! MOTTO! HAYAKU!

## 수집 마니아

하드에 저장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찬단 말인가!

※MAXIM은 옐도 완송이가 기빠하는 작품을 외화를 낭비하면서 구매하는 것을 결코 권장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 즐거찾기 리스트

- www.bokenya.jp
- www.book.co.jp
- www.videomenial.co.jp
- www.pasocomclub.co.jp
- www.sokmil.com
- www.douhou.com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을 거다. 물론 구매할 때 신중키나 페이백은 필수다. 없다면 그냥 눈으로만 감상해라. 괜히 외화 낭비하지 말고!



### SM TOWN #1

## SM 용어 풀이 #1

설마 소녀시대 기획사를 떠올린 건 아니겠지?

※풀이가에 앞세

**S: 사디스트** - 상대를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

**M: 마조흐스트** - 사디스트와 반대. 상대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받는 행위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

이 둘을 통틀어 SM(사디스트&마조흐스트)이라고 부른다. 당신 주변에도 SM 생각이 있는 사람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들의 성격 정체성이 궁금하다면 아래 용어를 바탕으로 던져보도록 답서 문제라 그그그그... 말 안 해도 알겠지?

**바닐라!** 일반적인 성격 취향을 가진 이를 부르는 말이다. 배드해가 속한 바닐라 푸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이 즐겨 먹던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맛을 떠올려봐라. 맛은 있는데 링겔하지 않-? SM이 뜻속 깊이 박힌 이들에게 일반적인 방앗간 라이프 역시 비슷하게 느껴진다. 간혹 바닐라가 SM 플레이어로 기성하여 금문을 갈망하거나, 자선해서 묵인 상태를 강박하는 사견도 있다.



**돔!** 풀기 떠올린 놈은 반성해라. 영어 도미넌트(Dominant)의 약자로 상대를 지배하면서 쾌감과 만족을 얻는 사랑을 말한다. 사디스트와 비슷하지만 상대를 지배하는 것 자체에 비중을 높게 둔다. 보통 '돔'(Dom), '도메'(Domme), '주인'(Master), '여주인'(Mistress)이라 부른다. 이 중 짝들은 Male(남자) + Dom(재해자), Fem(여성) + Dom(재해자), 채찍을 든 여왕 캐릭터를 팬이라고 이해하면 빠를 거다.

**섭!** 으라! 개인 서버를 생각한 놈은 반성해라. 돔의 반대 의미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자체가 삶의 보람인 사람이다. 당신이 본 이중에 나오는 복종형 여자 캐릭터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거다. 보통 '사브'(S.S), '노예'(Slave), '여원동물'(Pet)이라고 부른다. 미친기자로 웹섭 = Male(남자) + Sub(피지배자), 웹섭 = Female(여자) + Sub(피지배자)다. 웹섭은 (디트로이트 메탈리카)에서 늘 매와 육을 썬 싸드시며 흥분하는 중년 남성팬을 떠올리면 되었다.

**스위치!** 집에 달린 스위치처럼 돔과 섭을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 말한다. 워드지 그렇듯 박진 같은 타입은 SM 플레이어로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이도 있다. 여왕 타입에 복종하고도 있고, 여인 여자를 지체하고 싶은 남자도 분명 있으니까 말이다. 보통 SM 생각이 오히려 초보 시절에 스위치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 Shoot, Shoot, Shoot! Laser For Skin

피부에 꼭 맞는 레이저를 만나면 당신도 훗 훗 훗



### 피부와 전문의 영우제 원장은?

- 글리닉 원장, 강남글리닉 강동점 원장 역임
- 비룡글리닉 청담점 원장 역임, 대한비건료학회 상임이사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글리닉 네트워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4번지 에메랄드타워6층  
www.golnic.kr 02-549-2575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일단 자신의 피부 상태를 알고 피부 개선에 필요한 사술법을 알면 피부 아무 일도 가는 이 경쟁에서 당신은 백전백승이다 아래 표를 참고하라

당신의 결집은?		
주근깨가 많이 잡혀가고 고 모공이 넓다. 피부톤 을 화사하고 밝게 개선 하고 싶다.	어두운 여를 흉터가 있고 모공이 넓다. 피부 결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화시키고 싶다.	여는 내 모든 고민을 동시에 하고 싶다.
패키지 처방전		
화이트 패키지	소프트 패키지	복합 패키지
+ 레이저 토닝 3회 + 스킨코 레이저 필링 3회 + 마이피델 2회 + 뉴아미스 1회 + FCR 필링 1회 + 엔자이그라피 1회	+ 프락셀비 레이저 2회 + FCR 필링 2회 + 마이피델 2회 + 뉴아미스 1회 + 탄산가스 레이저 1회 + 엔자이그라피 1회	+ 레이저 토닝 2회 + 스킨코 레이저필링 2회 + 마이피델 2회 + 프락셀비 레이저 1회 + FCR 필링 1회 + 뉴아미스 1회 + 탄산가스 레이저 1회 + 엔자이그라피 1회

▶ 가지 패키지 처방전엔 다양한 사술이 포함된다. 각 사술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진행되므로 피부 개선을 위한 패키지 사술은 꼭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피부 타입과 현재 상태, 환자 개선의 스케줄에 맞춰 사술 순서가 정해진다. 환자에 따라 추가 사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환자의 피부 타입과 맞지 않는 사술이 있다면 다른 사술로 교체하기도 한다. 즉 패키지 피부 클리닉 처방은 환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형이 있다.

### ▶ AND MORE...

일단 패키지 사술은 하루 아침 먹기 전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겠지? 앞서 말했듯 각 사술은 일주일에 한 가지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패키지 사술은 어떤 사술을 묶은 종합 선물 세트가 때문에 전례 소요 시간은 약 12~15주다. 하지만 각 사술은 길이가 10~20분 사이에 끝난다. 물론 사술 전에 필요한 클렌징, 각질 제거, 사술 후 자극 완화 팩으로 피부 진정 등에 드는 시간이 지 포함하면 시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사술 후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피부를 관리해야 하는데, 특히 태양광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등의 노력에 따라 사술 효과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무엇보다 사술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당신의 골 결집 같은 피부가 새턴인 도자기가 돼서지가 금강하듯 지? 보통 사술엔, 개안별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다르다. 대략 레이저 토닝은 5~10회 후, 마이피델은 3~5회 후, 프락셀비와 FCR은 1~3회 사술 후 피부가 당겨지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레이저 사술을 마치고 나면 약간의 흉터와 개은 딱딱이 생기는데 (대개 하루 이틀 후엔 사라진다). 당연히 풍 싸고 밍 먹고 일을 하는 일상생활은 모두 가 능하다. 다만 프락셀비 FCR 필링은 1주일 간격 동일이 다소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체질상을 위한다면 레이저 토닝은 1주일 간격을 두고, 마이피델과 프락셀비 3주 간격, FCR은 2주 후나 가능하다. 뭐니 뭐니 해도 패키지의 가 장 큰 장점은 개별 사술을 모두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다. 개별 사술을 다 시험해보고 싶다면 250만 원이지만 여러 레이저 사술을 묶은 패키지는 50만 원 선으로 100만 원가량 저렴하다.



### 이세올 옴-리제네레이팅 에멀전

100ml 54,000원  
파스를 바른 후 시원 느낌이 약간 자극적이 연신도 느껴진다. 자기 전 연도 후에 바로 면 다음 날 아침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했다. 수분 공급, 피부 보호, 피부 재생성, 영양 공급을 한번에 해결한다는 데, 나처럼 피부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려면 편하게 사용 하기 좋을 것 같다. 다만 약간 번들거린다. 백태도(23, 지상)



### 크리링크 -SSFM 에이치 디엔스 하이드레

이터 SPF 15 50ml 52,000원  
겨울철이면 항상 싫어하는데도 끈적임이 없어서 화장품을 바르지 않았다. 이 제품은 들고 다니다가 만난 사 이즈에, 사용감이 산뜻하지만서도 촉촉 해서 만족스러웠다. 민준(17, 건설)



### 비오them 옴-아우라파워

75ml 49,000원  
발랐을 때 딱 느낌이 좋다. 끈적임이 없고 부드러움이 일어난다 빠르게 흡수된다. 제품이 피부에 닿는 순간 충분한 보습감이 느껴진다. 세안 후 피부가 많이 맑고도 화장품 특유의 끈적임을 싫어하는 사람이 사용하면 좋을 듯. 현우(26, 복합성)



### 더 페이스샵-네오 클래식스옴 그루밍 비비크림 SPF20 PA++ 50ml 10,900원

피부가 어두운 편이라 너무 밝힌 비비크림 은 부담스러운데 이 제품은 일광색과 동떨 어진 느낌이 자연스럽게 흡수된다. 제품이 피부에 닿지 않게 해준다. 처음에는 끈적이는 느낌이 강하지만 흡수가 빨리 되니까 거 거 의 일도 끈적이지거나 번들거림이 없다. 거 거, 가래도 지름만 것 같다. 정태(27, 건설)



### 게스트맨-24시 하이드레이팅 물무이드

75ml 47,000원  
T존 부위는 유진 목발, 다른 곳은 사하라 사막인 피부라 컨도들이 어려웠다. 하타나 예 어전에도 민감한 편인데, 이 제품은 보습력 이 뛰어나서 피부를 히터 바람에 쉽게 건조 해지지 않게 해준다. 처음에는 끈적이는 느낌이 강하지만 흡수가 빨리 되니까 광 광 피부가 촉 촉해지려 한다 시원하다. 이 거 거 제품으로 유제 조절과 보습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장 점. 임두(29, 복합성)

# HALLOWEEN PARTY LOOK

BY 스타일 PHOTOGRAPHS BY ARC STUDIO



POINT

할로윈 파티라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신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독특한 액세서리나 포인트 컬러로 평소복에 유희함을 담자.

## Q 좋아하는 브랜드?



1

강릉지코 / 패션 MD

안경, 대님 셔츠 반티지  
귀여운 일러스트가 있는 아구 점퍼  
로고인 스웨터  
하늘색 반바지 핑귄 바지 연상해  
줄무늬 레깅스 일본 반티지  
주황색이 포인트인 운동화 데생트

A. 핑귄 바지 연상해



2

이수형20 / 학생

의상과 슈트 모두 반티지

A. 반티지



3

최형규20 / 자원봉사 직원

검정색 프레임 안경 톱모드  
짙은 하늘색 티셔츠 자라  
검색 싱글 코트 힐센더  
검색 팬츠 자라  
보라색 끈이 포인트인 운동화  
아디다스  
하늘색 토트백 프라이탁

A. 프라이탁

**MAXIM SAYS - 1.** 포인트 컬러는 주황색 아구 점퍼에 있는 다양한 스티치가 평범한 점퍼를 돋보이게 한다. 쇼츠 안에 입은 줄무늬 레깅스가 발랄하지만, 자칫 잘못 따라했다가는 다리가 짝아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 **2.** 호일 파티에 적합한 슈트 차림으로, 블루 셔츠와 짙은 고풍색 팬츠로 색 대비를 주어 경쾌함을 살렸다. 셔츠와 비슷한 색감의 핑귄티포와 빨간색 타이의 조합이 센스있다. **3.** 여친과 함께 가실 나왔다 카메라에 포착됐다. 폰이 다른 검정색 게이머 아이템을 매치하고, 기방과 운동화로 포인트를 했다. 그리고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마무리

WEIRD

할로윈 파티장에선 독특한 의상일수록 환영받는다. 남자가 화장을 해도 용서되는 날이지. 포인트 컬러는 기왕이면 파를 상징하는 붉은 계열이 좋겠다. 여기 이 사람들이처럼.



1

우병진20 / 학생

검정색 모자 반티지  
빨간프레임의 히트 선글라스 반티지  
빨간색 더블 브레스트 재킷 크리틱  
검정색 티셔츠 슈프림  
검정 브로치 카시오  
검정색 바지 카이마크반  
빨간색 워커 패스파인더

A. 반스



2

안동욱21 / 비디오 아티스트

검정색 프레임 안경 레이벤  
흰색 셔츠, 검정색 타이, 빨간색 슈트  
모두 노다지 테일러  
검정색 로복 조지복스

A. 노다지 테일러



3

정진원20 / 야구선수

의상 모두 야구복  
운동화 리복

A. 구찌

**MAXIM SAYS - 1.** 온통 붉은색으로 차장 하고 'Beat It' 춤을 추고 있던 당시 마이클 잭슨이 지하에서 온다. 그만 해라. 히트 선글라스에 온통 빨간색으로 차장하여 할로윈 파티를 민낯할 준비 완료! 안 그럼 할로윈이 아니지. **2.** 일리서부터 빨간색 슈트 간지를 보고 다가가더니, 빨간색 셔츠가 더 된다. 당시 진짜 사람 맞지? **3.**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란 말은 당신을 두고 한 말인가. 얼굴에 자신 없는 사람은 이 팁을 기억해두었다가 다음에 따라해 보자. 야구복을 응용한 스타일링은 칭찬 받을 만 한데 알고 보니 야구 선수란다. 이 사람이, 야구 선수라면서 야구복 지갑지도 않나?

# 2010 F/W MEN'S GROOMING SOLUTION

남자의 피부는 여성의 피부와 여러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성의 피부상태에 따른 특별한 전문 케어 제품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하고 살얼이 허겁게 일어나기 쉬운 계절에는 보습력이 좋은 세안제와 모공관리 그리고 보습력이 우수한 로션 제품을 사용하는 걸 잊지 말자 하지만 아무 로션이나 바르는건 아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지가 자란다. 국내외 그루밍 가이들이 추천하고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나보자



## 프랑스 명품 에스테틱 남성 스킨케어 이세오 옴

이러 프랑스,미국,독일을 비롯한 세계 2천여개의 고급 스킨 케어 실험과 파리 컬러의 라피에와 프랑스 박람회까지 판매하여 각광을 받고 있는 프랑스 에스테틱 남성 화장품 isseo HOMME 기술과 원료를 모두 자체 제작한 100% 순 식물성 주원료를 제품으로 일본,미국, 프랑스보다 두꺼워 피부피해를 받고 주름지기가 쉬운 남성피부를 정확히 이해하여 각각의 제품으로 함유된 엑티브한 원료의 효능으로 최상급의 품질인 남성 스킨케어가 탄생하였습니다. 제품 문의처\_www.mnq.co.kr



## 2010 F/W MEN'S SKINCARE TIP

가을, 겨울 남성 피부관리 이렇게 하자!

건조하고 온도가 낮은 계절은 피부의 많은 양의 수분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용 제품이 주름 및 피부노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좋은 피부를 유지 할 수 있다. 각질이 쌓이면 기진피부결의 원인이 된다. 일주일에 한번은 아드론을 사용하면 각질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제거하자. 남자의 적당하고 올인, 그로, 스프레스는 주름을 촉진하고 피부탄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좋은 보습로션을 발라주고, 제형력이 좋은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하자

### CLEANSING

각질과 노폐물을 세척의 필수품 반박

### MOISTURIZING

충분한 수분과 보습으로 피부를 보호하라

### ANTI-AGING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주름을 예방하라



모공 속 노폐물과 피지, 블랙헤드 제거하고 넓은 모공을 조여주자!

프랑스 아자르 그린 클레이 페이스트

피지 블랙헤드 모공 속 노폐물을 완벽히 제거하는 100% 프랑스 천연 아드레.



넓은 모공을 관리하고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고농축 비타민C 토닝젤!

이세오옴 토닝젤 비타민C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 및 수분을 공급해 탄성 생기고 광한 피부로 가꾸주는 스킨+모션+에센스 3 in 1



주름지고 탄력없는 피부에 강력한 천연성분이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페이스 리제네레이팅 안티에이징 크림복스

피부 주름을 감소시켜 피부의 탄력 증가시켜서 처지고 탄력없는 주름이 많은 피부에 큰효과를 보냅니다.



문제성 피부의 유수분을 잡아주고 트러블을 잡는 고효능의 세안제!

이세오옴 PH 밸런스 크림

isoo home PH Balance Cleansing Cream 세안 후 건조함이 노폐물을 제거해주어 피부에 보습력을 향상하여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강력한 보습효과로 손상된 피부에 침투하여 피부를 오랜시간 촉촉하게 합니다

올트론 오이스퀴리징 6 in 1 페이스 플루이드

isoo moisturizing 6 in 1 Face Fluid 건조한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여 오랜시간 촉촉한 피부의 탄력 수분을 유지하게 합니다



주름지고 탄력없고 어두운 눈가를 생기고 쉽게 흘러 주는 유키를 이리킵니다!

프리스스 3 in 1 아이 플루이드

FreeStress 3 in 1 Eye Fluid 디카올과 주름진 눈가를 평평하게 해주는 티로로 인해 어두운 눈가 피부를 한하게 가꾸어 줍니다.

## 프랑스 프리미엄 오가닉 남성 스킨케어 66° 30

화학적분해 지체되는 당산의 피부, 자연으로 생기기 쉬운 성분입니다. 남성 전용 스킨케어로 유명한 에프르트의 로스캐비오 유기농인증 획득한 고품질 프랑스 프리미엄 유기농 남성 스킨케어. 66도 30은 2009 부터 생지아 이랜드 수상에 빛나는 독립적인 농장에서 재배된 특별한 최상급의 원료 화학성분 안전합된 프랑스 독립연구소의 검증이 완료된 강력한 피부개선효과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문의처\_www.mnq.co.kr



# MAXIM BUYER'S EDGE



## Panasonic, 방탄 노트북 CF-31 출시

파나소닉은 일명 방탄 노트북으로 불리는 테프북 CF-31을 출시했다. CF-31은 마그네슘 합금 케이스로 본체를 보호하였으며 내부는 6-520M core와 2G SDRAM을 탑재해 PC의 작업 성능도 높였다. 또 파나소닉 코리아는 11월 구매 고객에 한해 방송 디카 루믹스 TS2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니 놓치지 말자. 가격 550만원대. 문의 02-533-8462 [www.panasonic.co.kr](http://www.panasonic.co.kr)

## 온몸으로 즐기는 XBOX 360 키넥트!

한국미이크로소프트는 11월 18일 국내에 출시 예정인 아상틱 키넥트(Kinect) 센서의 가격을 공개했다. XBOX 360 전용 게임기인 키넥트는 컨트롤 없이 온몸으로 움직이는 게임이자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상틱이다. 가격 198,000원/키넥트 센서, 398,000원/키넥트 패키지 [www.xbox.com](http://www.xbox.com)



## C.호날두의 '타임포스' 한국 론칭

스페인인 스포츠8백십시계 브랜드 '타임포스'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영입을 앞세워 한국에 론칭했다. '타임포스'는 전 세계 40개 나라에 4천여 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다. 25가지 다른 스타일인 구상된 QR 캡 캡션과 황금색인당신도 호날두와 같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 30만원대. 문의 02-757-9866 [www.milmmatch.co.kr](http://www.milmmatch.co.kr)

## SONY, 혁신적인 알파 580 출시

소니코리아는 3D 스윙 파노라마 기능과 X20mm의 높은 해상도, 풀 HD 동영상 촬영 기능을 지원하는 알파 580의 후속 모델 알파 580을 출시한다. 알파 580은 광학식 뷰파인더를 탑재해 편의성을 높인 동시에 새롭게 개발한 오토 포커스 시스템, 초당 최대 7번의 고속 촬영, 보디 내장에 소형된 보정 기능 등을 갖추어 혁신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문의 1588-0811 [www.sony.co.kr](http://www.sony.co.kr)



## 루믹스, 3001 오리제일 네이비실 출시

루믹스 3001 오리제일 네이비실은 미 해군 특수 부대의 아간 작전 수행을 통해 진가를 인정받은 시계로 강화유리상용 케이스를 사용해 가볍고 견고하다. 2000미터 방수 기능은 물론 방탄 탱크놀리지를 적용해 아머 속에서도 별도의 충격 없이 밝은 빛을 25년간 유지할 수 있다. 당시는 더 이상 아머를 두르지 않아도 된다. 가격 399,000원. 문의 02-757-9866 [www.milmmatch.co.kr](http://www.milmmatch.co.kr)



## JEEP, All New 그랜드 체로키 출시

지프는 프로드 플랫폼 세련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결합한 올 뉴 그랜드 체로키를 출시했다. 올 뉴 그랜드 체로키에는 독자적 신기술이 적용되었다. 콰드라-리프트(Quadra-Lift) 시스템은 차 높이를 총 5단계에 걸쳐 최고 106mm까지 조정할 수 있다. 굳이 튜닝을 거치지 시스템은 유틸리티가 없다. 문의 02-3445-7469

## 런던 아이 스케이팅

올 크리스마스는 MAMM의 발상지 영국으로 떠나보자. 런던 햄크 지역에 위치한 런던 아이 스케이팅(London Eyeskating) 링크장이 11월 20일에 개장하니 여기도 꼭 들러볼 것.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람차인 런던 아이 아래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스케이팅을 즐기는 거다. 관람차가 타고 싶고? 아이스링크와 패키지도 이용 가능하니 보자. 미리 가격 105 파운드. 문의 02-546-7764



## 벨킨, 아이패드용 워한 토털 솔루션 출시

벨킨은 아이패드의 국내 출시에 맞춰 전용 액세서리인 토털 솔루션을 선보였다. 토털 솔루션은 단단한 폴리카보나이트와 TPU 재질을 사용한 아이패드용 완충케이스를 보호하는 올인원 360° 회전 케이스, 가볍고 컴팩트한 플립 스탠드, 고속 충전이 가능한 회전식 충전기와 차량용 마이크로 충전기로 구성된다. 문의 02-2088-7306 [www.belkin.com/kr](http://www.belkin.com/kr)



## 마일드세븐, 특별 한정판 출시

마일드세븐 특별 한정판은 지구  
를 나타내는 푸른 구체의 이미지  
와 마일드세븐 로고를 3D 디  
자인으로 표현했다. 브랜드 특  
유의 모던하고 글로벌한 이미  
지가 돋보인다. 가격 2500원  
문의 080-777-7777



## 강각적인 디자인과 획기적인 성능, 필립스의 Future of Light

필립스의 마스터 LED는 지난해 뉴욕디자인  
가 선정된 2009 최고 발명품 50에 선정된  
바 있다. 2와트(W)의 마스터 LED는 뛰어난  
빛 품질과 광효율성으로 80여종의 다양한  
구별 대체할 수 있고, 경제성 과 친환경성 면  
에서 백열전구는 물론 형광 램프(CFL)와 비  
교해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문의 02-2036-9906

## 이온결의 마술 쇼 더 일루션(The illusion)

마술사 이온결이 2년간의 근 생활을 마치고  
환상의 마술 쇼를 돌아왔다. 마술은 상상  
이라는 깨달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는 상상력의 극한을 표현하기 위한 그와 그  
의 상이 배어 있다. 연말 여천 손을 부여잡고 구  
경하기에 부족할 없는 공연이 될 것이다. 11  
월 7일부터 21일 4회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  
에서 열린다.  
가격 3,900~4,100원 문의 02-501-7888



## HONDA, 뉴 에코드 출시

혼다의 뉴 에코드는 엔진 부품의 마찰력을 감  
소함으로써 연비를 10.9km/L에서 11.1km/L로  
향상시켰다. 특히 고속 주행 시 연비가 기존 모  
델에 비해 개선된 점이 특이할 만하다. 경제성  
및 주행 안정성에도 많은 관심을 들었다. 기존  
모델보다 보디의 비틀림 강성을 개선했고 전  
엔에 에어백을 적용했다.  
가격 3,400만~4,100만 원  
문의 02-6250-9842



## 이세오옴, 남성 화장품 제품군 판매

세계 2여 개국의 고급 스킨케어 상품과 파리의 레미에와 썬랭뮤 변화에서 판매에 각  
광 받고 있는 프랑스 에스테틱 남성 화장품 이세오옴(ISO HOMME)에서 남성을 위한 제품  
군을 판매한다. 바르는 즉시 흡수되어 보습을 돕는 스킨-로션-에센스 제품인 비타민 E 토닝  
젤 트러블 진정 피지 관리 조성, 각질 관리 모공 수축을 도와주는 자성 피부용 대모 유리피  
로션 이 외에도 남성 신체 곳곳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을 준비했다.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하자 [www.mnq.co.kr](http://www.mnq.co.kr)

## PUMA, 겨울 아웃도어 패션 아이템 출시

스포츠 브랜드 PUMA가 유행을 스타일링시  
한 스트리트 패션을 완성하기 위한 퓨마 아  
이템을 선보였다. 온온한 색상과 슬림한 핏  
에 후드를 추가한 퓨마 후드스 구스다운 재  
킷은 일본 최고급 아시아 카세 원단을 사용  
해 세련미를 대했다. 깊이 심어진 어플리케이션  
발 제품인 퓨마 후퍼는 세일링-느낌의 여머  
부분과 벨트 나잇츠 스타일링을 믹스해 트랜  
디한 감성을 표현했다.  
가격 각각 299,000원 129,000원



## 더래핑카우, 파티 푸드 사식회 벨류브 모먼트 개최

벨류브의 상위 브랜드인 더래핑카우가 연말  
파티 시즌을 맞아 11월 26, 27일 영등포 타임  
스퀘어 아트리움에서 파티 푸드 시연회인 벨  
류브 모먼트 행사를 진행했다. 스타일리스트  
가 직접 만든 벨류브 미니-슈 카니베, 벨류브 미  
니 디도, 애플 벨류브 크래커 카니베, 벨류브  
셀러리 올리브 도지 등의 파인트 스타일 음식  
을 맛볼 수 있다. 벨류브는 현재 25개국가에서  
인기리에 판매하는 단속 포장 큐브 형태의 치  
즈다. 가격 5,000원 [www.helighting.com.co.kr](http://www.helighting.com.co.kr)



## 시리즈의 누오보 다운점퍼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시리즈  
(SERIES)가 2009년 겨울 새로운 정평을  
술사했다. 가죽 패치의 슬림핏 디자인으로  
소재와 디자인에서 이전 정평 라인과는 한  
층 진화했다. 나일론 소재의 누오보 오리지  
널, 클래식 울 소재 누오보 어벤, 빈티지 콘  
셉트의 누오보 빈티지 체크 패턴의 누오  
보 듀넨, 디테일을 정제한 누오보 베이시  
크로 스타일의 목을 넣었다. 가격 539,000원



## 당신의 필수 아이템, 페이스엑스엘!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각종 특별한 모임이 가득한 연말 시즌이 코앞이다. 주목받고 싶은 차드남들에게 세계 최초 6중남을 장착한 면도기 페이스엑스엘을 제안한다. 질사력은 강해졌고, 피부 진정 효과도 업그레이드됐다. 가격 118,000원  
문의 080-022-3211



incase

## 인케이스, Origami Sleeve for iPad 출시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제품들을 선보이는 인케이스가 Origami Sleeve for Pad 를 내놓았다. 통가성을 향상하기 위해 미세하게 구멍이 뚫린 소재를 사용한 골격과 액정이 닿는 부분은 인조 모피로 처리해 아이패드의 완전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제습,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추어 수평·수직으로 변형이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goincasekr



## MCM, 스마트워치라인 출시

독일의 명품브랜드 MCM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하여 세련되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스마트워치라인(Smart Watch Line)을 선보인다. 심플한 지퍼 디테일과 가죽만을 이용하여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감각을 연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워치라인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급스러운 오피스룩 스타일을 완성시켜 보자. 문의 02-540-1404



## 유행한 시계, 바가리!

유행한 시계, 바가리(VAGARIG) 감각적이고 모던한 이탈리아 브랜드 바가리에서 감각적인 컬러가 돋보이는 아나지(Are-dji) V2-01-90 시리즈를 선보인다. 아날로그 문자면에 디지털 문자만을 동시에 겸비한 바가리의 아나지 V2-01-90 시리즈는 캘린더, 알람, 온도계, 크로노그래프 기능에 레드, 화이트, 블랙의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어 당신의 크리스마스에 강렬한 포인트를 줄 것이다.  
가격 308,000원  
문의 02-754-3545

## 문학동네, 김훈 장편소설 <내 젊은 날의 숲> 출간

김훈의 신작 <내 젊은 날의 숲>이 출간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출간 전부터 인기리에 예약 판매가 진행될 <내 젊은 날의 숲>은 작가 김훈이 <강물>을 펴낸 이후 1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소설로, 민중선 안 국립수목원에서 세밀, 화가로 일하는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해 사랑과 서린, 사랑과 지연이 서로 엮이게는 문장을 잘 그려 작품이다.  
가격 12,000원



## 맥캘란 18년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마호카니 및, 저두 형 알린 과일 향, 우드 및 스파이스 향 내음 이 황상의 조화를 이루어온다는 평가를 받으며 위스키의 진흥을 이어나가고 있는 맥캘란이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제안한다.

맥캘란 18년 신과 올해의 트렌드인 올메이드 오크릿을 함께 곁들인다면 소중한 사람들과의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가격 25만 원(700ml)  
문의 02-3468-4600



## 머렐, 레퓨지 코어 미드 고어텍스

주최사의 머렐 브랜드에서 더욱더 아웃도어 슈즈인 레퓨지 코어 미드 고어텍스를 출시했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미드컷 디자인을 채용하여 발목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이중 밑도의 충격 흡수 패드를 채택해 보행 시 발생하는 충격을 없애도록 설계했다. 방수 및 투습력이 뛰어난 고어텍스를 사용하여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www.merrellkorea.co.kr

## 유니레버, 바세린 쉬어 인퓨전 출시

유니레버에서 기존 제품보다 2배 향상된 보습력을 지닌 바세린 쉬어 인퓨전을 내놨다. Slaye-3 기술을 적용 피부 속까지 다룬 보습 성분 13가지로 적용되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해 준다. 또 오일과 워터 성분 밸런스를 유지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끈적임이 없다. 종류는 세 가지다. 가격 17,500원, 119,000원  
문의 080-04-7000



행복은 혼다를 타고 온다

Ride to Love. Honda

**HONDA**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는

혼다 스타일의 Chopper

**VT1300C**

38" 프론트 포크 앵글 / 하이 스타어링 마운트 / 컬러: Black, Silver

남성적인 매력이 빛나는

Classic Retro 스타일

**VT1300R**

깊고 깊은 디자인의 웅대 / 40.1mm 빅스 장착가능 / 컬러: Black



도시를 유혹하는 세련된

Urban Pro-Street 스타일

**VT1300S**

21인치 프론트 휠 / 15인치 리어 휠 / 컬러: Black, Red



마침내 남자의 로망이 완성된다! 혼다 VT1300 시리즈

혼다 **V-TWO-WIN** 페스티벌

10월 31일까지

**1**

무이자 리스 지원

(연평균 50% 인센, 10개월 상환) 사

**2**

취·등록세 지원

※ 두 가지 혜택 중 택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식딜러

강북 딜러 02) 2272-5282

광주 딜러 062) 527-5050

강남 딜러 02) 566-3670

부산 딜러 051) 621-0032

인천 딜러 032) 502-7777

대표전화

**1577-2700**

혼다코리아(주) [www.hondakorea.co.kr](http://www.hondakorea.co.kr)

# MAXIM

SOUTH KOREA

## STYLE

아찔한 5인의 비키니 GIRLS  
Muffler on Naked GIRL

양키들이 그녀에게  
환장한 이유가 궁금한가  
미드 <THE EVENT>의  
**TAYLOR COLE**

## MAXIM BUSINESS

- 주식 태블릿 PC 랠리
- 법률 사기, 횡령
- 대선 젠트맨의 겨울

명 장 열 전  
**猛將列傳**

**J&B PARTY**

황우슬혜  
이정  
착한글래머  
VNT

Mac Book Air

*Hometown  
Hotlives  
2010*

X-MAS SUV  
Super REXTON 2.0

2010 Best  
Men's Cosmetic



카지노 차리는 법

**XXX GUIDE**

그녀를 찾는 법

머틀리 크루의 드러머  
Tommy Lee

2010년 12월호  
정가 4,900원



**추성훈**